

목포문학산책

목포문학길 투어

2018
신나는 예술여행
EXCITING ARTS TOUR

목포를 걸다

문학답사
1번지
목포



목포문학관



목차

I. 목포문학회 소개	7
II. 목포의 문학비	8
III. 목포문학의 흐름과 활동 김선태(목포대 교수)	17
IV. 작가 박화성과 목포 서정자(박화성연구회장)	32
V. 한국 극예술의 선도자 김우진을 따라 목포를 걷다 김성진(고구려대 교수)	46
VI. 아버지와 목포행 완행열차 차혜영(차범석 장녀)	73
VII. 김현 문학의 안팎, 그 남도의 빛깔 채희윤(광주여대 교수)	78
VIII. 작가 작품	
1. 김우진	86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자유와 자연의 독자/가을 강가에 시드려져가는 당버들을 보았노라/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자유극장 이야기/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창작을 권함네다	
2. 박화성	91
하수도공사/헐어진 청년회관	
3. 차범석	144
산불/옥단어	
4. 김 현	160
한국문학의 위상	
5. 김지하	167
황톳길/비녀산/용당리에서/산정리일기/성자동 언덕의 눈	
6. 최하림	174
시간의 풍경들, 그리고 말들/죽은자들이여,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호탄리 시편	
7. 김진섭	178
수필의 문학적 영역/백설부/생활인의 철학	

I. 목포문학관 소개

우리나라 연극에 근대극을 최초로 도입한 극작가 김우진!

우리나라 여류 소설가로 최초로 장편소설을 집필한 소설가 박화성!

우리나라 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극작가 차범석!

우리나라 평론 문학의 독보적 존재 문학평론가 김현!

1920년대 목포는 김우진과 친교를 맺고 지내던 문화, 예술인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예향으로서의 기초가 다져졌다. 1930년대 박화성, 1950-60년대에 들어서 이동주, 조희관, 최일수, 차범석, 권일송, 최하림, 김현 등의 등단으로 목포 문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목포시에서는 목포문학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문학적 성과를 이어받아 목포문학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목포문학의 미래를 펼쳐나가고자 한다.

목포문학관은 시원한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내다보이는 목포 갯바위 문화타운에 대지 2,825,94㎡, 지상 2층 건물로 1층 박화성관과 차범석관, 2층 김우진관, 김현관으로 꾸며진 국내 최초 4인 복합 문학관이다.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우리 한국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거봉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선생님의 삶과 문학세계를 손때 묻은 유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제,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

목포문학관을 통해 목포를 넘어 전국으로 퍼지는 문학의 향, 목포의 향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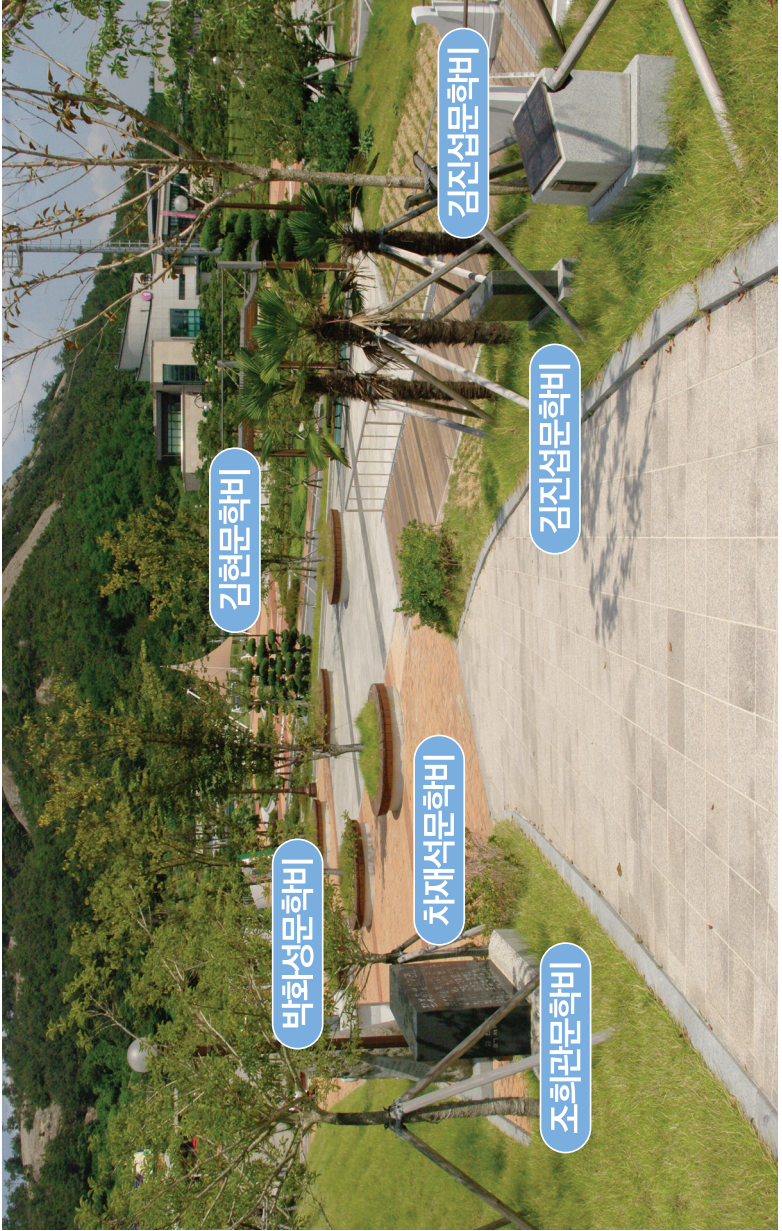
II. 목포의 문학비

▣ 목포권 문학인 동상 및 문학비 현황

◎ 총 수량 : 13기 (박화성 6, 김우진 1, 김진섭 2, 김현 1, 차재석 1, 김지하 1, 조희관 1)

◎ 설치현황

구분	비명	현 위치	건립년도	설치주관	비고
동상	박화성 동상 (및 문학비)	목포문학관	2004. 12	예총목포지부	
"	김현 동상 (및 문학비)	"	1995. 4	김현문학비 건립위원회	
문학비	김진섭 문학비	"	1990. 8	우리문학기림회	
"	"	"	1998. 6	한국문인협회, SBS문화재단	
"	차재석 문학비	"	2001. 4	예총목포지부	
"	조희관 문학비	"	2009. 10	"	
"	나의모교 정명 (박화성)	정명여중	1983. 9	정명여자중학교	
"	김우진 문학비	북교동성당	1990. 8	우리문학기림회	
"	김지하 문학비	유달산 어민동산	1994. 12	목포시	
표지석	박화성 생가터 표지석	목포시 죽동 (나무포식당 앞)	1996. 9	예총목포지부	
"	소설가 박화성 문학의 산실	목포시 용당1동 (동목포전화국뒤)	1990. 8	우리문학기림회	
"	문학의 산실 세한루(박화성)	"	2004. 12	목포시/박화성단생 100주년추진위	
기념비	박화성 문학기념관비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앞	1996. 9	한국문인협회, SBS문화재단	



〈씨 뿌리는 여인〉

아! 박화성
당신은 외로운 새벽별
여명의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별 하나
꽃다운 나이에 새벽길을 떠나는 나그네
찬 서리 매운 바람 속에서도
황량한 지평을 향하여
붓 한 자루로 꿈을 그려냈으니
아! 그것은 우리의 자유. 영원한 자유!
일제의 쇠사슬 아래서
야위어만 가는 이 땅의 골짜구니
눈물 고인 자리마다 무궁화가 피기를 갈구 했던 절망의 시대에도
가난과 무지와 종살이에서 벗어나자고
말과 글과 영혼으로 씨 냈던 진주같은 작품들
아. 당신은 이 세상 크기보다 더 큰
자유의 씨를 뿌린 선구자였소

세월은 가도 역사는 흘러도
진실과 사랑과 정의는 강줄기처럼 흐르니
팔십 평생 당신이 뿌린 문학의 씨앗은
세세 연년 해송보다 푸르름을 더해가니
유달산이 내려다보고 영산강의 품에 안긴
이 축복의 땅에 당신이 살아 계심에
아. 당신은 이 땅에 자유의 씨를 뿌리신
아. 당신은 새벽길을 열어주신 선구자였소

글 차범석 서기 이천 사년 십이월



〈소설가 박화성문학의 산실〉

(소영 박화성 1904~1988)

이 곳은 1925년에 등단한 선구적인 여류작가 소영 박화성 여사께서 사반세기(1937~1962) 동안 居處하며 『고개를 넘으면』 등 많은 명작을 쓰는 한편 우리 문학 재건기에 호남 일원의 문학도를 격려 지도한 문학의 보금자리임.



〈소영 박화성선생 문학기념관〉

한국 현대문학의 선구자인 소영 박화성(素影 朴花城 1904~1988) 선생은 투철한 항일정신과 민족 의식으로 우리나라 리얼리즘 문학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이다. <백화>, <홍수전후>, <고향 없는 사람들>, <벼랑에 피는 꽃> 등 우리문학사에 빛나는



많은 작품을 남기신 선생의 생애와 문학적 업적을 간직하여 이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기념관으로 1991년 세워졌다.

문학의 해를 맞아 이 뜻 깊은 곳에 선생의 높은 업적을 기리고자 한국 문학협회가 현대문학표지사업의 일환으로 이 글을 새긴다.

1996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황 명
SBS 문 화 재 단 이사장 윤세영

〈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

(1897. 9. 19 ~ 1926. 8. 4)

이 곳은 신문학 초기에 극
문학과 연극을 개척 소개한
수산 김우진 선생이 청소년기
(1908~1926)에 유달산 기슭
을 무대삼은 희곡 『이영녀』등
을 썼던 자리임



〈수필가 김진섭의 고향〉

(1903. 8. 24 ~ ?)

본적 전남 목포시 남교동
(현 죽동)135번지

이 곳 목포는 1920년대부
터 한국문학을 가꾸며 수필
집 『生活人の哲學, 생활인의
철학』 등을 남긴 청천 김진섭
의 고향임



〈청천 김진섭(聽川 金晉燮) 선생의 고향마을〉



청천 김진섭 선생은 1903년 이곳 목포에서 태어나 일본 호세이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하고 해외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해외문학작품을 번역 소개하여 우리 현대문학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수필과 평론에 전념. 『白雪賦, 백운부』, 『主婦頌, 주부송』 등 주옥같은 작품은 물론 『人生禮讚, 인생예찬』, 『生活人的 哲學, 생활인의 철학』, 『教養의文學, 교양의 문학』, 『聽川 隨筆評論集, 청천 수필평론집』 등 불후의 명작들을 우리에게 남겼다. 이 가운데 특히 수필의 문학적 영역은 현대한국 수필의 기틀을 잡는 명문장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선생은 6.25 전란시 납북되어 생사를 알 수 없으나 우리문학에 끼친 공로가 크므로 한국문인협회가 SBS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현대문학 표징의 하나로 이 글을 새긴다.

1998년 6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성 춘 복
SBS 문 화 재 단 이사장 윤 세 영

〈김현 문학비 (1942~1990)〉



한글로 교육받고 사유한 첫 세대로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일구고,
4,19의 체험으로
자유의 진정한 뜻을 찾아낸 그는,
문학평론가, 불문학자, 서울대 교수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살아 움직이는 상상력, 자유로운 사유,
섬세한 글쓰기로
우리의 문학과 지성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행복에의 꿈을 좇는
참된 삶의 길을 보여 주었다.
이에 그가 평생 정신의 고향으로 삼아온
이 고장에
삼가 비를 세워 그를 기린다.

-시 '바다'에서-

김지하

바다가 소리 질러
나를 부르는 소리 소리
소리의 이슬
이슬 가득 찬 한 아침에
그 아침에
문득 일어나
우리 그 날 함께 가겠다
살아서 가겠다
죽어 낫이라도 가겠다
아 아
삶이 들끓는 바다 바다 너머
저 가없이 넓고 깊은
떠나 온 생명의 고향
저 까마득한 미지의 바다



〈다목동 님을 기리는 돌〉

다목동 차재석님은 진정한
목포인이요 문화의 쟁기꾼
이다 내 고장의 기름진 예술의
싹을 틔우고 빛내는데 아쉬운
쉬운일곱 생애를 마쳤다
우리는 길이 그를 사랑한다



※ 차재석 (1925~1983) 목포출생, 극작가 차범석의 동생

- 1960년 3월 <목포문학> 창간호를 발간, 척박한 목포 문화예술의 성화를 위하여 헌신
- 수필분야에 열성적인 창작활동을 하였으며 대표작으로는 <삼학도 가는 길>, <악인의 매력> 등이 있음.

III. 목포문학의 흐름과 활동

김선태 (목포대 교수)

1. 태동기(1920년대)

목포문학의 태동은 목포항의 개항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목포항은 1876년 부산항, 1880년 원산항, 1883년 인천항에 이어 1897년 전국 4번째로 개항하였다. 개항을 통한 근대문화와 문물의 유입은 한반도의 서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포구가 근대도시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동인이었다. 그리하여 1895년 나주목 무안현에서 분리된 목포진은 목포항으로 급부상하였고, 1910년 국권침탈 후 무안부에서 목포부로 개칭되었으며, 1932년에는 무안군 일부 지역 편입으로 면적이 늘어나 인구 6만의 조선 6대 도시·3대 항구로 성장했다.¹⁾

하지만 개항 이전 목포문학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90년에 건립·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산사(儒山社, 현 목포시사)’가 그것이다. 이는 원래 이 고장 문인들에게 시문(詩文)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졌으나, 1910년 국권상실로 망국의 한을 달래며 우국충정의 비분을 토로하는 유림들의 문학결사 단체로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결성 시기가 개항 이전 그러니까 목포진이 무안현에서 분리되기 이전 이어서 목포만의 순수문학단체로 보기가 애매한 점이 있다. 게다가 이들이 창작한 문학작품 또한 한시 위주여서 근대문학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 그러나 목포문학의 유산인 것만은 사실이므로 기록에 포함은 하되, 근대문학의 산물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1949년 목포부에서 목포시로 개칭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진정한 목포문학은 근대 문물이 유입된 개항 이후부터 비롯됐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다시 말해 목포문학은 곧 목포근대문학으로 통한다.²⁾

목포문학이 근대문학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도 한국근대문학의 출발과 겹친다고 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목포 최초의 근대문인인 김우진이고 장르는 소설이다. 그는 일찍이 1913년(16세) 소설 「공상문학」(미발표)을 탈고했으며, 구마모토농업학교 시절인 1915년에는 비록 발표하지 못한 일문시(日文詩)이지만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라는 근대자유시를 창작했다. 이는 창작 시기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로 알려진 이광수의 『무정』(『매일신보』, 1917)보다 4년이나 앞서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자유시로 알려진 김억의 「봄은 간다」(『태서문예신보』, 1918)와 주요한의 「불놀이」(『창조』, 1919)보다 3~4년이나 앞선다. 이는 목포문학이 그저 한국근대문학의 뒤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된다. 목포문학이 호남근대문학의 출발점 혹은 거점 역할을 담당했다는 주장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듯 목포문학이 일찍부터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목포항의 개항에 따른 근대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일본 유학을 다녀온 근대문인들이 전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이들이 일찍부터 문학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2) 지금까지 『목포시사』, 『목포 개항 100년사』, 『목포 100년의 문학』 등에 기술된 목포문학사와 관련한 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노정하고 있다. ① 해방 이전까지 목포문학의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전무하다는 점, ② 해방 이후에 대한 기술도 잡다한 현황자료 중심으로 산만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 ③ 시기별 성격, 시대적 배경이나 원인 규명, 문학사적인 해석이나 의미 부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일개 지역문학을 넘어 한국근대문학의 한 메카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목포문학이 아직까지도 그 흐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는 목포에 기반을 두고 문학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숙제였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결함들을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비롯된 최초의 시도임을 밝힌다. 그리고 주요 문인이나 활동사항에 있어서도 최대한 객관성에 입각하여 선별·기술하려고 노력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미진한 점들은 차후 다른 글에 의해 보완·수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10년대가 예열의 시기였다면 목포문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형성된 시기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부터이며,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힌 장본인들은 김우진, 박화성, 김진섭이다. 각각 ‘한국 극예술의 선구자’, ‘한국여성소설의 대모’, ‘한국 수필문학의 비조’로 불리는 이들은 ‘목포문학의 1세대’이자 ‘한국 근대문학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있었기에 목포의 근대문학은 시작부터 그 탄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목포문학사에서 1920년대를 ‘3인 문단시대’라고 일컬어도 무방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박화성이나 김진섭이 목포를 떠나 타 지역에서 거주한 반면, 김우진은 비록 짧지만 귀향 이후 목포에서 창작 활동을 펼쳤던 만큼 1920년대 목포문학사에서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인은 김우진이라고 하겠다.

2. 위축기(1930년대)

일제의 사상탄압이 극심했던 1930년대 초·중반에서 황국신민화정책이 자행되었던 1930년대 후반까지는 우리문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과 맞물려 이 시기의 목포문학도 우리문학 전체의 흐름과 맥을 함께 했다. 목포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김우진의 사망에 따른 부재는 1920년대에 싸이 뒀던 문학이 1930년대로 발전적으로 이어지는데 다소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그런 속에서도 김철진(1900~1971)³⁾이 발간한 『호남평론』을 중심으로 펼쳐

3) 김성규의 둘째아들이자 김우진의 동생이다. 일본 구마모또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동지시대 정경과를 종퇴했다.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독립운동을, 1930년대에는 주로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1927년 신간회 목포지회 상무간사를 지냈고, 같은 해 조선공산당 목포지부 책임을 맡았다. 1935년 『호남평론』 발간을 주도했고, 전남도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1951년에는 목포상과대학(현 전남대 상대) 2대 학장을 지냈다. 한편, 그는 1937년 전 12권 6책으로 이루어진 아버지 초청 김성규(金星圭)의 시문집 『초정집(草亭集)』을 펴내기도 했다.

진 문학작품 발표, 출향문인으로서 박화성과 김진섭의 활발한 작품 활동은 이 시기 목포문학의 핵심적 내용이자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30년대는 조선인에 대한 사상탄압으로 신간회 해체(1932년)를 비롯한 카프 소속 문인들의 대대적인 검거(1931, 1934)와 해산(1935)으로 문학 운동의 조직적인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1920년대 중·후반 활발하게 움직였던 목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운동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목포지부 활동도 이때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930년대 초·중반에는 신문이나 잡지의 수가 늘어나 작품 발표의 장이 확대되기도 했다. 『목포평론』·『전남평론』과 종합시사문예지 『호남평론』의 속간이 그것이다. 특히 『호남평론』은 1930년대 목포 일대 문인들의 유일한 작품발표의 장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는 중국대륙 침략을 위한 조선의 병참기지화로 경제적 수탈이 가중되었는데, 오히려 목포는 나주평야의 쌀, 면화 등을 일본으로 실어가는 수탈 항구로서 부역의 확장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할 만큼 최전성기를 구가하였다⁴⁾ 1930년대 말에는 우리말과 글의 사용 금지,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탄압, 창씨개명 등 황국신민화정책이 노골화됨으로써 문학 활동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는 우리문단에서 여성작가들의 출현으로 여성문학의 위상이 정립된 시기이기도 한데, 이때 출향문인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한국여성소설의 중심에 우뚝 섰던 문인이 박화성이다. 그리고 한국수필문학의 개척자로서 김진섭이 연극 활동을 접고 본격적으로 수필을 발표한 것도 이때이다. 그러나 박화성도 1930년대 말의 열악한 문단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해방 때까지 절필하게 된다.

4) 1932년 목포는 무안군 일부 지역 편입으로 면적이 늘어나 조선 6대 도시·3대 항구로 성장하였다. 당시 목포의 인구증가율은 11.20%로 전국 최고였으며, 1935년 기준 인구는 6만 명에 달했다(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9쪽).

3. 암흑기(1940년대)

한국문학사에서 1940년대를 문화의 암흑기로 보는 것처럼 목포문화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해방 직전인 1944년까지 발표된 작품이나 문단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물은 전무하다. 그러나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가 막을 내린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절필했던 박화성이 목포 세한루에 상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재개하고, 같은 해 문예지 『예술문화』와 『보국문학』이 창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목포는 문학 활동을 펼치기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호남 서남부의 중심도시 특히 영산강 유역을 따라 전개되는 나주평야의 쌀과 면화를 수집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의 공업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점 항구도시인 목포에 있어서 해방은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기존 네트워크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그만큼 목포와 인근 지역은 새로운 도시로 거듭 태어나야 할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⁵⁾

해방 이후 목포사회도 상당한 격동을 겪었다. 우선 인구 면에서 보면 전체인구 약 8만 명 가운데 약 1만 명을 차지하던 일본인들이 해방 후 3개월 이내에 대부분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반면 일본·중국·남양군도 등지에 징병·징용으로 끌려갔던 청장년들이 귀국하였고, 만주로 농업이민을 갔다가 귀향한 이들도 수만 명에 달하였다. 아울러 북한에서 월남한 이들도 1천여 명에 달하였다. 또 해방 이후 빈곤한 인근 농촌과 도서지방에서 목포로 이동한 인구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목포의 인구는 1949년 9월 기준 약 12만 명에 달하였다. 이는 해방 전에 비하여 약 4만 명 증가한 것이다.⁶⁾

5) 목포백년회 편, 『현대의 목포-개관편』, 『목포개항백년사』, 1997 참조.

6) 위의 책.

4. 회복기(1950년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1950년대는 전쟁의 참화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암흑기를 견딘 목포문학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자생적인 뿌리를 내린 회복기 혹은 재생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951년 9·28 서울수복이 되자 해군 목포경비부가 정훈사업의 일환으로 월간지 『갈매기』와 주간지 『전우』를 창간하여 문인들에게 작품 발표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이를 발판으로 1950년대부터 잠룡처럼 숨어 있던 목포의 젊은 문학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문단에 대거 진출하게 된다. 이는 당시 한국문단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다 비극적 시대상황까지 맞물려 이렇다 할 문학적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양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문학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응전력을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혼란과 비극으로 점철된 이 시기에 거둔 목포문학의 성과는 매우 이색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원인은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유입된 피난 문인들의 목포 문단 합류와 문학적 중심축 역할을 했던 조희관·차재석·박화성 등의 헌신과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지방도시와 차원을 달리하는 출판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요인들은 목포문학이 1960년대 들어 전성기를 구가하는 밑바탕이 된다.

게다가 1950년 6·25 발발 이후엔 목포가 한반도의 꼬트머리에 위치해 있어서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던지 광주, 영광, 해남, 진도 등 인근 지역과 이북에서 피난 온 문인들이 대거 목포로 유입되었는데, 바로 이들이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목포문학을 회복·재생시키고 살찌우는 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

7) 김선태, 『목포권 문학의 어제와 오늘-목포문학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7호,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소, 2011, 32~34쪽 참조.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목포 문단은 피난 문인들이 합세하여 형성한 문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목포는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단적인 예로 목포항의 하역 능력은 해방 직후 30만 톤에서 한국전쟁 직후 15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며, 1960년에 이르러서야 해방 직후의 하역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⁸⁾

5. 전성기(1960년대)

1960년대 한국문학은 1950년대 한국문학을 계승·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 이후 한국문학사에 기록할 만한 작품을 남긴 작가들의 상당수가 이미 1950년대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작품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1960년대에 등단한 시인들의 작품에서도 전 시대의 문학적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목포문학도 마찬가지다.

4·19 시민혁명과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 산업화로 인한 경제구조 개편과 이촌향도현상으로 요약되는 1960년대에 이르러 목포는 도시의 인구 규모, 산업 시설, 도시주민의 생활 기반시설, 그리고 각종 교통망 등에서 전남지역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⁹⁾ 특히 항만의 기능 약화와 일제 강점기 산업시설의 붕괴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도 경제적으로 소외되면서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비판적 성향을 띠게 되었고 '야당도시'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¹⁰⁾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1960년대 목포문학은 1950년대 회복기 혹은 재생기를 바탕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8) 목포백년회 편, 『목포개항백년사』, 1997 참조.

9) 『목포개항백년사-개관 : 현대의 목포』, 목포백년회, 1997.

10) 중국의 개방화가 본격화되는 1990년대 초반까지 목포는 지속적인 침체의 도시였다.

(이를 보면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발달은 시대적 상황에 정비례하기보다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희관의 사망과 외지 문인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터줏대감인 차재석과 1950년대 등단 문인들이 상당수 건재한데다 김지하, 김현, 최하림 등 훗날 한국문단을 주름잡은 굵직한 신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무렵 목포의 오거리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

1960년대 목포문학은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현실비판의 성향을 지닌 작품들이 늘고 질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목포문인협회의 출범에 따른 기관지 『목포문학』이 창간되고, 한국 최초의 산문 동인지 『산문시대』와 목포 최장수 시 동인지 『흑조』를 비롯한 『보름시대』·『해안선』·『목요회』·『목포교육』·『목문학』 등 다양한 문학동인지가 쏟아져 나온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6. 퇴행기①(1970년대)

목포항의 엄청난 물동량 감소와 삼학양조의 파산으로 요약되는 1970년대 목포의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었다. 최고 13만 톤이었던 목포항의 물동량은 이 시기에 겨우 66천여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것도 실제로는 훨씬 미치지 못하여 부두노동자들은 인천 등 다른 항구로 이주해갔다. 1970년대 말에 이르르면 목포의 경제적 지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추락했다. 한때 전국 3대항 6대도시라던 목포는 ‘3급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1970년대의 목포문단은 소위 문인들의 이촌향도현상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차범석, 권일송, 김재희, 윤삼하, 천승세, 최인훈, 천승준, 김우정, 김정숙, 김하림, 최하림, 김현, 김길호, 송기숙, 박건한, 김지하 등 1950~1960년대의 목포 문단을 풍요롭게 하였던 주요 문인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 빠져 나갔다. 이들이

떨물처럼 빠져 나간 목포 문단은 알맹이 없는 쪽정리와 같아서 목포문학도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목포 문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었으며, 문학의 중앙집중화는 중앙문단과 지방문단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폐해로 작용했다. 그나마 남아 있는 문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지난 시절을 추억하는 과거추수적이고 자족적인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데 그침으로써 문학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했다. 또한 작품성보다는 행사 위주의 문단 활동과 문단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현상까지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1970년대 목포문학은 그대로 복지부동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목포문단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동문학의 분위기가 형성·확산되었다는 점이다. 1971년 『어린이 목포』 창간을 필두로, 1973년 전남아동문학의 밤, 1974년 소리아동문학의 밤 등이 잇달아 열렸다. 게다가 정중수, 최일환, 최재환, 유미순, 김종두, 박순범, 김재용, 서오근, 고정선, 김광채, 정대성 등이 아동문학 작품집을 발간하거나 아동문인으로 대거 등단함으로써 아동문학의 봄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종합문예지 『월간 향토』를 비롯한 동인지 『청호』와 『나루』가 창간되어 1960년대의 명맥을 이어갔다.

7. 퇴행기②(19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대의 목포문학은 사회적·경제적인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한 채 1970년대 쇠퇴기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문인들의 출향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 썰렁한 후유증은 여전했고, 1950년대부터 조희관과 더불어 목포 문단의 기반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던 차재석 등의 타계는 문학적 중심축의 부재를 불러왔다. 그런가 하면 목포교대가 4년제 목포대학으로 승격·개교(1979)하면서 개설

된 국문학과에 소설가 이동하·유금호와 시인 허형만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문인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리고 1980년 벽두부터 자생적 문인단체인 ‘한국문협 목포지부’가 정당한 명분도 없이 ‘한국문협 전남지부’ 결성으로 인해 해체되었다가 다시 환원하는 등 문단 조직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여전했다. 사회적으로 목포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도시였으나, 목포문학은 민중·민주로 요약되는 시대의 화두를 문학작품으로 담아내지 못했다. 또한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골몰하기보다는 행사 위주 활동에 치중하였고, 향토적 소재에 급급하거나 화려했던 전성기의 추억을 곱씹는 퇴행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영산강하구언 완공 등 소위 ‘서남해안 시대’의 기치를 내건 변화의 바람은 일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친 채 침체가 계속되었다.

8. 침체기(1990년대)

1) 개관

1990년대는 정치적 이념의 벽이 사라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며 문화적으로 신세대 열풍이 불었던 시기이다. 특히 1997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목포 사람들의 오랜 정치적 한이 해소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 목포문학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타지 못한 채 퇴행을 거듭하다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 구시대적 사고가 만연한 목포 문단의 폐쇄성은 더욱 견고해졌고, 문인들은 사분오열되었다. 어찌 보면 신인들이 대거 등단하여 문인들의 수는 늘었으나 작품성을 담보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문인은 극히 드물었다. 변화의 바람과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였다. 반면에 출향 문인들의 활동상은 눈부셨다. 특히 김지하, 김현, 최하림, 황현산 등은 한국문학의 중심에 우뚝 서서 그나마 목포문학의 자존심을 달래주었다.

그러는 속에서도 1990년 4월 16일 유달산 소재 ‘목포시사’에서 전국

유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백일장대회가 열렸고, 8월엔 ‘우리 문학기림회’(회장-이명재 중앙대학교수, 평론가)가 목포 출신 문인 박화성, 김우진, 김진섭의 표지석을 세웠다. 1991년엔 민예총 목포지부 문학위원회(초대 위원장-김주완, 현 목포작가회의)가 결성되어 지금까지 목포문학 단일체제였던 문학 단체의 양대 축을 형성했고, 1995년 기관지 『민예』와 『민족문화회보』의 발간, 1996년 영·호남문학인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2년엔 목포문학 주최 제1회 소영 박화성 선생 기념 백일장 대회가 열렸으며, 향토문화관에 ‘박화성 문학기념관’이 설치되었다. 1993년엔 목포시립도서관이 주최하는 제1회 목포시민 백일장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1995년 4월 15일에는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대표를 비롯한 김현문학비건립위원회 주최로 향토문화관 프락에서 김현 문학비 제막식이 있었으며, 전날인 4월 14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전야제 형식의 ‘목포문학의 밤’이 열렸다. 19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주간목포』에 목포 시단 100년을 진단하며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김선태 시인의 『목포 출신 시인 산책』이 연재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밖에 각종 시낭송회, 문학의 밤, 문학 세미나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9. 모색기(2000년대~2010년대전반기)

1) 개관

새로운 천년의 벽두에 해당하는 2000~2015년까지는 정보매체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변화의 시대로 요약된다.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정보와 의사소통이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과 지역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목포에도 많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다. 대불공단과 신항만이 조성되었고, 전남도청의 이전 등으로 인해 도심이 하당이나 남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예술의 거리’가 조성됨에 따라 문화의 중심도 오거리 일대에서 갯바위 일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초·

중반기에 활동했던 문인들도 대부분 작고하게 되면서¹¹⁾ 목포문단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오랜 침체가 계속되었던 목포문학도 바야흐로 암중모색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문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달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기존의 막연한 호기심이나 취미로서의 글쓰기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과 방법론을 터득하여 글을 쓰기 위한 각종 문예창작강좌가 속속 개설되었다.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현대시 창작반, 목포시인학교, 목포문학관 문예대학 시·소설 창작반, 목포공공도서관 바다문학교실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예비하는 문학 지망생과 등단 문인(중고 문인)이 크게 늘었지만, 젊고 가능성이 있는 신인들이 드물다는 점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다. 중앙문인을 초청하여 특강이나 강연을 듣는 등 중앙문단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예술의 거리 조성과 더불어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관인 목포문학관이 개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목포문화재단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들어서 문학인들의 창작과 문학 단체별 행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목포문학관에서는 목포문학상을 제정·시상함은 물론 매년 김우진문학제, 박화성문학페스티벌, 김현문학제, 차범석연극공연을 개최하고, (재)목포문화재단에서는 격년 문학작품집 『문학목포』와 기관지 『예향』을 발간하게 되었다. 2001년엔 목포민예총 문학위원회가 (사)민족문학작가회의 목포지부(현 목포작가회의)로 공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점은 1990년대에 이어 시낭송단체와 시낭송가가 대폭 늘어났으며, 이들 단체가 개최하는 시낭송회가 시시때때로 열려 시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시조

11) 2000년대 들어 유명을 달리한 문인들도 많았다. 예술원회장을 지낸 한국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로 평가받던 차범석이 유명을 달리했고, 이생연, 최일환, 김종두, 최병두, 김동하 시인 등도 세상을 떠났다. 2015년 현재 생존 원로 문인은 수필가 김학래, 시인 최재환, 시인 이영식 정도이다.

로 등단한 문인들이 많이 나타나 시조문학의 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0~2015년은 목포문학이 오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암증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롭게 펼쳐졌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목포문인협회, 『목포문학』 제3호~제5호, 1974~1978.
목포시문학동인회 작품집 제29호, 『거미줄에 달린 맑은 구슬』, 도서출판 한림, 2015.
목포예술인총연합회, 『목포예총』 창간호, 1979.
목포작가회의, 『목포작가』, 2004.
『목포풍아집』, 목포시사, 1965.
『시아문학』 제3호, 심미안, 2015.
『시정신』 창간호, 향도출판사, 1952.
『호남평론』, 1935. 4.~1937. 8.
『흑조』 창간호, 흑조시인회, 1966.

2. 연구논저

-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대중문화를 통해 본 식민지 근대성」, 『지방사와 지방 문화』 제9권 1호, 2006.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 공간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화운동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김병고, 「오거리 애환과 화랑, 화방에 부쳐」, 『목포예술인들의 빛과 그림자』, 『목포투데이신문』, 2008.
김선태, 「목포 출신 시인 산책」, 『주간목포』, 1999. 10.~2000. 6.
김선태, 「목포권 문학의 어제와 오늘-목포문학의 실태와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37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1.
김지하, 『모로 누운 돌부처』, 도서출판 나남, 1992.
목포백년회, 『목포 100년의 문학』, 올피, 1997.
목포백년회, 『목포 개항 100년사』, 올피, 1997.
목포시사편찬위원회, 『목포시사』, 1980~1997.

- 박상미, 「황현산·정산, 한국에서 유일한 '평론가 형제」, 『주간경향』 1126호, 2015. 5. 19.
- 박화성, 「나의 교유록」, 『동아일보』, 1981.1.5.~2.28.
- 이서진, 『동인지 <<산문시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0.
- 장석주, 「장석주의 '한국문단 비사'(28)-문학평론가 김현(上)」, 『한국경제』, 2002. 11. 29.
- 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전남문학변천사』, 1997.
- 정태영, 『박화성과 이난영, 그들의 사랑과 이즘』, 뉴스투데이 출판사, 2009.
- 정태영, 『문학실천가 김우진을 다시 읽다』, 뉴스투데이 출판사, 2011.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상』, 국학자료원, 2006.
- 한국지역문학인협회, 『광주전남문학통사』, 2011.
- 허소미, 「김우진의 시에 대하여」, 『문학춘추』, 2014. 가을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2006.

3. 기타

목포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카페

(http://i1.daumcdn.net/cafeimg/cf_img2/img_blank2.gif)

이동순, 「한국시단의 등뼈 同人/신문학·시정신」

(<http://cafe.daum.net/youngsangangcafe>)

IV. 작가 박화성과 목포 / 서정자 (박화성연구회장)



작가 박화성과 목포

박화성은 1903년 목포시 죽동 9번지에서 음력 4월16일(양력 5월12일 화) 박운서 김운선의 3남2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본명은 박경순(朴景順, 朴敬順) 아호는 소영(素影) 필명은 박화성(朴花城)이다.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자란 박화성은 1955년 서울로 이주하기까지 유학기간을 빼고는 목포에서 52년을 살았다. 박화성은 숙명여학교 졸업 후 천안과 아산에서 1년간 보통학교 훈도생활을 했고, 1920년 광주에서 북문밖 교회의 야학과 유치원 교사를 하기도 했으며, 영광의 향교에 부설된 중학원 교사생활을 약 2년간 한 적도 있어서 천안 아산, 광주, 영광과 서울에 그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목포 정명여학교를 거쳐 서울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 문단에 단편 「추석 전야」로 등단한 박화성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여자대학 영문학과에 입학, 3년 수료하였다. 호남을 통틀어 일본유학을 한 유일한 여성작가이며 일제강점기 호남 출신으로 유일한 여성작가이다. 일본유학에서 귀국하자 장편역사소설 『백화』를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선풍적 인기를 끌며 그의 문명을 세상에 높이 알렸다. 이 소설은 한국 여성최초의 장편소설로 기록되었다.

박화성은 어려서 신동이라 소문이 나서 기독교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으며 일반 입학연령보다 일찍 입학하고 월반을 계속하는 등 계속 화제를 뿌렸으며 숙명여고보 졸업 성적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고 일본여자

대학 입학은 나흘 동안 계속되는 어려운 입시였음에도 단숨에 합격했다. 풍금을 잘 쳐서 숙명여학교 영친왕 모신 자리에서 연주를 했으며, 졸업 후 광주에 김필례여사에게 풍금수업을 계속 받아 목포에서 김우진 등이 마련한 하계 도쿄 유학생 순회공연 때에 풍금으로 채동선의 바이올린 연주의 반주를 맡기도 했다. 김필례여사의 주선으로 광주에서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어린 시절 박화성은 유복한 환경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목포역 뒤가 아직 바다여서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고 유달산 아래 사는 친구 집에 놀러가 감자를 캐며 놀기도 했다. 당시에 이미 김우진의 부친 김성규의 대궐 같은 집 성취원이 북교동에 자리 잡아 그 친구 집이 김장성의 집 뒤로 돌아가면 있었다고 해 어린 시절부터 김성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김장자로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지주 또는 부자는 이 김성규가 모델이었을 듯하다. 김성규 외에도 김성규가의 인물로 추정되는 부잣집 아들이 소설에 등장한다. 김성규의 장남 김우진은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소시에테 마이’를 결성하여 목포에서 문학운동을 이끌어 그 위상이 중앙 문단에 서도 인정받는 것이었다. 영어와 독일어 등 언어에도 천재였다. 목포문학의 문호를 연 희곡작가 김우진은 박화성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일본유학을 꿈꾸게 한 점이나 같은 영문학을 전공한 점 등을 미루어 박화성에게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고 보이며 사상적으로도 박화성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목포항은 쌀, 소금 목화 등 물산의 집산지로서 삼백(三白) 물산수출의 전진기지이기도 해서 일찍이 노동운동 및 노조활동이 활발했고 식민지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도 뚜렷해져 사상운동이 활발해졌다. 농촌에서도 지주의 지나친 소작농 수탈에 따른 저항운동도 빈발했다. 암태도 소작쟁의가 그 한 예이다. 목포의 지식인이 사상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이러한 목포의 사회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박화성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오빠 박제민과 함께 남편 김국진이 있다. 박화성은 1928년 강진이 고향인 김국진(본명 김삼흥·목포상업학교 졸업, 와세다대 중

퇴)과 가족허락 없이 결혼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가족과 친지에게 청첩장을 보내 결혼을 알렸다. 일본여대 재학 시 독서회 영향으로 복본주의 등을 접한 듯이 보이며 김국진과 만나 그의 사상성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보인다. 학비 곤란으로 귀국하여 목포에서 격문사건으로 남편 김국진이 입옥하게 되고 생계를 위해 소설집필에 매달린 것이 작가 박화성이 화려하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박화성이 단숨에 『동아일보』에 소설 『백화』를 연재하게 되자 이 소설은 오빠가 대신 써 준 것이라는 음해성 기사가 사회주의 전문잡지 『여인』에 실리고 박화성이 김국진과 이혼하고 천독근과 재혼한 것에 극도의 비판과 모략을 담은 글을 역시 『여인』에 실은 것은 목포의 사상운동 사람들이 박화성이 민족진영의 이광수가 주관하는 『동아일보』와 그 계열의 잡지에 소설을 실어 활동하는데 대한 공격이라 본 추정은 일리가 있다. 이 모든 음해는 박화성의 연이은 결작의 발표로 유아무야되었으나 여성혐오에 고착된 가부장주의 남성들의 여성작가에 대한 비난과 폄훼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여성문학에 대한 무관심, 목포가 낳은 자랑스러운 여성 박화성의 문학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이를 반증한다. 박화성은 실로 훌륭하고 재능 있는 작가로 일제식민지시기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과 현실에 대한 정서와 고발로 민족이 나아갈 길을 소설로 보여준 지식적 작가인 것이다.

박화성은 타계하기 3년 전인 1985년까지 소설을 써서 발표했다. 60년에 걸친 작품 활동에서 그 전기(前期)라 할 1925년부터 1937년까지(일제 말 암흑기 약 7년 작품 활동 없음. 따라서 친일 시비가 없는 작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 일간지와 『조선문단』, 『동광』, 『신동아』, 『조광』, 『신가정』, 『여성』, 『삼천리』, 『호남평론』 등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백화』, 『북국의 여명』의 장편 2편, 「하수도공사」, 「비탈」의 중편 2편, 「추석전야」, 「홍수전후」, 「한귀」 등 단편 17편과 희곡 1편, 콩트 1편, 동화 1편, 연작소설 2회 총 26편의 소설을 썼고 기타 수필과 기행문 「경주기행」, 「부여기행」, 「해서기행」을 연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 시기의 그의 문학은 거리가 목포를 배경으로 하거나 목포 인근의 농촌, 섬지역의 어촌을 배경으로 목포방직공장의 여공을 그린 등단작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힘없고 약하여 가난과 싸우는 농민과 어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제식민지치하 폭정과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소설을 써서 당시 문단의 총아로 떠올랐다. 백철은 그의 『신문학사조사』에서 여성작가 항목을 따로 잡아 모아 썼으나 박화성만은 남성작가들과 함께 문학사의 주류에서 언급을 하였다.

이 글은 박화성의 문학에서 목포와 관련하여 꼭 둘러보아야 할 곳을 써달라는 부탁에 따라 목포와 그 인근지역의 묘사를 발췌하여 본다. 중·후기의 작품 중에서도 일제식민지시기의 목포를 묘사한 부분을 찾아 추가하였다. 단순히 지역만을 제시하면 작가가 쓴 그 감동어린 분위기가 전해지지 않을 듯해 가능한 대로 그 지역 묘사 부분을 찾아 모아본다.

추석전야 (목포 선창과 해안 시장)

“해풍으로도 유명하거니와 풍경으로도 굴지하는 목포의 석양은 면하가루에 붉어진 그들의 눈을 위로해주며 해안의 양풍은 땀에 젖은 그들의 얼굴을 곱게 씻어준다. ...바다 저편 월출산 위에 붉게 타는 저녁 구름을 바라보며 포구로 돌아오는 흰 돛대의 움직이는 그림자를 돌아보면서 양풍이 머리카락을 훑날리는 해안을 걸을 때는 잊었던 나를 다시 찾은 듯이 정신을 차려 시원함을 느끼며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간이요, 돌아온 어선에서 우물거리며 소리치는 사람의 소리와 선두(船頭)가로 쌓아 놓은 수박과 생선, 건(어)물에서 개미떼같이 덩비며 눈이 별게서 날뛰는 사람 틈을 걸어 올 때는 가슴이 뻐근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집에서 기다릴 주린 식구들이 눈에 보이자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숙 빠뜨리고 젊은 여자들의 마음을 살려는 듯이 거리거리에 벌여놓은 모든 것, 보기만 해도 침이 흐르는 먹을 것들이 벌여져 있는 것을 아니 보려는 듯이 바쁘게 발을 옮긴다. 그들은 오

전 7시에 나온 자기의 집에 들어 갈 때까지 이러한 일과를 매일 매일 계속한다.”

“남편으로는 준비한 일인의 기와집이요, 중앙으로는 초가에 부자들의 옛 기와집이 섞여 있고 동북으로는 수림 중에 서양인의 집과 남녀학교와 예배당이 솟아있는 외에 몇 기와집을 내놓고는 땅에 붙은 초가뿐이다. 다시 건너편 유달산 밑을 보자. 집은 돌 틈에 구멍만 뻥 뚫어진 돼지 막 같은 초막들이 산을 덮어 완전한 빈민굴이다. 동북으로 비스듬히 높은 성당산 숲속에서 십자가를 머리에 꽂고 아련히 내다보는 성당은 멀리 서해에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며 느린 종소리를 걸어가는 시간에 고요히 흘린다. 앞산 달성사의 새벽 종소리에 눈 뜬 목포는 뒷산 성당의 저문 종소리에 눈을 감는 것이다. 옛 절의 새벽종소리 사원의 만종은 목포가 홀로가진 자랑거리이며 성당 이북으로는 발가는 소의 풍경소리가 한가하고 논두렁길로 풀을 지고 오는 농부와 밭 매는 아낙네들의 흥글 타령이 흐르는 농촌이요, 북편 바닷가에 자리 잡고 앉은 기와가마(동리이름)는 어촌이다. 감자 배 수박 배 나무배 고깃배 돛대가 들어선 해변에서 김칫거리를 씻고 있는 아낙네는 어부의 아내인 듯.”

“하루에 네 번씩 나가고 들어오는 기차를 보내고 맞는 정거장을 중심으로 선인과 일인의 상점이 준비한 중앙은 조선의 몇째 안 가는 도회로 부끄럽지 않으며 크고 적은 섬이 둘러있는 푸른 바다에 점잖은 기선과 어여쁜 흰 돛대 방정스러운 발동선들이 들고 나는 항구의 특색은 남편 해안에 있다. 주위의 풍경은 그림 같고 농촌과 어촌 산촌과 도회와 항구의 각색 맛을 곁하여 가지고 있는 목포는 매일 움직이고 시시각각으로 자라가건만 그 이면에 잠겨있는 빈민의 생활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을 만한 비참한 살림이 숨어있는 것이다. 해안에서부터 일어난 바람이 호남정 영신의 집 뒤 포플러 앞을 제멋대로 뒤편이다가 병든 잎 하나를 영신의 머리 위에 똑 떨어뜨렸다.”

하수도공사 (죽교동 일대)

작가가 일본에서 돌아와 사상운동을 하던 시기의 모습이 신선하게 나타나 있다. 하수도공사를 하기 전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집안으로 달려드는 광경을 그려 당시의 목포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인공 동권이 다닌 상업학교, 동권의 애인 용희가 다닌 정명학교(용희는 키가 크다는 죄로 학교까지 중지당하고 들어앉아있다.)가 나오며 용희아버지는 죽동에서 포목장사를 하고 죽교리에 새집을 지어 이사를 왔으며 동권이 부모는 용희어머니의 소개로 이웃집 방 한 칸을 얻어 이사 왔다.

“오포산에서 깜짝 놀라도록 큰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대목 역시 당시의 목포를 보여준다. 목포경찰서, 보통학교(북교초등학교), 고무공장이 나온다. 유리문 달린 정 의 집은 최근까지 하수도 복개한 주변에 있었던 가게 형식의 집이다.

하수도공사를 마친 다음 그 위용을 묘사한 대목은 하수도를 복개한 오늘날 중요한 증언이다.

“뒷개에서부터 보통학교 뒤로 김장자의 대궐 같은 뒷담을 감돌아 유달산록의 허리띠와 같이 하수도는 굉장하였다, 일 년 동안 자기보다도 삼백 명 동무들의 노력으로 된 하수도를 굽어보며 그 언덕을 걸었다. 초승달이 유달 산봉에 걸리어 고향의 마지막 밤을 지내는 그의 가슴을 홀로 알아주는 듯이 내려다본다. 그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뒷개로 향하여 걸어온다. 이 굉장한 하수도를 보는 자, 돈과 문명의 힘을 탄복하는 외에 누가 삼백 명 노동자의 숨은 피땀의 값을 생각할 것이며 죽교의 이 높은 다리를 건너는 자 부청의 선정을 감사하는 외에 누구라 이면의 숨은 흑막의 내용을 짐작이나 하라.”

“하수도 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정미장의 조이는 전등불이 보였고 별판에 감옥이 보인다.”

떠나려가는 유서 (뒷개)

뒷개의 뒷 솔밭이 나온다. 당시에는 솔밭이 있었다.

“압해도를 향하는 풍뎡선들이 미끄러지는 듯이 섬 그늘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한다.” “바다에는 게 구멍이 방긋방긋하고 게들만 우물우물 하였으니까.”

비탈 (목포역, 유달산 상봉(일등바위))

주인공 수옥은 비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의식 없는 신여성이다. 수옥이네 집의 농가와 그 가족의 모습을 묘사하는 작가의 필치가 놀랍다. 당시 삼향역 근처 농촌의 묘사를 보면 작가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다. 한 문장에 세 인물들의 움직임이 한데 모아져 생동감이 넘친다.

“지주의 딸을 손님으로 모신 수옥의 부모는 점심 대접할 준비에 분주하였다. 유생원은 그늘진 곳에서 생선을 다루고 수옥어머니는 풍포에 불을 피웠다. 그리고 수진이는 어린 감자를 캐러 뒷밭에 갔다.”

임성역과 삼향역, 다너밋재, 월암산, 남북악리, 부림병원…이 소설에서 나오는 무안과 목포의 고유명사들이다.

목포/태풍경보 유달산 허리에 딱지닥지 붙은 오막살이집들과 호남정 근방에 즐비하게 있는 움집 사람들까지 지붕을 손보고 양철지붕을 큰 돌맹이로 눌러놓기도 했다. 그러나 온 동네를 다 털어야 신문 한 장 보는 집이 없는 하숫들, 샛들, 다너밋들이며 남북악리 같은 궁벽한 농촌은 이러한 소식을 알 길이 없었다. 다만 “영산강이 넘었다더라. 나주들이 바다가 되었다더라.”라는 어디로 선지 누구의 입으로 선지 오는 곳 모르게 퍼져오는 소문 만에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였다.

용당리에서 바라보이는 목포

“그곳에서는 목포가 바다 하나를 격하여 유달산의 측면인 솔숲 속에 솟은 붉은 지붕의 문화주택을 비롯하여 공장의 높다란 굴뚝들이며 온금동 비탈의 구멍만 보이는 초가집들을 보이고 있었다. 과연 신흥도시의 양면을 잘 보이고 있었다.”

두 승객과 가방 (목포형무소)

“흰 정복에 검정정모를 쓴 간수들이 정거장 뜰에 뒤덮여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너른 정거장 울안(構內)에서 물 끓듯 한 말소리를 내고 있었다.”

“당지에서 유지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신사라는 신사는 모조리 나와서 정거장 정문 앞에 임시로 시설한 상 위에 놓인 명함그릇 속에다가 각각 자기의 명함들을 넣었다. 상 양쪽에는 무슨 주임이라는 사람과 간수부장들이 서서 연방 허리를 굽실댔다.”

“기차는 움직였다. ‘○씨 만세’소리가 세 번 우렁차게 났다. 정체가 그들 앞을 지나칠 때까지 그들은 모자를 흔들고 허리를 깎죽거리려 영광스럽게 영전하여가는 사람을 전송하러 나온 그들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였다.”

논 갈 때

우리나라가 아직 농경사회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호호 보리 웃거름은 벌써 났지요. 논에다 떼나 캐다가 깔고, 소두엄이나 내고, 밭독이나 치고…….”

“밭이나 논을 세 번, 네 번씩이나 갈기는 여간 바쁜 일이 아니냐?”

“그래도 인제 못자리 거름할 풀을 캔다, 눈에 물을 댄다, 뭐 점점 일이 더 많지요.”

헐어진 청년회관 (목포 청년회관)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일개인이 아니었다. 목포 청년들의 지덕함양을 목표로 한 청년회가 세운 집¹²⁾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이 집 속에서는 날로 때로 열리는 각종 합법 단체의 삶을 요구하고 해방을 부르짖는 외침이 얼마나 힘 있게 흘러나왔던가? 각 단체 주최의 학술강연이나 사회문제 강연은 얼마나 자주 있었던가? 청년들의 공동의 집이오, 그들은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며 가르치던 위대한 사명을 가졌던 이 집의 오늘의 헐어진 이 몰골의 비참함이여!”

* 신간회 목포지부 근우회 목포지부가 1927년 12월 이 목포청년회관에서 창립되었다.

신혼여행 (목포)

“큰 길 좌우에는 음식점이 거의 한 칸도 거르지 않고 먼 거리까지 죽연해있었다. 그 음식점마다 기름머리를 치켜 빗고 분을 하얗게 뒤집어 쓴 여인들이 삼사 인씩 번들거리는 인조견 치마들을 지르르 끌고 길거리 에 나와 서서 콧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거리면서 그럴 듯한 행인들에게 낚싯대를 걸고 있다.

“이것이 조선에서도 첫째로 칠만한 목포 공설시장이라우.”

준호가 왼쪽에 보이는 큰 건물을 가리켰다. 그 맞은 편 카페에서는 비속한 레코드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여급들의 웃는 억지 웃음소리도 들렸다.”

12) 1925년 목포청년회가 세운 건물. 회관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각계각층의 기금모금으로 건축되었다. 『조선청년』이란 잡지를 발행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눈 오던 그 밤 (영광)

박화성이 중학원 교사를 하던 영광의 눈 오는 밤 묘사다.

“이러한 이유로 달이 수퇴봉(水退峯) 위에 올라와 눈 내리는 R음을 아련하게 비춰주는 열시가 훨씬 지난 때에야 우리는 K형의 집을 떠나 왔던 것이다. 이 모퉁이 저 골목에서 두 선생을 작별하고 A형과 나는 적은 시내를 끼고 줄곧 향교 길로 올라가는 눈 덮인 길을 걸어갔다.”

홍수전후 (나주)

“장성, 능주, 남평, 화순, 옥과, 곡성, 순창, 담양, 평창, 나주, 송정리, 광주 등의 열두 골목이 한데로 합하여 내려가는 길이 되어있는 영산강의 물은 시시각각으로 불어만 갔다.”

“개산 시령산이며 운곡리 뒷산 등 높은 곳에는 아기를 업고 안고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흰옷 그림자가 사납게 쏟아지는 빗발 속에서 처참한 광경을 곳곳이 나타내고 있었다. 나주 정거장은 물에 잠기고 기차선로는 끊어져 문명의 빛난 무기도, 누르고 붉은 물결만은 이겨낼 수가 없었다. 삼도리, 길옥구, 옥정, 신기촌, 광불, 덕치, 강경골, 가마테, 영산리, 새울, 툫계리, 도충, 돌고개, 원촌이며 금천면, 신가리 등의 이재민들은 전부 다 농민인 중에 가난한 상민도 끼어 있었다. 왕곡면 옥곡리와 다시면 죽산리는 아주 전멸하여버리고 말았다.”

북국의 여명 (목포형무소)

그들은 형무소 한 편 차입하는 방문 앞에서 또 한 십오 분쯤 기다렸다.

“지금은 따뜻하니까 이럴 만도 하제만 비나 오고 눈이 오고 추워만 보시오. 그 눈비를 다 맞으면서 이려고 기다릴라면 참 기막히지라우.”

하고 주막집 노인이 머리를 설레설레 내흔들며 말할 때 차입 실 문이 덜컥하고 열렸다. 그들은 우 하고 그 앞으로 몰려 들어갔다. 쇠사슬 하나를 돌이서 허리에다 맨 붉은 옷의 전중이들이 짜랑짜랑하는 쇠사슬 소리를 내면서 양철 밥그릇과 양철 접시를 차입대(差入臺) 위에다 툭툭 내놔다. 거무스름한 기름때가 덕지덕지 앉은 양철밥그릇은 손에서 빠져나갈 듯이 미끄러웠다.

한귀 (나주 광성교회)

금성산(錦城山) 상봉에서 불이 일어나자 나주와 영산포의 넓은 들에 둘러있는 각 산봉우리에는 일제히 불이 댕겼다. 바람이라고는 풀잎새 하나 건드리는 실바람조차 없는 밤이라 불길은 퍼지지 않고 쪽달이 걸린 하늘로 곧추 훨훨 올라갔다. 동네동네에게서는 아이들의 “어 와”하고 소리치는 환호성이 들려왔다. 조용한 불빛에 어린애를 업은 여인들과 처녀들로 덮인 등성이등성이 보였다.

“사실 농부들은 예배당에 나오기를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것보다도 나올 틈이 없었다. 하루종일들에 나가서 모진 일을 하는 그들의 고달픈 몸이 밤이면 다시 쉼신도 삼고 새끼도 꼬고 그리다가 정신없이 아무데나 쓰러져 잠이 들어버리니 어떻게 교회에를 나올 수가 있으며 밤을 낮으로 이어 품앗이 방아들을 짙는 여인네들인들 어느 틈에 한 시간의 여유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때문에 주일날이나 삼일절 예배에는 교회를 세우기가 이십여 년이나 되는 이곳이건만 예배교인이 남녀 합해서 열사람을 겨우 넘는 때가 많고 교인일지라도 두 주일을 연달아 나오든 사람이 적었다.”

중긋날

“끝없이 가없이 열려갈 듯싶은 바다이건만 조그마한 섬들이 길을 막아 있는 탓으로 바다는 겨우 큰 그라운드 만큼밖에 열려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계를 잡는 아낙네의 수요는 많았다. 중긋날이 내일 모레이건만 햇볕은 여름처럼 따가웠다. 이따금 터진 데로부터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젓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야 가을이라는 것이 비로소 알려지는 듯 그들은 가끔 손을 놓고서 드높이 개어있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다리의 허벅다리까지 완전히 빨칠을 하고 어깨까지를 빨로 뒤집어 쓴 아낙네들은 빨발을 걸어가며 계 구멍을 뒤적였다. 저편에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로 발을 옮기면 계는 구멍으로 쑥 들어갔다. 그 계 구멍을 뒤여 파서 혹은 어깨까지를 계 구멍에 넣어서야 두어 마리 쫓 잡는 것이었다.”

불가사리

아버지 창수노인의 회갑연과 함께 새로 승격된 광주부를 축하하기 겸 별인 잔치.

고향 없는 사람들 (함평 업다면 불암리)

“3월 22일 오전 10시!학다리(鶴橋) 정거장은 일백호의 가족 사백 명의 이민(移民)과 그들을 전송하는 이백 오륙십 명의(정거장이 생긴 이후 처음 되는)굉장하게 많은 손님들을 가져보았다.

작고 퇴색한 검은 보에다가 터지도록 싸놓은 침구의 양 귀퉁이가 삐죽하게 나와서 남루한 몰골을 보이고 있고 참기름이나 피마자기름병인 듯한 맥주병이 가뜩이나 작은 보자기에 얽치없이 끼어있었다. 물에 담갔다가 정히 씻었으려면, 그 보람도 없이 시꺼멓게 그을린 대 석작(아마

그 속에는 사발 접시 이런 것들이 있겠지) 위에와 옆에는 크고 작은 바
가지를 엮어서 새끼 등속으로 동였고 거의 다 떨어진 부담상자와 농들
도 각각 수하물(手荷物) 행세를 하노라고 면 이름과 성명을 적은 꼬리표
를 달고 있었다.”

춘소 (목포 큰시장 기와가마)

호박 (학다리 정거장)

“음전이는 빈 그릇을 들고 등성이를 넘어 오다가 학다리 정거장을 바
라보았다. 윤수가 떠난 후부터는 발에 나올 때나 샘길에 나올 때마다 첫
눈에 띄는 것이 저 학다리 정거장이었다. 그리고 정거장을 보기만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들어보는 기차소리를 들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슴
이 저리고 아팠다.

마침 목포에서 떠난 막차가 정거장에 들어 닿더니만 잠깐 쉬어서 다
시 북쪽을 향해 떠났다.

“저 차만 타고 가면 나도 윤수 있는 고무산에 갈 것인데...”

고개를 넘으면 (해남 대흥사)

사랑 (목포역)

“개항 삼십오 주년 기념 축하행사가 추석을 전후로 하여 다채롭게 열
렸다. 첫째 공진회를 개최하여 원근 각지의 관람객이 답지했고 다음에는
궁술대회나 씨름대회로 구경꾼이 이웃 촌읍에서 구름같이 모여왔다. 그
중에서도 강강술래의 경연은 굉장한 인기로서 이채로웠던 것이다. 그때
신중숙은 방년이 십구세! 처녀들이 주간 출연을 거부하는 까닭에 이 대

회만은 밤에 열렸다.”

“오늘 대회의 시작신호는 북소리 세 번이었지만 그땐 불꽃이 밤하늘에 무지개같이 피어올라가면서 딱 터지는 불뚫총이었다. 그리고 주악도 학교의 음악대가 아니라 삼현육각의 풍악을 아꼈지.”

벼랑에 피는 꽃 (목포)

목포의 물지계와 수도에서 물싸움하는 현장을 그린 장면이 있다.

눈보라의 운하 (세한루)

이곳 대청에 ‘세한루(歲寒樓)’의 현판이 버티고 있다. 소전(素筌) 손재형(孫在馨)씨가 친필의 액자를 고향집에 보내준 것이다. “세한 연후에야 송백의 절개를 아는 것이니 두 분은 세한의 송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의 의미 깊은 선물이었는데 이제 내 새집 (하월곡동·필자 주)의 수호로 그 액자는 나를 지켜주고 있다.

V. 한국 극예술의 선도자 김우진을 따라 목표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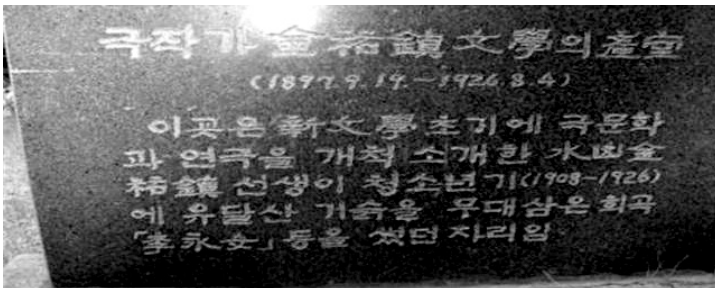
- 김성진(고구려대 교수)



한국 극예술의 선도자 김우진을 따라 목표를 걷다

1. 목표, 한국 극예술의 산실

1980년대 들어서 金祐鎭(김우진 1897.9.19.(음)~1926.8.4.)의 문학세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활발했다. 반면에 그를 기리는 작업은 의외로 전무했다 하겠다. 그나마 순수민간문학단체인 ‘우리문학기림회’가 1990년에 김우진의 개인 서실인 百壽齋(백수재)를 ‘극작가 金祐鎭 文學의 産室’로 명명하고 문학표지비를 건립해 기념한 작업이 전부였다. 생존한 문학인들까지 본인 키보다 높은 문학비를 다투어 세우는 세태에 비하면 민망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수수하다는 생각도 든다.



(김우진문학표지비 / 목포북교동천주교회 앞들)

백수재는 목포 근대문학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25년 5월 목포에서 문학동인회인 'Societe Mai'(오월회)가 결성됐다. 3개월 후에는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Societe Mai》제2집 원고로 김우진의 〈노래 몇 날〉과 〈창작을 권합네다〉가 유고로 남겨져 있다. 또한 『오월』 제일집(第一輯) 독후감)으로 김우진의 〈곡선의 생활〉에 관한 논평이 남아있다. 이러한 활동을 감안하면 오월회는 근대문학기에 결성된 목포 최초의 문학동인회라 할 수 있다. 이회는 成趣園(성취원) 안의 백수재라는 김우진의 2층 개인 서실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김우진은 〈創作을 勸합네다〉에서 '우리 회의 잡지는 아직 세상에 발표하거나 경찰의 눈에 떨 염려는 없으니까, 또 출판할 때에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중략)... 참된창작에 전심을 쓸 것'을 권했다. 이를 종합하면 김우진이 오월회를 이끈 주관자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Societe Mai》라는 잡지의 원본이 확인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이 잡지가 발간되었다면 목포 근대문학기 최초의 동인지임에 틀림없다. 다만 김우진의 언급처럼 《Societe Mai》는 비공식적인 출판활동에 따라 감춰진 동인지일 가능성도 있다. 이 잡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백수재를 포함한 성취원의 일부인 총 1,069평(당시 가격 213,800환)은 김우진의 부인 정점효(세례명: 모니카)와 아들 김방한(세례명: 아우 구스티노)이 1955년 9월 5일에 목포북교동천주교회에 기부한 바 있다. 김우진 문학의 산실이자 목포 근대문학의 태동지였던 백수재 터에는 현재 목포북교동천주교회의 교육관이 자리 잡고 있다. 뜻있는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백수재와 같은 귀중한 문학 산실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유족들은 2002년 7월에 김우진의 유고와 유품을 목포시에 기증했다. 그리고 2007년에 목포시는 목포문학관을 개관하며 2층에 김우진관을 마련했다. 문학관은 유족만이 혹은 소수의 단체만이 세우고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다. 특히 김우진관은 한국 극예술사의 기록보관소인 아카이브(archive)을 넘어서 극예술의 창작기지로서도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목포문학회관 2층 김우진관)

목포시는 지난 2008년부터 김우진의 삶과 문학정신을 연구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지역민과 함께 전국의 연구자, 예술가는 물론 유족까지 뜻을 모아 '김우진연구회'를 발족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당시 유민영(단국대 석좌교수), 이명재(중앙대 명예교수), 천승세(소설가, 김관재(시인) 고문과 회장 한옥근(전, 조선대 명예교수), 유족 김예동(증손자, 극지연구소장) 등이 앞장섰다. 2017년 현재 김우진연구회(회장 김성진/고구려대 교수)는 10회에 걸쳐 김우진문학제를 개최하였고 연구총서 『김우진연구』를 발간하며 극예술전문단체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2017년에 '걷고 싶은 목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명품관광루트로서 '김우진거리'와 차범석(車凡錫)의 '옥단어길'을 두 작가가

거주했던 북교동을 중심으로 조성했다. 실험성 짙은 근대극을 개척한 김우진과 현대 사실주의극을 키운 차범석이 비록 다른 시대이지만 목포라는 도시공간에서 극예술을 창작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 크다. 목포가 한국 극예술을 낳고 기른 산실임을 밝히는 증거인 셈이다.

다음의 사진들은 목포시 북교동에 위치한 북교동천주교회와 그 인근에 조성된 '김우진거리'의 그림이다.



목포를 극적 공간으로 다룬 최초의 희곡은 김우진의 <李永女>이다. 극적 시간은 1924년 여름부터 1925년 겨울에 이른다. 실제로 김우진은 1925년 겨울 무렵부터 <이영녀>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第三幕

木浦를 지낸 이들은, 儒達山을 한 名山奇峰으로 生覺한다. 名山奇峰인지안인지안 姑捨하자. 그러나 生活이라는 것에 體驗이 있고, 비록 二萬에 不過한 山都市라도 木浦라는 港口的 發展해 가는 經路를 볼 때, 疑心 업시 儒達山은 近代生活의 特徵을 만히 질머지고 잇난 줄을 알 것이다. 元來 海邊을 埋立하야 된 市街地에난 만흔 地主, 家主가 생것다. 집이 드러서고 工場 煙突이 생기고 道路가 널버질수록 住宅難과 生活難은 커즌다. 그래서 이 兩難에 쫓긴 勞動者들은 市街地에서 흘린 피땀을 儒達山 바우 밋 오막사리 안에서 씻는다.

- 〈李永女〉 중에서

위의 무대지시문인 ‘海邊(해변)을 埋立(매립), ‘住宅難(주택난)과 生活難(생활난), ‘地主(지주), 家主(가주)가 생것다’, ‘儒達山(유달산) 바우 밋 오막사리’ 등은 동시대 목포 도시이미지를 정치하게 언급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목포는 목포항과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변을 매립해 만든 도시였다. 《東亞日報》(1924.12.6)의 기사를 보면 목포는 ‘근래 면가(綿價)의 등귀로 향내는 대선(大船)이 폭주하고 해안통에는 면화가 산같이 쌓였으며 시증은 건축이 성행하여 전혀 지적(地積)의 여유를 볼 수 없는 호황’이었을 만큼 급조된 근대도시의 특징을 보였다. 목포는 1897년 개항하면서부터 각국공동거류지와 조선인마을이 분리되었다. 이 기저에는 일제가 목포를 배후지를 수탈하고 그 수탈된 자원을 본국으로 수송하기 용이한 도시로서 개발한 측면이 크다. 또한 목포는 식민지에 대한 욕구충족인 외생적 영향(Exogenous Impact)으로 개발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鮮日人(선일인) 차별정책이 심한 도시였다.

이런 기록들과 앞에서 인용한 무대지시문을 비교해 보면 실제 공간인 목포와 〈이영녀〉에서 구축된 극적 공간 목포는 매우 유사-인접하다.

김우진은 1924년 6월에 10여년의 일본 유학생살을 마치고 목포로 귀향해 있었다. 그는 가계의 영농사업체인 상성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일하는 동시에 1926년 6월 출분하기 직전까지 시, 수상, 평론, 희곡 등 문학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창작 활동을 펼쳤다.

희극 〈두데기 詩人의 幻滅〉(《학조》, 1926.6)을 지상에 발표하면서 총

5편의 희곡도 창작했다. 또한 동시대 서구극계와 크게 시차 없이 극이론과 극작품을 소개하거나 우리 근대극의 운동을 주창했다. 연극 평론 「歐米 現代劇作家(紹介)」를 《時代日報》(1926.1~1926.6)에 연재하는 동시에 「우리 新劇運動의 첫 길」을 《朝鮮日報》(1926.5)에, 「自由劇場 이약기」를 《開闢》(1926.5~1926.6)에 발표하며 생애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김우진은 문학을 단순한 여가 정도로 다룬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사실 장성군수, 무안감리까지 지냈던 부친 김성규의 사회적 영향력, 막대한 가계 자산 등을 생각하면 김우진의 문학 활동 외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의문이다.

1920년대에는 전국 5대 도시에 거론될 정도였던 목포지만 김우진이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공간은 공연무대인 常盤座(상반좌)와 그리고 木浦詩社(목포시사), 木浦青年會(목포청년회), 無産青年會(무산청년회)와 같은 단체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을 참조하면 상반좌에서 윤심덕이 음악대회를 가진 점(《동아일보》, 1923.6.23.)이나 김우진의 사후에 목포청년회관에서 친구들의 발기로 추도회가 개최되었다(《東亞日報》, 1926.9.21.)는 정도만 확인될 뿐이다.



(1927.6.18. 설립된 신간회 목포지회 터인 목포청년회관)

무대공간은 한 문화권의 의식과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표현을 담지 않을 수 없다. 사회활동 보다 문학활동에 주력했던 김우진이 희곡 <이영녀>에서 조형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주인공 이영녀는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성까지 파는 매춘녀이다. 표층적으로<이영녀>는 동시대의 피해자로 여성을 조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매춘에 있어 환전의 주체가 바로 이영녀 자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영녀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매춘행위의 소진은 남성중심사회와 그 이데올로기를 허물어뜨리는 의미기재이다.

<이영녀>의 극적 공간 목표는 근대자본의 폭력적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공간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소망하다 죽어가는 여성을 리얼하게 그린 시대보고서이자, 남성본위중심문화의 폐해를 정면으로 공박한 통찰 깊은 극작품이라 할 수 있다.



김우진이 ‘이영녀’라는 여성인물로 1920년대를 그렸다면, 차범석은 ‘옥단어’라는 여성인물로 1930~50년대를 그렸다. 물장수인 옥단이는 목포역의 벨라롱, 평화극장 외팔이, 대성동 쥐약장수와 함께 목포의 4대 명물로 꼽혔다.

전 10장으로 구성된 <옥단어!>가 표지한 극적 시간은 1938년 겨울부터 1950년 초겨울까지로써 순차적인 흐름을 보인다. 극적 공간은 목포 유달산에 면해 있는 동네이다. 제1장에서 옥단이가 읊조리는 대사를 보면 극적 공간인 목포를 조감할 수 있다.

이 목포 바닥은 원래가 바다가 가깝고 유달산이 온통 바위 산이라 식수 귀하기가 유별난 곳이지요. 그래서 중간에 관에서 시내 곳곳에 공동 수도를 설치해 시간제로 물을 사먹게 했지라우. …(중략)… 유달산 꼭대기 죽교리에서 혈레벌떡 물을 사려고 내려왔는데 시간 다 됐다고 수도꼭지에 자물통 잠그고는 행 들어가 버리니 글래 찬바람이 땀지라우! -(옥단어!)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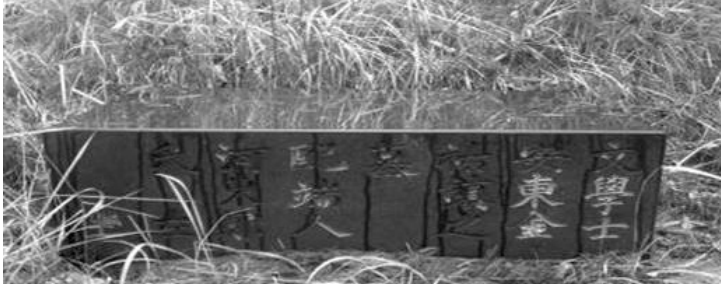
무대 전면에 구축되거나 옥단어의 대사에서 드러나는 ‘공동 수도’는 여러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동시대 수도시설은 농촌 공간과는 다른 근대화, 도시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서민들은 공동 수도를 시간제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공동 수도조차 관리하는 자가 있다. 수도를 통제한다는 극적 요소는 그만큼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는 인식까지 부자유하다는 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공동 수도 앞은 옥단이가 살아가는 터전이자 죽는 공간이다. 옥단이는 제8장에서 물장수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제8장에서는 공동 수도 외에도 가정 수도가 점차 늘어 물장수가 필요 없어진 상황을 함께 조형했다. 물장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 상황에서 옥단이는 과거를 회상하다 실족사 한다. 옥단이의 죽음은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거나 혹은 뛰어 넘지 못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차범석은 옥단이와 함께 여느 담장 속에도 있을 법한 속울음을 코믹하면서도 진솔하게 터뜨려 위무하는 노련한 극작술을 보여 주었다.



김우진, 차범석은 박화성과 더불어 목포문학을 사랑하고 키운 작가들이다. 나아가 이들은 한국문학을 상징하는 작가들이다. 게다가 한국수필문학의 기틀을 다진 청천 김진섭이 거주했던 지역도 목포다. 작품 공간 외에도 이들이 실제 거주했던 북교동, 양동, 죽교동은 한 동네처럼 붙어 있다. 희곡, 소설, 수필의 대가들의 흔적을 목포문학관 외에도 그들이 걸던 바로 그 거리에서 느낄 수 있다. 정광정혜원에서 노적봉으로 오르는 ‘목마르뜨(목포+몽마르뜨)거리’, 북교초등학교와 불종대터에서 북교동천주교회를 거쳐 조각공원으로 오르는 ‘김우진거리’, 그리고 목포청년회관에서 유달예술타운, 목포시사로 오르는 ‘구름다리길’을 찬찬히 걷길 권한다.

목포에서 김우진의 흔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김우진초혼묘’를 찾게 된다. 김우진의 넋을 달래기 위해 봉분한 초혼묘는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1번지 몰피산 정상에 위치한다. 초행자들도 국도 1호선인 광목간 도로변에서 월선리예술인촌을 찾아 달리면 도로 우측으로 ‘극작가 김우진 초혼묘’ 표지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지를 따라가면 울창한 숲 속이다. 그 속에서 겨우 임 도로를 발견하게 된다. 이 임간도로를 따라 몰피산 정상 아래까지 차량으로도 15km를 올라야 한다. 임간도로라서 차량 교행조차 여유롭지 않다. 이 임간도로의 끝에서 만나는 대로에 서면 비교적 넓은 공터가 있고, 그 공터에서 정상으로 10여 분을 더 올라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안내하는 표지가 없기 때문에 초혼묘를 찾지 못하고 돌아서는 일이 많다 한다. 유족은 물론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서 표지비 혹은 표지판을 제작할 필요가 긴급하다.



(김우진초혼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모미산 정상)

김우진의 초혼묘! 초혼은 죽음으로 인해 나간 혼이 다시 돌아와 몸과 합쳐져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는 유족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많은 후학들도 마음은 한가지다. 일반적인 봉분보다 두어 배 가량 크다. 그 혼한 석물 하나 없이 상석만 놓인 봉분이었다. 봉분의 방향은 현재의 전남도청이다. 전남도청이 들어선 자리는 과거 김우진 일가가 살았던 99칸 대저택으로 알려진 '유안당' 터이다.

文學士 金祐鎭(문학사 김우진)! 초혼묘의 상석 전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각자다. 김우진의 초혼묘를 삼으며 부친 김성규는 김우진을 문학사로 불러 각자했다. 물론 학위가 문학사였기 때문이지만 각자했겠지만, 만약 아들의 예술을 반대만 했다면 김성규가 文學士라는 각자를 허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1세기 전에 태어나 한국 극문학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김우진. 그를 사람들은 천재적인 예술가, 명민한 사상가, 열섬(熱島)같은 자유인이라 부른다. 만약 김우진이 오랫동안 한국문학을 끌고 갔다면 우리 문학계의 총량과 질량이 상상보다 훨씬 더 달라졌을 거라는 판단이 중론이다. 그러나 김우진은 요절했다. 기록으로만 보면 情死했다. 유가족들은 이 정사를 아직까지도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어렵기보다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학술적 측면과 생활적 측면이 적잖이 유리된 부분이기도 하다.

2. 草耜(초거), 焦星(초성), 水山(수산) 김우진

김우진은 전남 장성군 龍岡面(용강면)에 소재한 장성군 官衙(관아)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당시 장성군수인 김성규(金星圭 1863~1935)였고, 생모인 순천박씨(1864~1901)는 둘째 金鐵鎭(김철진)을 낳고 1년 뒤에 사망했다. 김성규 일가는 김우진이 11세 무렵인 1908년에 목포부 북교동 46번지로 이주했다.

김우진은 목포공립보통학교(현, 북교초등학교)의 제2회 졸업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일 학교의 ‘제2회 졸업생대장’에는 金祐鎭(김우진)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졸업생대장에서 “金長鎭-개국기원 507년 9월 19일”이라는 기록은 확인할 수 있다. 개국기원 507년은 1897년이다. 그러므로 보통학교 당시에는 김우진이 金長鎭(김장진)으로 쓰였거나 혹은 후대에 졸업생명단을 작성할 때 빚어진 표기상의 오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북교초등학교 전경)

김우진은 아호를 焦星(초성), 水山(수산)이라하고 소춘, 정로생, S.K 등을 필명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부친 김성규는 “金祐鎭字元剛號草耜(김우진자원강호초거)”(《亡兒祐鎭墓標(망아우진묘표)》)처럼 김우진의 호를 草耜(초거)라 밝혀 적었다. 또한 김성규는 자신의 호를 草亭(초정)이라 했고, 둘째 아들인 김철진의 호를 草耜(초루)라 명명했다. 이처럼 김

성규 부자의 호에서 공통으로 쓰인 ‘草’자는 ‘安東金氏草亭派(안동김씨 초정파)’의 가호인 호를 강조한다는 의미와 함께 농업경영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남도 양무감리와 무안감리까지 지낸 김성규는 농업과 노동쟁의에 관련된 업무에 능통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자신이 설립한 東山義塾(동산의숙)에서 자식들은 물론 일가의 학동 그리고 장성 인근 지역의 청년들에게 농업교육을 권장했다. 특히 김성규의 영농입국의 의지는 두 아들을 일본 농업 신흥도시로 부상하던 熊本(웅본)지역의 농업학교를 택하게 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김우진도 웅본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귀향하면 농업에 투신하겠다는 점을 서간문인 <祐鎭在熊本答宗鎭書(우진 재웅본답종진서)>(1916.1.22)에서 재종형에게 명언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에 그는 <축산론>이라는 글까지 썼다.

사실 김우진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부터 ‘정로생’이란 필명으로 처녀 소설 <공상문학>(1913.6.20 ~ 8.3)을 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유년시절부터 김우진은 부친이 권면하는 농업교육과 함께 자신의 의식 속에 항상 잠재된 예술세계를 병행하고자 했음을 볼 수 있다. 예의 <우진재웅본답종진서>에서 “여러 가지 불우한 시인이라도 농의 품에 근심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말한 김우진의 예술지향 의식을 읽을 수 있다.

1917년에 김우진은 웅본농업학교를 졸업했다. 이 당시 김성규는 건강이 악화되어 草心亭(초심정)에 머물렀다. 장남 김우진은 기혼자인데다 막대한 재산과 ‘안동김씨초정파’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귀국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우진은 귀국하지 않고 오히려 早稻田大學(와세다대학) 예과로 진학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 부자가 갈등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분석이 많았다. 일견 이유 있는 분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자갈등이라는 선부른 분석이 지금까지도 김우진의 문학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18년에 한치유는 <초심정실기발>에서 김우진이 부친의 문집을 뒤

어내기 위해 <草心亭實記(초심정실기)>를 쓰고 있고, 부친을 닮아 효심이 지극하다는 점을 기록했다. 와세다대학 진학 후 첫 번째 맞은 하계 방학 때 김우진이 부친과 함께 여행을 하며 화답한 한시에는 이들 부자간의 정이 절절하게 배어있다. 게다가 김우진은 1920년 4월에 劇藝術協會(극예술협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4월에는 문학과로 진학했다. 그리고 김성규는 1925년에 김우진이 목포로 귀향하자 집터인 成趣園(성취원)안에 百壽齋(백수재)라는 2층 개인 서실까지 마련해 주었다. 이곳에서 김우진은 오월회(Societe Mai)라는 목포 최초의 근대문학동인회를 결성하고 활동했다.



(옛 성취원 앞 정원/ 현 목포북교천주교회 수녀원)



(현 목포북교천주교회 전면 본당과 우측 교육관/ 우측 교육관은 옛 백수재 자리)

이를 보면, 김성규가 김우진의 예술 활동을 무조건 반대했고, 이러한 이유로부터 김우진의 출분과 죽음을 분석하려는 기존의 분석은 수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김성규가 아들의 예술 활동을 한시적으로 묵허하게 되는 부자간의 타협이 있었을 가능성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식의 예술 활동을 김성규가 이해하는 데에는 木浦詩社(목포시사)의 詩社長(시사장)을 수년 동안 역임하며 재정적으로도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본인의 문화적 품성과도 관련이 있다. 자료 확인 결과 김성규는 목포시사의 전신이라 할 儒山亭(유산정)의 현판액 癸酉年慕春之初草亭居士 金星圭(계유년모춘지초초정거사 김성규)을 썼으며, ‘歷代社長 及 任員名簿(역대사장 급 임원명부)’에서 보면 경오년(1930년)을 시작으로 이후 신미, 임신, 계유년까지 4년 동안 시사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목포시사에 현존하는 현판의 내용 중에서 ‘金星圭 金壹百圓(김성규 금일백원)’라든가 ‘社長 金星圭 財務 韓明履…(사장 김성규 재무 한명이)’ 등의 기록으로 보아 김성규가 이미 1920년에도 시사장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목포 유달산 기슭의 목포시사)

그러나 부친이 기대하는 세계를 뛰어 넘으려는 김우진의 의지가 강경하게 표출된 글들을 볼 수 있다. 김성규는 농정개혁을 통해 균부를 주창하고 봉건적인 사회를 개혁함과 동시에 자주적인 민족경쟁을 꾀하다 일제강점기에 그 뜻을 달성하지 못한 채 관직에서 물러났다. 관직에서 물

러 난 후 김성규는 장성에 호남선우의숙이나 장남학교, 목포에 목포사립여학교 등을 세워 실용학문 보급에 앞장섰다. 김우진도 『초정집』의 〈초심정실기〉(1918)를 쓰면서 부친이 집강소 설치를 통해 동학군을 인정해 주었으며 무안감리 시절 부두노동쟁의가 있을 때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조선인 노동자들을 보호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김우진이 ‘가족주의’, ‘「명문후족의 보전하여가는 집안」이다. 저주!’라고 표현하며 ‘그 가운데 반역자인 내가 있음을 꿈에도 모르는 아버지는 인간’이라며 개인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아마도 이는 일제가 동양척식주식회사까지 동원한 실정에서 농토가 주된 자본이었던 동시대 토착자본가들이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일제에 일정 부분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과 함께 고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반감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김우진은 동경 유학시절부터 ‘신극운동’의 일환으로 무대전 문극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0년 극예술협회를 창립하고 ‘동우회순회연극단’의 공연을 주도하며 조선의 소인극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서 김우진은 「所謂近代劇에對하여(소위근대극에 대하여)」(《학지광》, 1921.6)에서 ‘근대극운동’을 통한 민족의 구제와 사회 개혁을 선도적으로 주창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부자는 개혁과 위국위민하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굳이 김우진의 호인 ‘焦星(초성)’의 의미를 읽으면, 초성은 극예술계의 ‘불타는 별’이라거나 ‘타버린 별’ 또는 아버를 ‘애 태우는 별’만은 아니다. ‘초성’은 농업과 효의 세계를 상징하는 ‘초거’의 세계에서 생활의 예술화와 자유의지의 생명력으로 상징되는 ‘수산’의 세계로 들어서면서 함께 사용한 아호이다.

김우진은 1926년 6월 자신의 생활을 찾기 위해 동경으로 출가했다. 그의 출가 동기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도 분분하다. 관련된 기록을 종합해 그의 출가 동기를 몇 가지 점에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목포라는 제

한적인 공간, 윤심덕과의 애정문제, 책임감 있는 아우 김철진의 귀향, 극장건립에 대한 김성규의 지원 불가 방침, '가족주의'의 압박 등을 동기로 거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A Protesto>(1926.6.9)에서 '내 속의 생활을 완미케 하려고'한다는 말처럼 예술추구적인 내적의지 보다 더한 추론적인 출가 동기를 찾기 힘들다.

그런 김우진이 1926년 8월 4일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 몸을 던졌다. 사실 윤심덕이 불렀던 <사의 찬미>는 흥행에 성공했다. 이 노래는 이바노비치의 <도나우 강의 잔물결 Donauwellen Walzer>에 김우진이 개사하고, 윤심덕이 1926년 8월 1일 일동축음기주식회사(NITTO)에서 녹음했다. 각종 매체는 앞 다투어 투신정사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신민》이란 잡지는 아예 양인의 정사사건에 대한 지상 논의까지 마련했을 정도다. 그만큼 김우진과 윤심덕의 죽음은 그 당시 크게 회자되었던 사건이었다. 그 후 대중들은 쉽게 김우진을 '현해탄 정사'의 주인공이자 '일제강점기에 좌절된 지식인의 초상' 정도로만 인식했다. 이런 연유에는 김우진이 생전에 글을 지면에 자주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과 아울러 우리 문단이 중앙문단 편중의 특정한 문학인들에게만 관심을 쏟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1966년에 이르러서야 이두현이 『한국신극사연구』에서 김우진을 '신극운동의 선구자'로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후 유민영이 김우진의 작품론과 작가론을 분석하면서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金祐鎭全集(김우진전집)』2권이 유자인 김방한의 「아버님 유고집 출판에 부쳐」와 서연호의 「유고해설」, '김우진년보'까지 작성되어 출판되었다. 이에 힘입어 주로 그의 연극 활동과 더불어 연극론 및 희곡작품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 문학사나 연극사의 지층에 매몰되어 있을 뻔했던 김우진을 발굴해 낸 선학들과 가족들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3. 한국 근대문학의 선도자 김우진

김우진은 한국 근대문학기에서 단연 주목받는 문학인이다. 그는 날선 지성과 통찰 깊은 문학성으로 시대를 읽고 새로운 삶을 조형하고자 분투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도 민족구제와 사회개혁을 위한 ‘근대극운동’을 주창하며 소인극운동에 불을 지폈고, 동시대 극문학계를 훨씬 뛰어 넘은 실험적인 희곡을 창작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김우진은 백여 편에 달하는 문예작품을 남겼다. 창작희곡(5편)을 포함하여 소설(3편), 시(48편), 한시(5수), 번역(2편), 연극평론(11편), 문학평론(6편), 수상(15편), 논문(1편) 등이다. 김우진은 한국 근대문학 초창기를 선도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었고 평론가 겸 수필가였다.

3-1. 사랑과 시대를 노래한 시인

거대 담론들이 충돌하게 되면 인간은 흔히 자아를 탐색하며 외위를 조망하게 된다. 김우진도 50여 편이 넘는 시를 통해, 사랑을 노래하고 일제강점기하의 민족과 그 구성원으로서 체득한 명민한 시대의식을 표출했다.

우선 김우진의 시는 사랑의 절편이라 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김우진의 감성적 직관은 자아를 적극적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걱정의 세계를 희구한다. 이 걱정의 세계는 정신과 육체가 합일되는 세계이다.

河邊(가변)의 작고 아름다운 창 아래를 / 가변이 춤추는 가슴으로 지날 때 / 나의 발걸음 소요한다. / 그러나 나를 위해서 언제나 열려진 / 당신의 창가를 지날 때 / 나는 당신의 입술을 알고 있다. -〈새로운 이성의 친구를 얻고〉(1917.7.10)중에서

이후 김우진은 〈내 어이하랴〉(1920), 〈회상〉(연대미상), 〈이국의 소녀〉(1921), 〈이단의 처녀와 방랑자〉(1921.8), 〈사랑의 가을〉(1921.10), 〈봄의 여인〉(1921.1.3), 〈춘천행〉(1921.3), 〈春湖〉(1921.3), 〈추사〉(1921.10) 같은 시편들에 사랑의 열정과 이별, 그리고 추억을 회상하는 심경을 순

연하게 담고 있다.

한편 김우진의 시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자유의지와 생명력을 희구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김우진은 다양한 서정적 자아를 등장시켜 극악한 현실을 부정하고 고정된 기존질서를 파괴하며 민중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생명력의 세계를 추구했다. 탈자아의 위치에서 자아를 관찰하는 서정적 자아를 시편에 등장시키는 김우진의 시적 기법은 그가 탐구한 표현주의 문학과 함께 극작 태도에서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적으로 1922년 이후의 시편에서 보이는 수난자, 방랑자, 독자, 몽상가로 묘사된 서정적 자아의 쓰임에 있어서 이런 태도는 확연해진다.

우선 김우진은 자신의 초상을 창부의 이미지로 변이시켜 표출했다. 〈牧羊(빈양)같은 창부의 기도〉(1921.12)에서 나타난 창부의 이미지는, 기도문 형식을 빌려 어머니의 건강과 축복을 갈구하기는 하나, 이미 “길 잘못된 든 이 딸”이며 “찬방 외로운 이 딸”로 표현된다.

그리고(思想(사상)의 壽衣(수의)를 弔喪(조상)하는 수난자의 탄식(1922.1)의 ‘수난자’는 비록 사상의 수의를 입고 조상하기는 하지만, 그가 세우려는 청춘의 왕국은 인간적 삶의 원형이며 신의 뜻에 따라 예비된 낙원의 세계요 질서의 세계였다.

끝없고 가없는 탄식의 / 茫洋(망양) 위에 뜬 인생의 孤船(고선)은 / 비록 보이지 않는 허무의 島(도)를 향하나, /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 다시 청춘의 왕국을 세우려는 / 수난자의 비애는 크도대! -〈사상의 수의를 조상하는 수난자의 탄식〉(1922.1.)중에서

또한 〈방랑자의 墓銘(묘명)〉(1922.10.20)이라는 시에서는 ‘농자의 귀 / 맹자의 눈 / 류마티스 손’처럼 들어 볼 수도, 쌓을 수도 없는 세계가 그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질곡의 세계에서 병든 불구자의 초상은 김우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자, 맹자 그리고 류마티스 걸린 자들의 피폐한 초상은 참담한 현실 인식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의 파괴>(1923.9)와 같은 시편에서는 통해 기존 질서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세계의 창조가 시도되고 있다.

오 파괴여 파괴여! / 장대한 힘으로 태산은 넘어진다 / 자연이여! 자기의 손으로 / 모든 것을 건설하였던 / 그는 조만간 모든 것을 / 다시 파괴시킨다. / 이것이 자연인가? // 또는 인간 발전의 길인가 / 모든 것이 파괴된다 / … (중략)… / 또 다시 건설한다. 오 자연의 힘이여! / 모든 현(古)것은 파괴된다. -<고의 파괴> (1923.9)중에서

이 작품은 표현주의 시처럼 짧은 호흡과 단순한 어휘의 조합적 나열로 인한 다이내믹한 울조로 그 파괴의 속도감을 한층 가속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인습을 파괴하고 자아의 세계를 건설하려는 서정적 자아의 의지가 한층 강조되었다. 이러한 의지는 이성적 제어장치의 해이라기보다는 자아와 현실세계에 두루 적용하는 김우진의 준열성에 기인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우진은 일제강점기의 극도로 궁핍한 생활뿐만 아니라, 병든 사회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행동을 예민한 감각으로 체득하면서 아울러 자의식의 심층을 한층 예리하게 갈파한 것이다. 따라서 김우진 시세계에는 자아 탐색과 삶의 원형에의 갈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겠다.

3-2. '근대극운동'의 주창과 그 특질

김우진은 공식적인 문필활동의 첫 작업인 「所謂近代劇에對하야(소위 근대극에대하야)」(《학지광》, 1921.6)를 발표하면서부터 극예술의 선택과 근대극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우진은 시나 일기 그리고 수상, 비평문을 통해 개인의 미래를 전망할 뿐만 아니라 사회나 민족과 같은 거대 담론까지 거침없이 언급했다. 특히 그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예술의 힘과 예술가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극을 확장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김우진 연극론의 첫 번째 특징은 향유하는 예술적 차원을 넘어서 동시대와 민족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근대극운동’을 주창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김우진의 의지는 3.1운동 시기를 거치면서 식민지하의 지식인들이 한변쯤 가질 법한 부채의식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비록 식민지 하라 하더라도 전남지역의 실력자였던 부친과 100만평이 넘는 전답, 그리고 부친이 무안감리 시절 일본 지주와 십장들에 맞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얻은 명성 그리고 목포청년회나 목포시사 등을 통해 다진 민심 등은 김우진으로 하여금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김우진은 이런 평안한 일상 속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척박한 동시대의 연극 상황 속에서 ‘근대극운동’을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김우진이 자신의 의지를 실제화 시킨 행위가 바로 ‘극예술협회’를 창립하고 무대감독으로서 ‘동우회순회연극단’의 공연을 주도한 일이다.

김우진은 동경에서 조명희, 유춘섭, 진장섭, 홍해성, 고한승, 조춘광, 손봉원, 김영팔, 최승일 등 20여명의 유학생들과 함께 ‘극예술협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괴테(Goethe), 고골(Nikolai Gogol), 체호프(Anton Chekhov), 고르키(Maxim Gorki) 등 외국의 고전극 및 근대극을 연구했다.

그러던 중 1921년 동경에 유학 중인 고학생과 노동자들의 모임인 동우회는 이들에게 회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연극단을 조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 김우진은 공연비 일체를 부담기로 했고, 무대감독을 맡았다. 홍해성과 한기주는 독주를, 윤심덕은 독창을 담당했다. 홍해성, 유춘섭, 김기진, 허일, 마해송 등은 연극을 맡았다. 조명희는 〈김영일의 사〉를 썼고, 홍난파는 자기의 소설 〈최후의 악수〉를 2막으로 각색했으며, 이 때 김우진은 던세니(Dunsany)경의 〈The Glittering Gate/찬란한 문〉(1919)를 번역하였다.

이 동우회순회연극단은 임세회를 단장으로 하여 1921년 7월 9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전국을 순회 공연하였다. 바로 이 순회공연으로 인해서 조선에서는 이른바 소인극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런 소인극운동으로 젊은이들은 근대적 자아의식을 각성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와 동시대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김우진 연극론의 두 번째 특징은 초창기 한국 근대문학기에 본격적인 연극비평문을 쓰면서 극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선도했다는 점이다.

김우진은 탁월한 어학실력을 바탕으로 고전극은 물론 서구 근대극을 이끌었던 스트린드 베리히(Stindberg, 스웨덴)나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 아일랜드)를 비롯해 하젠클레버(Hasenclever, 독일), 오닐(Eugene O'Neill, 미국), 피란델로(Luige Pirandello, 이탈리아), 차פק(Karel Capek, 체코) 등과 같은 동시대를 대표하는 해외 극작가와 작품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소위근대극에대하야」를 시작으로, 「창작을권합네다」(《Societe Mai》, 1925. 9), 「구미현대극작가론」(《시대일보》, 1926. 1 ~ 5), 「자유극장이약이」(《개벽》, 1926. 5), 「우리신극운동의첫길」(《조선일보》, 1926.7.25 ~ 8.2), 「항제존스에 대하야」(《시대일보》, 1926. 6. 20), 「축지 소극장에서 ‘인조인간’을 보고」(《개벽》, 1926. 8) 등과 같은 7편의 연극평론은 우수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었다. 김우진의 이런 평론문은 1920년대 한국문학사를 통틀어도 해외 극예술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가장 본격적이고 선도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우진이 동시대의 다른 극예술가와 유다른 측면은 역시 고루한 극형식의 파괴와 새로운 극적 형식의 실험까지 주목했다는 점에 있다.

김우진은 동시대를 풍미했던 표현주의 극작품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장엄한 신비’를 ‘자아의 장엄한 신비’로 표현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을 다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때 김우진이 말한 ‘통찰’의 시발지는 바로 현실에서부터 이다. 이처럼 김우진은 표현주의를 생명력의 운동양식으로 파악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김우진이 고집스럽게 사유해 내고 실제의 연극평론이나 문학평론에서 일관되게 밝혔던 ‘자유인지’와 ‘생명력’ 등과 같은 정신이다.

더욱이 김우진은 동시대의 피란델로(Luigi Pirandello)의 〈Six Characters in Search of an Author/작자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을 분석하면서 첫째로 현실과 무대가 혼합되는 방식, 둘째로 배우가 관객이 되고 관객조차 배우가 되는 방식 그리고 희비극적인 시추에이션 등을 갈파해 냈다. 이런 극예술에서의 자의식적 기법은 브레히트(Bertolt Brecht)나 와일더(Thornton Wilder)의 서사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극적 환상을 파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현대의 극비평가들인 슬루어터(J. Schlueter), 콜더우드(J.L. Calderwood), 에이블(L. Abel) 등은 자의식적 기법을 메타드라마(metadrama)라고 정의하고, 그 연구방법론과 그 의미 구축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극예술에 대한 김우진의 선구자적인 특성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이처럼 김우진은 당시의 표현주의극의 경향은 물론하고 다기한 극예술의 기법까지 서구 극예술계와 별반 시차 없이 추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외에도 김우진은 흥해성과 함께 무대전문극장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김우진은 근대극운동 혹은 신극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회원제로 유지되는 연극 전문 소극장을 마련하고 무대예술가의 양성은 물론 관객의 양성까지도 계획한 것이다. 이는 김우진이 프랑스의 ‘자유극장’이나 독일의 ‘자유무대’ 그리고 영국의 ‘독립극장’, 일본의 ‘자유극장’ 등의 소극장 활동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물론 이러한 그의 의지에는 역시 집안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동시대의 문화 활동이 극장이나 회관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도 연유한다. 그만큼 김우진은 무대를 통해서 대중들과 직접 호흡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김우진은 「야관 ‘계급문학’과 비평가」(1925.4)나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조선지광》, 1926) 등에서는 이상주의적이고 계몽적인 예술관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예민한 감성으로 서구의 문예이론과 작품을 섭렵하며 자신감에 차있던 김우진은 동시대의 계몽적인 연극론을 뛰어 넘어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지점에서 근대극운동을 주창한 것이다. 신파극의 경향이나 계몽적인 연극론의 구태를 벗지 못한 20년대에, 김우진은 동시대 여느 비평가들보다도 예리하게 시대상황을 읽고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고려하며 구체적인 신극운동의 방법론을 제시한 극예술계의 선각자라 할 수 있다.

3-3. 생명력 넘친 세계를 지향한 희곡문학

김우진은 창작시기를 기록하지 않는 <정오(正午)>를 비롯해 <이영녀(李永女)> (1925.9), <두데기 시인(詩人)의 환멸(幻滅)> (1925.12), <난파(難破)> (1926.5), <산(山)돼지> (1926.7) 등 5편의 희곡을 창작했다.

<정오>는 김우진의 창작 테마의 한 요소인 계급의식을 거칠게나마 구현하려 했다는 점과 더불어 반일의를 표출하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다른 작품의 주요무대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점에 비해 이 작품은 사회 한복판인 공원을 무대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원이라는 휴식 공간 속에 너무나 상반되어 갈등을 내재한 인물들의 대비적 투입은 그 의도를 절정에 이르게 한다. 이 절정의 시기에 김우진은 학생의 입을 빌어 기존세대의 편견, 가진 자들의 위력, 사회적인 폐습 등을 통절히 비판하고 나선다. ‘뜨거운 김 속 용광로 그 무서운 속’으로 상징되는 현실사회의 곤핍한 일상생활을 미래세대의 폭발적인 ‘청춘’의 힘을 빌어 대항하고 파괴시키려 한다. 이는 횡포적인 사회, 윤리, 도덕간의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려는 작자의 현실인식에 기인한다. 즉 궁핍화 현실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적 여건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나 윤리마저 퇴색한다는 사실을 묘파한 강렬한 어조이며 자아의식의 개진인 것이다.

희곡 <이영녀>는 목표를 무대화한 작품이다. <이영녀>는 어둡고 빈궁

한 삶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다 죽어간 여성에 대한 진지한 보고서이자, 남성본위중심문화의 폐해를 정면으로 공박한 통찰 깊은 극작품이다.

김우진은 다른 작품인 <두더기 詩人の 幻滅>에서처럼 대체로 신여성상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앞서 있다. 그러나 유독 <李永女>에서는 여성을 고의적으로 남성중심사회에 깊숙이 침투시키고 종내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예술이론의 하나인 페미니즘은, 특히 페미니스트 비평은 일반적으로 여성상의 탐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의롭다. 김우진은 <<Societe Mai>>2집(1925.8)에서 자신이 정한 창작 테마 4가지 중의 하나로 “性的으로, 이젠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연애, 결혼, 母性,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올시다. 나는 더 거듭 여기서 연설할 바가 없을 만큼 보편적인 테마”로 설정했다.

따라서 김우진이 동시대에 조형해 내고자 했던 여성상은 바로 ‘이영녀’라는 판단이다. 음습하고 비윤리적인 매춘행위와 이영녀의 죽음이야말로 굴레로 상징되는 남성중심사회나 그 남성들의 이데올로기의 일면을 허물어뜨리는 의미기재로 김우진은 운용하고 있다. 이영녀의 죽음 장면에서 언술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천고의 비밀’이나 ‘생의 리듬이 돈다’에서 이영녀는 단순히 남성들의 희생자인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당시대 여성들의 한 표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아 ‘여성의 상품화’라는 무거운 상황을 오히려 꿰어 터뜨리는 사회의 한 주체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영녀의 죽음은 매춘이라는 행위의 소진을 뜻하며, 매춘을 요하는 ‘남성중심사회의 의식 혹은 문화의 허물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김우진은 <李永女>의 매춘모티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남성본위중심문화를 공박하는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희곡 <두더기 시인의 환멸>은 1925년 12월에 탈고하여 《학조》에 1926년 6월호에 게재되었고, <난파>는 1926년 5월에 탈고한 작품으로 김우진의 자아드라마적 성격이 농후하다.

<두더기 시인의 환멸>에 등장한 시인은 생활고에 걱정은 없으나, 자신

의 창작 문제에 늘 고민하는 자로 설정되어 있다. 시인이 욕망하는 대상의 하나인 자유로운 시창작은 가정에서부터 제지되고 이제 또 하나의 대상인 애인 박정자는 갈등을 야기한 요소가 된다. 이는 욕망하는 주체와 현실 간에는 틈 혹은 차액 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박정자라는 인물은 단순히 신여성 그 자체라기보다는 시인이 욕망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갈등하게 하는 극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박정자는 시인뿐만 아니라 천하의 재사명인들도 욕망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박정자는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욕망하는 대상으로 환치되는 셈이다. 따라서 시인도 역시 현실적인 대상을 욕망하는 인물로 환치된다.

그러다 막을 닫기 직전의 상황에서 시인 스스로 두터기시인이라 고백했다. 이 기저에는 일차적으로 전통적인 결혼관과 수동적인 여성관 그리고 예술세계의 몰이해 등의 억압적인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표출되고 있다. 이는 또한 시인이 박정자로 상징되는 현실 욕망에 대한 환멸감과 동시에 자아 예술세계에 대한 반성 깊은 환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예술 특히 '근대극운동' 혹은 '신극운동'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면서도 귀국 한 후 현실 생활 속에서 갈등하던 김우진의 초상과 닮아 있다.

〈두테기 시인의 환멸〉에서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욕망하는 것을 다시 욕망하려 드는 자신에 대해 환멸하고, 자아의 예술세계까지 환멸 하는 극적 자의식을 표출했던 김우진이 뒤이어 창작한 작품이 3막 희곡 〈난파〉이다.

김우진은 〈난파〉를 '3막으로 된 표현주의 희곡'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품이나 창작과정에 대한 김우진 자신의 미적 자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면 김우진의 내면의식을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다.

〈난파〉의 1막과 2막에서 효와 가족의 안녕을 강조했던 부의 세계와 비비(혹은 카로노메)의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세계는 3막에서 파괴된다. 3막에서는 시인이 지향하는 세계가 제시된다. 과거와 현실의 험난한 소외와 고통의 파도에서 난파하는 세계가 그것이다. 이런 난파의 세계란, 어휘상으로는 시인이 고정화된 현실의 암초에 패배하는 세계로 해석되기 쉽다.

그러나 심층적으로는 1막에서의 운명적 가족관계, 2막에서의 현실탐닉과 안주의 생활로부터 방황하던 시인이 유무형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자아를 확인하고 생명력의 세계인 ‘모의 세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희곡에서 보이는 난파의 세계란 ‘생명력을 결정해 주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우선 ‘생의 나체를 충실히 통찰’하고 ‘생의 충동을 실현’시킬 예술가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그가 수없이 밝혔던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그만큼 이는 김우진이 극예술에 대해 끊임없이 욕망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전망하려했던 의지로 파악된다.

희곡 <산돼지>는 김우진이 출분한 후 1926년 6월말부터 쓰기 시작하여 약 20여 일이 지난 7월 17일에 탈고했다. 3막으로 구성된 <산돼지>는 김우진이 조명희의 시 <봄 잔디밭 우에>에 감명 받아 조선의 새로운 청년상을 구현하려는 의도 하에 창작한 희곡이다. ‘서울 가까운 어떤 군 읍내’를 무대로 주인공 최원봉을 비롯해 김개남 등과 같은 동학군 다수가 등장한다.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 최원봉은 조명희의 <봄 잔디밭 우에>를 노래했다. 이는 주인공이 ‘모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김우진은 시 <아아, 무엇을 택할 것인가>(1916)나 희곡 <난파>에서도 역시 ‘모의 세계’를 지향하는 의식을 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모의 세계’란, 김우진이 여러 글을 통해 주장했던 ‘자유의지’와 ‘생명력’이라는 사유와 닿아 있다. 손필영(『김우진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998)은 김우진이 주장한 ‘자유의지’와 ‘생명력’을 생의 흐름과 본질을 직관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의 이론과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모든 인과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인간의 본질로서 김우진은 ‘자유의지’와 ‘생명력’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우진이 사유한 ‘자유의지’와 ‘생명력’넘친 세계는 작품에서 ‘모의 세계’로 구축되었다. 이 세계는 개인적인 평안한 삶의 추구가 아니라 타자의 자유의지도 구현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유민영은 김우진과 그의 문학세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우진은 개화기에 가장 먼저 니체로부터 베르그송에 이르는 현대철학을 섭렵 수용한 제1세대 철학자로서 따라오지 못하는 당대사회와 고루한 주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들볶다가 스스로 타버린 선구자였다. 바로 그 점에서 적어도 문명사적 입장에서 보면 그는 당시 동토의 조선반도에 외롭게 떠있는 뜨거운 열섬(熱島) 같은 존재였다. 그가 초기에 즐겨 썼던 아호 초성(焦星)도 그래서 어울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도 문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사상가로서 더욱 접근해야 할 당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뛰어난 시인이자 평론가 극작가를 넘어 사상가로서도 가장 앞섰음을 밝혀나가는 일이 화급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선구자 김우진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김우진연구』, 푸른사상사, 2017. 중에서

또한 김우진의 희곡문학에서 주목할 특징으로는 역시 한국 최초로 표현주의 극을 실험했다는 점이다. 유민영(『표현주의극의 한국수용』, 『한국연극학』, 새문사, 1985)은 김우진이 스트린드베리에서 뿔어 나와 하켄클레버나 차펙에 이른 표현주의극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두데기 시인의 환멸>과 표현주의극이라 부제를 단 <난파>, 그리고 새로운 조선의 청년상을 제시하려했던 <산돼지>등과 같은 작품에서는 표현주의극의 특성이 표출되고 있다. 표현주의 극은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인 욕망, 갈등, 좌절, 환상과 같은 인간 내부세계에서 전개되는 심리적인 현실을 주관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짙다.

김우진이 「아관‘계급문학’과 비평가」(1925.4), 「구미현대극작가론」(1926.1 ~ 5), 「황제존스에 對하여」(1926.6.20) 등과 같은 비평문이나 희곡 작품에서 분석하고 실험한 표현주의극의 특질은 ‘자아드라마’(Ichdrama) 개념에서 분석되기도 한다. 이 개념에는 절규하는 ‘자아’와, 자아의 순수성 혹은 주체성을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세계’라는 두 개의 대립개념이 전제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자유의지, 생명력 등도 모두 자아드라마의 중요한 개념들을 거론한 용어들이다. 그러므로 <두데기 시인의 환멸>에서 개인주의적 삶을 욕망하고 이상적인 예술세계만을 추구하던 자아를 회화화하고, 이어 자유의지를 지향하는 <난파>의 세계나 <산돼지>에서 ‘모의 세계’를 구축하려했던 김우진의 극작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VI. 아버지와 목포행 완행열차

- 차혜영(차범석 장녀)



아버지와 목포행 완행열차

이번 문화기행 프로그램을 연락 받고 무심코 지나쳤던 아버지와 목포에 대한 추억들을 조각조각 모아가며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목포는 아버지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나고 또 마지막 순간 텃자리인 그곳에 흠으로 돌아가 목포의 땅에 안기셨습니다.

저 역시 고향은 목포이지만 어릴 때 고향을 떠나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동안은 애뜻함을 느끼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제 기억속의 목포는 긴 기차여행에서 지쳐 갈 무렵 도착한 기차역의 아늑한 분위기가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안도감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잊고 살다보니 나에게 고향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십여 년 전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이곳으로 오신 후 목포는 새롭게 제 가슴에 다가왔고 어디를 가나 만나는 목포의 얼굴들과 택시기사님들의 구성진 사투리의 친근감은 오래전부터 알던 친척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저서 중에 ‘목포행 완행열차의 추억’이 있습니다.

“목포행 완행열차는 으레 밤에 떠나서 새벽에 도착 하는 게 관례였다. 초만원인 차 칸의 통로에다 신문지나 보자기를 깔고 쪼그리고 앉아서 고향으로 가는 꿈으로 부풀었던 나의 초상은 어쩌면 설날 그믐날 밤을 고

스란히 뜬눈으로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눈썹이 허영게 센다는 불안과 기대에 가슴 조이던 그것하고도 같은 것이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기다리고 친구가 있다는 그 평범한 사실 만으로도 행복 감에 취했던 시절이었다.”

이런 그리움이 있었기에 그 먼 길을 마다않고 부푼 가슴으로 고향을 찾으셨지요.

목포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북교동집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목포문학관 행사로 목포에 와서 아버지 산소를 들러 북교동 생가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사랑채만을 남겨 놓고 본채는 헐려 연립주택이 되었지만, 그 당시 주로 적산가옥이 많았던 목포시에서는 흔하지 않은 돌 벽돌의 양옥이었던 기억입니다. 저택의 큰 대문 앞은 돌계단이 서너 개 있어 방학 때 모여든 손자, 손녀들의 놀이터로 조잘대던 곳이었지만 자취도 찾을 수 없음이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다행히 사랑채는 현대식 철재대문을 빼고는 정원에 오래된 정원수며 걸모습은 예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낙들의 웃음소리,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맛있는 냄새들, 그리고 그 안에서 조물조물 만들어진 고향음식 등의 아련한 추억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이런 느낌들이 모여서 ‘전원일기’의 토속적이고 흙냄새 폴폴 나는 구성진 대사들이 만들어 질 수 있었지요.

아버지는 특히 유별난 미식가로 손으로 하는 요리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 입으로는 누구 못지않은 일류 요리사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사는 대갓집 살림을 진두지휘 하시면서도 음식만은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종종걸음으로 부엌살림을 규모 있게 하시던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눈 여겨 보셨고 그래서인지 웬만한 요리는 재료부터 완성단계까지 누구도 범접 못 할 전문가 이셨습니다. 아마 할머니 옆에서 양념 묻은 손으로 맛 봐기로 아들 입에 넣어주신 그 음식의 기억이 아버지의 혀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었나봅니다.

북교동 집은 가난한 문인들 국악인, 화가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시절을 풍미하는 예술가들에게 언제든지 사랑방을 내어주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셨습니다. 사랑방 벽에는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쓴 빛바랜 족자가 걸려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덕을 쌓은 사람에게는 이웃이 있어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집에 찾아오신 손님은 극진히 대접했고 명절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제자, 동료, 후배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흥어를 준비하여 삭혀놓고, 수육과 탁주를 준비하여 목포의 명물 흥어삼합의 명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를 자처하셨습니다.

지금도 연극계 후배들은 그때의 맛있는 흥어 이야기를 화제에 올리곤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광주고보 졸업 후 사범학교 과정을 마치시고 잠시 목포 북교국민학교에 취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본격적인 연극인으로 써의 자질과 훈련의 기회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사는 한사람의 배우가 되어야한다. 수업의 시작중은 무대의 막이 오르는 시간이고, 교실 문을 들어서는 순간은 배우의 등장시간이다. 저 반짝이는 눈은 어린학생이 아니라 배우의 말과 동작을 응시하는 관객의 눈인 것이다.” 아버지의 교사시절은 이렇게 배우가 무대를 소중히 대하듯 어린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며, 단조로 울듯 답답했던 그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갖고 계셨습니다.

시기적으로 3번의 전쟁을 겪는 격동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포근하게 감싸주는 작지만 봉우리 봉우리에서 에너지를 주는 유달산이 묵묵히 지켜주고 그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가 넓은 품을 가진 어머니처럼 품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목포중학교에서도 국어 교사로 근무하셨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가르치는 일은 아버지에게는 천직인 듯 존경 받는 스승이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권위주의적인 그 당시의 교사가 아닌 학생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

며 줄라매는 교육보다는 어루만져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실천하시며 문
학작품에 나타나는 인간성의 이야기와 노래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을 집중시켰습니다.

때로는 엄하고 매도 들으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기에 아버
지의 제자들은 비슷하게 늙어가는 나이에도 스승을 형님이라 부르며 오
래도록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중3 담임을 맡으셨던 때는 졸업식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기념이 될 선
물을 하기 위해 흰 광목을 사서 56명 학생의 손수건을 어머니와 함께 며
칠 밤을 새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솜씨 좋은 어머니는 어린 우리들
키우는데도 힘 드셨을 텐데 아버지와 손발을 맞추어 아버지가 천을 잘라
주시면 어머니는 시접을 곱게 접어 새로 장만한 재봉틀을 돌리며 행복했
던 시절을 떠올리곤 하셨습니다. 그때의 재봉틀은 지금 저의 집에 놓여
있습니다. 재봉틀을 볼 때 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고받던 행복한 웃
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런 목포에서의 삶의 조각들이 아버지 인생의 지침이 되고 당신의
가슴이 용광로가 되어 하나하나 녹여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진 대표적인 작품이 ‘옥단어’와 ‘학이여 사랑 일래라’입니다.

항상 고향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가 80세에 혼신을 기울여서
쓰신 작품이 ‘옥단어’였습니다. 지난날 그저 하찮은 물지계를 지어 나르
던 옥단어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무대에서 관객의 심금을 울리는 주인
공으로 환생했고, 삭막한 시대를 사는 지금의 관객에게 욕심 없이 순박
하게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단어’는
아버지의 마지막 장편희곡작품이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그날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목포를 찾으셨
습니다.

목포 시민의 상을 고사 하셨지만 꼭 받으셔야 한다는 시장님의 설득으
로 모처럼만에 즐거운 고향나들이가 되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전날 잠도 설치시고 아침 일찍 떠나 긴 시간의 여행에

지쳐 보였지만 해맑은 표정의 상기된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중 나와 주신 제자분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추억이 있는 곳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목포 바다가 흰히 바라다 보이는 곳에 세워 질 문학관 자리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눈가는 벽찬 기쁨으로 촉촉해졌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길, 목포행 완행열차의 추억이 수없이 많은 목포역을 지나 어린 시절 악동들과 휘젓고 다녔을 북교동 184번지 주변에서는 한동안 말을 잊으신 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신 듯 쓸쓸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목포 해안도로를 지나 호텔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먼 수평선으로 황혼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고 은은한 붉은 빛의 바다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바라본 그래서 더욱 더 시리도록 아름답게 기억되는 모습들, 아버지께선 생전에 마지막이 된 내 고향 목포의 바다를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셨을까! 웬지 모를 회한의 눈물이 가슴속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예견되고 계획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 6월 당신이 주인공이었던 차범석의 인생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배우의 등장과 퇴장을 중요시 여기시던 분담계 당신의 업적에 갈채를 받으며 아쉬움 속에서 여운을 남기고 무대 뒤로 퇴장하셨습니다.

답답함을 싫어하시던 아버지는 무안군의 시원한 논과 밭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해마다 붉게 피는 탐스런 동백꽃과 아버지 돌아가신 해에 어머니께서 정성껏 심어 놓으신 목 백일홍의 화사한 꽃을 음미하시며 생전에 꿈꾸던 전원을 즐기시고, 바다가 시원스레 펼쳐진 문학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만족 해 하시리라 믿어집니다.

‘천성이 가무와 신명을 마다하지 않으니 이 또한 나의 숙명이리라’
묘비의 문구가 아버지를 기억하듯 입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VII. 김현 문학의 안팎, 그 남도의 빛깔

- 채희윤(광주여대 교수)



김현 문학의 안팎, 그 남도의 빛깔

1. 어디에서

어디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너무 크고 아득해서 도저히 잡히지 않은 위대한 선인의 삶을, 그것도 고향의 문학적 정감을 아울러 말하기 위해서는…….

“유달산 양지바른 곳에 한 학생이 책을 보다가 그랬는지 머리에 책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 그때 유달산에서 내려오던 학생이 누워 있는 학생을 보더니 매우 반가운 표정으로…….”

김현 선생이 서울대학 시절 썼다는 소설의 이렇게 시작되고, 나 역시 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땡땡이 치고 유선각 밑에, 해양전문학교로 내려가는 산비탈에서 소설을 읽었던 기억만이 유일하게 그와 조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시작한다. 소설의 주인공은 친구를 만나지만, 나는 땡땡이 친 댓가로 회초리만 맞았다. 우정 선생님과과의 관계를 꺾어 맞추며, 부족한 글에 대한 용서를 찾았더니, 그 분이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반년 정도 다녔다는 것 뿐이다.

게다가 내가 등단한 것이 1989년이었으니, 그 해는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해였고, 정말 존경했던 선생님을 한 번도 뵈는 적이 없었다.

선생님이 모리악을 말한 어느 부분에서 <그 책의 어느 곳인가 그는 “사람은 모국어로 꿈을 꾸다”라고 적었다. 과연 그렇다. 이제 내가 가야 하는 곳은 극동의 조그마한 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나의 고향인 것이다.> 말한 데에서 고향에 대한 파스함과 더 생존하셨더라면, 말년을 고향에다 터전을 잡지 않으셨을까 하는 추정을 할 뿐이다. 왜냐하면, 선생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전라도 당골의 “혼맞이 노래”에 대해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가 예술의 전이해의 부분에서 체험과의 관계를 매우 정치하게 논하면서, 어느 한곳에서. <내 고향은 남도의 항구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본인의 예술전신의 전이해 역시 어렸을 때 습득한 예술에 있어서 그 습득은 대개 문화적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친의 동양화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또 선생님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남도의 조그마한 섬이다. 그곳은 예술가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아무튼 그 조그마한 섬에서, 나는 산에 올라가 산나무 열매를 따 먹거나, 폐지어 몰려다니며 밭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몰래 맛보거나 목화꽃을 따 먹을 때에, 무나 감자를 몰래 캐 먹을 때에, 옥수수를 불에 구워먹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어른들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무서움까지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었다. 선창에 나가 서너 시간씩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지금도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면, 옷나무나 발목까지 빠지던 펄의 감촉이 맨 처음 되살아나오고, 가도가도 끝이 없던 여름날의 황톳길의 더위와 모깃불의 매캐한 냄새가 나를 가득 채운다.”고 선생님의 다른 글과 다르게 다소 지루하게 태어나서 자라던 곳을 말하고 있다는 데에서 선생님의 고향에 대한 정감과 그리움의 서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호이징어의 유희에 대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인용문에서 우리는 이미 예술가로서 비평가인 선생님의 특징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아무 것도 아닌 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유를 찾아내고, 그 사유의 스펙트럼으로 한 작가의 작품들을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 예술가로서 김현, 그 Topos

어디까지 봐야할까, 남자들 바지 주머니에 있는 작은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 다니는 비평가, 김광남 선생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또는 술을 사랑했던 김현이란 사람은? 문학비평가, 불문학교수, 한 걸음 앞서가는 외국문학자, 심미안을 가진 예술 애호가, 멋진 오역을 기다린다는 번역가, 한국문학을 다시 보게 만든 국문학자? 도무지 한 좌표에 넣을 수 없이 방대한 문학 세계를 아우른 그의 궁극적 자리는 어딜까?

무릇, 어떻든 정치시켜야 한 예술가를 잘 볼 수 있다는 그의 이론에 따라서, 그를 어떤 자리값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예컨대, “한승원, 그의 세계를 바로크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라든지, “임철우는 이청준·김원일의 언어망 속에 있다.”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토포스들의 나열이 아닐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김현의 경우, 물론 내 능력으로 얻어낸 정답은, 그것은 不定과 불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연구자들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그의 값을 매기려한다.

그래서 발표자 역시, “내 정신의 나이는 언제나 1960년의 18세에 멈춰 있었다.” 그의 에피그램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시니피에를 도무지 정초할 수 없다. 사일구세대임을 확연하게 경계 지으며, 자신은 그럼으로써 “쓸쓸한”과 “즐거운”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두 가지의 양가적 감정을 지닌다고 하며, 나아가서, “나는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변화의 씨앗 역시 옛 글들에 다 간직되어 있었다. 나는 변화되고 있지만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 리듬에 대한 집착, 이미지에 대한 편향, 타인의 사유의 뿌리를 만지고 싶다는 욕망, 거친 문장에 대한 혐오 등은 거의 변화하지 않은 내 모습이다. 변화는 그 기저 위에서의 변화이다.”라고 정확히 자신의 좌표를 定置한다.

선생은 18세라고 못 박고 있지만 사실 그 연원은 더 깊을 수 있다. 선생의 술회대로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얹고 들었던, 그 이야기의 세계가 연원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겨울밤에, 가슴에 베개를 괴고, 해남 물고

구마를 늘어붙도록 찌가지고 먹어대며, 이형식에서 오유경에게로, 허승에서 임궽정에게로, 그리고 오펠리아에서 파우스트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켜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다.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설책을 읽어서는 무엇하려는 것이냐는 꾸밈이 어머니의 주된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선생은, “말로 설명될 수 있고, 있어야 하는 세계 속에는, 이곳이 살 만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곳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곳이, 사람 사는 데에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대표적인 곳이 예술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편안함은 그곳이 아름답고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데서 연유한다.”

그렇다. 위에서 내가 예를 든 작가들은 모두 남도의 작가들이다. 워낙 작은 서평조차도 본이의 문학의 연결성을 그대로 지니고 대하신 분이라이 지역 작가들이라고해서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 오로지 텍스트, 즉 작품 이외의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심미안으로 비평하신 글뿐이었다. 심지어 선생님과 아주 가까운 소설가의 작품에도 가차없는 혹독함이 넘쳐날 정도로 부여준다. “이청준이 왜 이 소설을 썼을까? 그의 내면주의, 그의 정적주의가 위험한 수위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또는, “최하림의 「겨울 깊은 물소리」를 공들여 읽었으나, 깊은 감동을 받지 못했다. 리듬하고 별 관계없어 보이는 전라도 사투리며, 라이보리 같은 외래어도 누에 설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성적인 사랑이 아니다. 감정이 교류하는 사랑이 성도, 관계도, 이해도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작가와 작품과의 분리란 매우 어렵다. 특히 가깝게 지내는 작가들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선생은 텍스트와 작가를 선명하게 가르시고, 인간적 교류의 친소에서가 아니라, 오늘 그의 작품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가름하고, 그것으로 자가에 대한 자기 사랑을 진실하게 보여주는 데에 있었다.

더구나 작품-문학 전반-에 대한 선생의 연결성이 얼마나 분명한지는

매우, 사적인 자신에 대한 고백도 조금도 거리까지 않고 한다는 데에서도 인간적 면모를 찾을 수 있다. 이 자기 고백의 유명한 술회인, “사춘기 때에, 나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할 수 있는 여자란 여자는 모조리 마음속으로 간음하였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이해하게 되자마자, 여자들을 먹히기를 기다리는 고깃덩어리이기를 그치고, 장미꽃 핀 화원을 드나드는 천사들이 되었다.” 진정한 작가사랑이란, 그의 작품으로서의 문제이지 작가는 아니다. 아니 텍스트로 규정되는 시인 소설가들의 숙명은 가치론적인 것을 넘어서 존재론을 가져야하고, 선생의 비평은 그 둘다를 지니녀야 한다는 진정한 작가사랑의 철학이다. 성적 존재에서 사랑의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동학혁명과 광주학생운동으로부터 518에 이르는 남도의 강인한 정신 속에는 이토록 냉정한 자기 응시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것은 강강수월래처럼 손잡고 도는, 집단적 춤이며, 상하가 없는 輪舞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기에 선생은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강강수월래를 보았다. 내 유년의 기억 속에서, 그것은 찬란한 축제의 이미지였다. 보름달이 뜨면, 거리거리가 조금씩 달아오르면서 북교국민학교로 가는 인파들이 집 앞을 가득 매웠다. 그 인파들에 휩싸여 학교까지 가보면, 운동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강강수월래를 추고 있었다.”고 했다. 주례사 비평가가 횡행하는 오늘날을 미리 보셨던 것일까? 선생님의 비평가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늘 반성하게 만드는 시금석이다. 도대체 선생님의 topos는 어디쯤일까?

3. 김현, 그 넉넉한 예술가의 인간적 자화상

맛있는 음식과 멋진 풍광으로 비추이는 남도는 내가 싫어하는 남도의 정의이다. 그것은 먹는 행위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며, 내용 없는 지리적 경치뿐으로 폄하하는 의도적 정의가 내려지는 광경을 몇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용기가 없어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그것만 아니라고만 했다. 아만 김현 선생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감히 그런 의도로 말할 사람도 주변에 없었겠지만,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셨을 것 같다. “그는 무지막지한 것, 거짓된 것들에 대해 격렬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의 어울림을 무척 힘들어했지만 그 경멸스러운 것들을 면전에서 감당하기보다는 회피하기를 택했다.”고 작고하신 또 한 분이 이 지역 작가의 전언이 있다. 그러면서 그 문인은 유명한 色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내가 「김수영 평전」을 냈을 때 그-김현-는 “으째서 너는 그만 글을 썼으면서 색(色)을 쓸 줄 모르냐”했다. 나는 색(色)이라는 말이 아팠다. 그는 그 말을 즐거움과 테크닉으로 쓰고 있었겠지만 청교도적인 데가 있는 나에게 그 단어는 싫었다.> 동일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살아 오셨지만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빚어낸 색깔이 선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곰곰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삶의 색채가 나뉘는 것 같다. <산문시대>를 같이 만들었고, 같은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면서도 인간의 개성들은 결단코 단색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선생의 예술적 스펙트럼은, 전라도 당골의 <훈맛이 노래>의 “슬픔과 비애의 감정이 서서히 고조되다가 거의 신비의 경지에 이르르는 소리이며, 그 신비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유한한 삶의 슬픔과 비애 자체가 신비인 것이다.”고한 주장에서부터, “그의 오르간 곡을 지금도 나는 최고의 음악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조화라면 그의 음악은 평화이다. 그의 오르간 곡을 듣고 있으면, 내 마음도 평화롭게 떨린다.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 동물성과는 다른 어떤 떨림이 생겨나, 나를 나 이상의 것으로 만든다. 그 느낌이 때로는 즐

겉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는,” Bach의 오르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음악세계는 너르다.

또, “노인이 되어갈수록 자기 그림에 엄격해져서, 의도인毅道人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그림과 도를 하나로 생각하여 그림을 그린 노인의 품격이 내 가슴을 울린다.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뵈지 못했지만, 이제 그의 그림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윤림산방의 남화에서 이제 만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하는 너른 지평을 지나게 된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선천적- 선생님 용어를 차용한다면, 전 이해-인문화흡수력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점들은 우리 같은 범속한 사람들의 기를 단숨에 꺾어버린다.

여기서 술을 좋아하신 선생님의 술 이야기에도 그의 인간적 성품은 드러난다. 술은 이야기를 정답게 하게 만드는 문화적 장치로 보며, “술이 인생의 무상함을 덮어주는 마취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술은 오히려 건조한 삶에 습기를 부여해주고, 얇은 삶에 두께를 부여해주는 고양제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술자리는 과음이 되어 서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큰 소리를 질러대는 자리나 공연히 처연한 몸짓으로 즐겁게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이다. 과음이 되어 술자리가 높은 고함 소리로 가득찰 때, 술이 부풀린 말들은 터져 볼에 탄다. 그때 남은 것은 말의 뼈들만이다.”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는 플라톤식의 “향연”의 공간이 이야기로 가지 못하고 말로 남아, 타버린 재로서, 말의 뼈라고 일갈하신다.

그런가하면, 선생은 어느 샌가 우리에게 몹시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어느 샌가 우리에게 몹시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기도 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선생의 그 속삭임에 의해, 겨우 소설가로서 자신의 자리를 딛고 서 있다. “삶에 어떤 식으로든 지 의미를 부여하려는 모든 언어적 시도는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말 속에서나, “나는 차라리, 시집이나 잡지를 변소 같은 데 놔 두었다가 일보러 갈 때 잠깐잠깐씩 보세요라고 권하고 싶다. 변소 같은 곳에서 읽

은 한두 줄의 시귀들이, 버스속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작업대 앞에서, 갑작스럽게 되살아날 때, 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오”라는 것에서 문학은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가르침은 진부한 것 같으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현 선생님은 우리에게 충고한다. “나의 정신 구조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성경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내가 「파우스트」나 「죄와 벌」과 마찬가지로 감동을 가지고 읽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나 아버지의 「나와 너」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외연을 넓히지 못하면 우리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김현을 더 깊이, 더 넓게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선 그의 문학, 그 자체의 외연을 확장하고 내포를 심화시켜야한다면, 먼저 우리 문학을 더욱 사랑해야할 것이다.

VIII. 작가 작품

1. 김우진

■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1925년)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헤어보면 어언 14년

옛집 처마 밑—

아버지의 뜻은 무엇?

훌륭한 사람은 무엇?

불초한 자식은 여전히 알 길 없고

유학(遊學)의 몸이 된 때가 있어

꿈은 고향으로 달려가건만,

꿈의 원천인 어머니를 위해선

어떤 꽃을 가지게 할까,

늦으신 아버지는 어디에

안식의 지붕을 세워야 하나,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

■ 자유와 자연의 독자(獨子)(1924년)

망망한 대해에 흰 새 한 머리,

벗 업슴보다는 자유로운 그 새,

고적함보다는 자연의 품 속 그 생활,

아, 꽃 업는 창천의 꽃과

가 엮는 대해의 가 외에는,
엇더한 자연이 또 있스랴,
엇더한 자유가 또 있스랴.

한 엮시 날개치든 힘이 낫나면
그이는 자연의 품 속에 도라가리라,
날든 것을 잊고 일 때가 엮서도
대답의 기대보다도 환희의 깃뿔을 가졌스리라.

자연의 품 속에서 그이는 왕이며 성자며
민중이며 또 사랑이 아닌가,
자유의 환희 속에서 죽는 그이 외에
또 엇더한 신의 독자가 있스랴.

■ 가을 강가에 시드러져가는 당버들을 보았노라(1924년)

Vis-a-vis Whitman's "I saw in Louisiana a Live-oak growing"

시드러져가는 당버들 한 주를
흰 물의 고요한 강가에서 보았노라.

동(同)모도 엮시 동류도 엮시
망막(茫莫)한 이 강가 언덕 우에
혼자 커 온 지낸 날의
반평생을 내가 모르거든,
하물며 엇던 이의 손으로
혹은 엇더한 인연의 힘으로
이 강가 우에 생명을 받게 된지
뉘라서 엇지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누라서
이 적막한 흰 물의 강 우에
연한 살 흰 피부를 가진
이 고독한 당버들의게도
가을이 오게 되지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눈물에 저준 연약한 두 손으로
누른 넋 시드러져가는 적은 가지 하나를 꺾겨와서
내 방 책상 우에 꼬져 노앗노라.

그는 내게 내 동무로 생각되면서도
기이하게도 내게는
엇던 생명의 무리를 가르쳐 주었서라.
그러나 고요한 강가 언덕 우에
시드러져가는 당버들 나무를 생각할 때
나는 내 의무를 다 하려고
누른 넋 시드러져가는
이 적은 당버들가지의게 펜을 들었노라.

■ 연극평론 〈所謂近代劇에代하여〉(1921년) 중에서

근대극은, 결국은 인류의 영혼의 해방 구제를 사명으로하여, 교련(敎鍊) 있고 수완 잇난 예술적 지배자의 극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여, 또 사회적 민중의 교화와 오락을 목적으로 하여 인류의 공동 생활에 공헌하는 데 그 의미의 전적(全的)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정화와 경건한 정조(情調)의 예술로써, 예정(豫定)한 극장 도달점으로 신(信)하며, '극을 인생의 진(眞) 활동'이라난 표어하에 궤배(跪拜)하기에 주저(躊躇)치 아니한다.

■ 연극평론 〈自由劇場 이야기〉(1926년) 중에서

내가 근 사십년 전의 이 날근 자유극장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전혀 이 점에 잇서서 었던 희망을 조선서 구하려고 하는 까닭이다. 오늘까지 지 내온 가위 우리네 신극 운동이란 그 효과가 태무(殆無)하였다. 재래의 신파를 질기든 관중의게는 실망과 냉소를 주고 새로운 연극적 정열을 바라 느니에게는 조소(嘲笑)와 등락(騰落)을 준 것 외에 무슨 공적이 잇섯느냐, 극작가 하나 나오지 안고 극다운 극 한 개 볼 수 업었다. 항상 내가 말하는 ‘신신파(新新派)’의 추태(醜態)를 아모 양심도 의식도 업시 지속해 왔다. 나는 여기서 새 극운동의 오늘 조선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강설(講說)할 틈이 업다. 이 점은 내가 말 아니 해도 눈 좀 뜬 이는 다 알테이고, 또 신극 운동을 일으킬 이는 이 소수의 눈뜬 이들의 일(-) 시작에 제일 보가 잇기 때문이다. …(중략)…

극 운동은 ‘경영상’에서는 경제적이라 할지언정 ‘극 운동’ 상에서는 개혁이고 창작이기 때문이다. 이 뜻은 즉 었던 힘 잇고 빛 잇는 새 역사를 꾸며내자는 말이다.

■ 문학평론 〈李光洙流의 文學을 埋葬하라〉(1926) 중에서

십구세기 자본주의의 낭숙해 가든 영국과 오늘 조선이 갓홀 리가 만무(萬無)하다. 만일 그대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초월해서 영원불후한 진리를 차질 수가 잇다면 었져가고 시대를 통관(通觀)한 드시 조선민(朝鮮民)의 운명을 점치고, 오늘 ‘증병치의 조선’의게 구주(救主)를 자궁(自矜)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기껏해야 망국(亡國) 근성만 남았다는 조선(『문예찬담(文藝瓊談)』)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온정과 열루(熱漏)로써 서로 권(勸)하고 간(諫)함”이 올코 “비방하고 무함(誣陷)하고 악담하고 조소하고”, “증오하고 살육하고 저주(咀呪)하고 쟁투하는 것이 열등감이라고만 하느냐. 삼천년 전 공자 때 사라나서 자사(子思)와 한가지로 ‘중용’이나 찾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나 찾지, 오늘 안져서 사회니 민족이니

하는 것은 큰 실수가 아니냐. 여기까지 와서는 나는 이러한 ‘열등감정’으로 비방하기를 앓기지 않는다.”

...(중략)...

조선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오, 미문(美文)이 아니오, 백과사전이 아니오, 다만 내용, 거칠드라도 생명의 속을 파고 들어갈려는 생명력, 우둔하더라도 힘과 발효(醱酵)에 끝나는 반발력, 넓은 별판 우의 노래가 아니오, 한곳 땅을 파면서 통곡하는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 연극평론 〈創作을 勸 합니다〉(1925년) 중에서

나는 우리 사이에서도 창작 생활이 나오기를 열망합니다. 창작생활이란 말을 넘겨보지 마세요. 소위 ‘문학청년’의 생활을 버리고 한마디 길가의 말 소리, 한 개의 외로운 풀썩, 다만 한 사람의 괴로운 말 깃침 소리를 들을 때에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통찰해야 합니다. 감(感)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게는 이 자유 받게 엽습니다. 모든 부자유, 압제, 고민 속에 든 우리는 이 생활 밧데 참된 미래를 발견하고 창작할 수가 엽습니다. ...(중략)... 창작의 길은 절대합니다. 새 생명을 나으려는 어머니 모양으로 전(全) 우주의 집중(集中)이외다. 이 갓흔 생활 속에서 무엇이 나옴닛가. 힘과 열과 광명, 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자기의 생명력에 대한 자각이 생깁니다. 이 생명력의 자각이 생겨서 극(極)할 때엔 피와 땀의 혁명이 잇습니다. ...(중략)...

이 혁명은 단지 총칼뿐이로만 생각지 마시오. 예술가는 혁명가라고 합니다. 창작은 인생의 혁명가의 폭탄이라고 합니다. ...(중략)...

우리 회(會)의 잡지는 아주 세상에 발표하거나 경찰의 눈에 띄일 염려는 엽스닛가, 또 출판할 때에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닛가, 자기의 주장이나 태도에 아무 주저할 필요 엽시 합니다.

2. 박화성

■ 하수도 공사 (1392)

격분된 삼백명의 노동자들은 중정대리를 끌고 경찰서에 쇠도하였다. 보안계 위생계의 넓은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급사들까지 모조리 나와서 눈들을 등그레가지고 마당에 겹겹이 들어서 살기가 등등하여 날뛰는 군중을 둘러본다.

“자, 서장에게 면회시켜주세요.”

“중정대리란 놈을 끌고 들어가자.”

하며 낭하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는 군중을 밖에 섰던 자들이 두 손을 벌리고 막는다. 사법계실에서도 뛰어나오고 고등계 주임까지 층계에서 궁글어 내려오듯이 뚱그적이고 내려왔다. 서장은 체면의 유지하느라고 나오지는 않으나 서장실에서 섰다 앉았다하며 좌우를 시켜서 무슨 일인가를 알아오라고 하였다. 보안계 주임의 뚱뚱한 얼굴이 나타났다. 금테 안경 너머로 마당에 딱딱하게 박혀 선 군중을 둘러보며

“무슨 일이 있으면 조용히 말해라. 시끄럽게 하면 안된다.”

하고 위엄을 내어 말하였다.

“조용히 할 말이 못 되오. 자 두말 말고 서장에게 면회시켜주세요.”

경찰서가 떠나갈 듯이 삼백명의 소리는 외쳤다. 고등계 주임과 형사들이 한편에서 수군수군 하더니 보안계 주임을 불러가지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린다.

“당신들 의논은 나중에 하고 어서 우리 청이나 먼저 들어 주.”

한쪽에서 주먹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소리친다. 보안계 주임이 다시 이쪽으로 오더니

“그러면 대표를 내어야 서장께 면회시켜준다. 이렇게 몰려가서는 아니 되어.”

하며 눈자위를 불량하게 굴려 군중을 좌우로 훑어본다.

“자, 그러면 대표를 내어 세우자.”

군중은 흩어져 무더기 무더기로 둘러선다.

“장덕삼이 자네 하소.”

“김병수, 이재표.....”

소리가 끝나지 않아 키가 호리호리한 사법계 주임이 점잖게 걸어와서 손가락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키며 대표를 뽑기에 신이나서 소리치는 장덕삼의 어깨를 두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여보, 대표를 네 사람만 뽑으시오. 너무 많아도 재미없으니.....”한다.

말소리가 부드럽고 조용하였다.

“서동권이 뽑게.”

“서동권이 빠져 되겠는가.”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다.

“자, 그러면 네사람 다 되었네. 서동권이, 김병수, 이재표... 다 이리 나오소.”

장덕삼이는 자기가 먼저 한편으로 따로 서며 세 사람을 부른다. 보안계 주임이 앞장을 서고 증정대리와 네 사람이 뒤따라 서장실로 들어가는 뒤를 바라보며 그들은

“이 사람들 하나도 빠지 말고 자세히 이야기하소.”

“그 도적놈에게서 단단히 다짐 받아 가지고 나오게.”

“어떻게든지 오늘은 끝나도록 해가지고 나오게.”

이러한 소리로 대표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었다. 보안계 주임의 안내로 그들은 서장과 마주앉게 되었다. 사십여세나 되어 보이는 서장은 몸을 들어, 앉은채로 교의를 다가놓고는 무겁게 털떡 주저앉았다. 그리고 무테안경을 한 손으로 고쳐 쓰면서 헛기침을 두어번 하더니

“자네들, 국어 할 줄 아는가?”

하고 네 사람을 번갈아 본다. 제일 나이 젊은 서동권이 머리를 굽실하며

“네, 나는 좀 알아듣습니다마는 다른 세사람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통역을 한 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의 말이 너무나 유창하므로 서장은 의외라는 듯이 동권을 주 의하여 보며 보안계 주임에게 무어라고 하니까 까 나가더니 키가 작고 얼굴이 넓직한 형사 비슷한 자가 들어왔다. 서장은 그 자를 통하여 무슨 일로 온 것을 물었다.

“네, 우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공사 일하는 노동자들이올시다.”
제일 나이 지긋한 장덕삼이가 먼저 말을 꺼내었다.

“작년 십이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녀 달이 되도록 돈이 라고는 삼십 전 한번 받고 쌀 두되 받아먹은 것밖에는 샀이라고는 받아 보지를 못하였으니 이런 노릇이 어디 있겠소?”

손바닥을 뒤집어 보이며 말하는 말소리가 차차 거칠어진다.

“그럴 리가 있는가?”

서장은 가볍게 말마디를 무시른다.

“그럴 리가 있다니요? 그러니까 중정이란 놈이 도적놈이란 말이요.”

성질이 급한 이재표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중정대리를 노려보더니 다시 말을 계속한다.

“처음에는 샀이 하루에 칠십 전이니 얼마나 하던 것들이 칠십전은 고 사하고 삼십 전 받은 사람, 삼십오 전 받은 사람,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오십 전 받았는데, 이것도 꼭 한 번밖에 받은 일이 없고 샀전 대신으로 쌀을 받아먹었다 해야 그게 어디 쌀이랍데야? 흉악한 싸라기 두 되 받은 일밖에 없으니 그래 죽도록 일하는 놈은 죽어가며 외상 일만 하라는 법 이 어디있단 말이요?”

그는 서장이 그의 상대자인 청부업자나 되는 듯이 눈을 부릅뜨며 얼굴에 핏대를 올려가지고 말하였다.

“그것이 정말이요?”

서장은 한풀 죽어 앉았는 중정대리에게 물었다.

“네, 어찌 그렇게 되어 버려서....”

그는 머리를 득득 긁으며 말끝을 흐려버린다.

“이놈 너도 속은 있어서 말을 우물쭈물 하는구나. 녀 달 동안에 돈 한

폰 안주는 벼락 맞을 놈이 어디 있단 말이나?”

이번에는 김병수가 우렁찬 목소리로 대어들었다.

“짜옴하듯이 그런 욱하면 안 돼.”

서장은 점잖게 병수를 제재한다. 저편 유리창 밖에는 동무들이 왔다 갔다 하며 방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말소리를 들으려는 듯이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이오. 서장영감 제 말을 좀 들어 봅시사. 그래 녀 달 동 안 일은 시키고 샐은 안 주니 누가 그놈의 일만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 지요. 전표만 날마다 주면 종이를 씹어 먹고 살 수 없고 그 전표를 팔든 지 잡히든지 해 먹었자 결국은 손해뿐이지, 입에 들어오는 것은 없이 공 으로 일만 하면서도 감독과 십장들에게 까딱하면 두드려 맞고 잔소릴 듣고 거 무어 압제라니 말할 수가 없소. 우리 같은 사람은 객지라 싸라기 밥이나마 한바(노무자들의 합숙소)에서 얻어먹고 일했지마는 덕삼이 재 표 같은 처자 있는 사람들은 거 참 굶기가 일쑤지라우. 인제는 일도 더 할 수 없고 속기도 그만 속아 넘어 갈 터이니 이 도적놈에게서 이때까 지 일한 우리 샐이나 받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밝고 밝은 법 밑으로 원정 온 것이올시다.”

합장하듯이 손을 합하여 능청맞게 허리를 구부리며 병수는 말을 마치 었다. 간간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서장은 빨아들였던 담배 연기를 천천히 뿜으며 기침 한 번을 크게 하 더니 두 손을 깎지 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중정대리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그것이 정말이라니, 어째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오?”

하고 묻는다.

중정대리는 휘청휘청하도록 큰 키와 몸에는 어울리지도 않게 방정맞 게 고개를 연방 쪼으며

“네, 네, 저 역시 남의 밑에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어찌 제 마 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된 이면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는다. 삼월 하순이라 서장실 한쪽 난

로에는 아직도 불이 피어있는 일기이언마는 그는 속이 쪼달려 그런지 이마와 콧마루에 땀방울이 솟아올랐다.

“그러면 그 내용이라는 것은?” 서장이 묻는 보람도 없이 중정대리는 말하기를 꺼리는 듯이 입맛만 다시고 있다. 서장은 다시

“자, 그 내용을 말해보시오.”

재촉하여도 그는 오히려 주저하더니 마지못하여

“처음에 중정이가 부청과 계약하기는, 칠만 팔천원에 청부하기로 하여 금년 오월 말일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하였다.

통역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되는 자리인지라 서동권이는 속으로 합당치 못하게 생각하였다. 서장이 자기 동무들에게는 하대하는 말을 쓰고 중정대리에게는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비위에 거슬렸다. 더구나 통역이 서둘러 일본말로 듣고 나서 통역을 듣게 되면 시간도 지루할 뿐 아니라 긴장미가 몇 배가 감하여 마음대로만 한다면 동권이 자기가 나서서 통역도 하고 싶고 말대꾸도 하고 싶었지만은 말할 기회가 오기전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노라니 십구세 밖에 되지 않은 동권이로는 이 자리에 차분히 앉아 있기가 몹시 안타까웠다. 서장의 무표정한 뚱뚱한 얼굴을 건너다보다가 세 동무의 긴장한 눈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중정대리의 압슬거리는 입을 노려보다가 잔뜩 빼면서 길게 말하는 통역하는 자를 눈 흘겨보기도 한다. 마음에 마땅치 못한 말마디에 가서는 헛기침도 하고 손도 비비어 보았다. 유리창 밖에서는 동무들이 추운 듯이 팔짱을 끼고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며 혹은 주먹을 휘둘러 보이기도 한다. 날이 갑자기 흐려지며 바람이 일어나는 모양이다.

삼백 명의 노동자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이처럼 격분하여 경찰서에 쇄도하게까지 된 하수도공사의 내막은 이러하였다.

실업 노동자들을 구제하기로 목적인 하수도공사가 근년에 유행과 같이 각처에 일어났다. 목포부에서도 실업 구제의 하수도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중정이라는 자와 칠만 팔천 원의 경비로 육 개월 간에 공사를 준공

시키기로 청부 계약이 성립되었다. 중정이는 칠만 팔천 원의 사 할은 자기 주머니 속에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사만 칠천 팔백 원으로 공사를 끝마칠 예산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는지라 산본이라고 하는 자를 전주로 하여 우선 일만 팔천원을 얻어 가지고 보증금으로 전부 경비의 십분의 일 즉 칠천 팔백 원을 목포 부청에 납입하고 나머지로 목포 등지에서와 나주 등지에서 삼백 명의 노동자를 모집하여 공사를 시작하되 삼부로 나누어 판구 북부 영정 세 사람에게 삼조감독을 시켜 각각 시장과 노동자들을 두어 시작하게 하였다. 처음 부청과의 계약에 노동자의 임금은 기술 노동자와 십장은 매일 일원 이상이요, 보통 노동자는 최하 칠십 전으로 정한 것이나 중정의 비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삼만 일천 이백 원의 큰 구멍을 감쪽같이 때우는 오직 한가지의 길은 가련한 노동자의 피땀의 값전에서 착취하는 수단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십 전 이하 삼십 전까지의 적은 값에 목을 매고 유달산에서 사정없이 내려 닦치는 찬바람과 뒷개 벌판에서 몰려오는 눈보라를 맞으며 끔끔 얼어붙은 땅을 파기 위하여 종일 곡괭이질과 남포질로 흙을 파며 돌을 뜨기 시작하지 석 달 동안에 삭이라고는 돈으로 한 번 받고 십이 전짜리 싸라기로 한 번 받은 일밖에 없었다. 중정이는 목포 공사 외에 보성, 벌교에 다시 하수도공사 청부를 맡아 그곳에 현금을 쓰느라고 노동자들의 임금 지불의 기한을 내일이니 모레이니 미루어 속여 오는 한편 중정의 전주인 산본의 서기 등촌이가 중정이를 몰아내기 위하여 산본에게 권고하기를

“중정에게 자본을 대어 주다가는 나중에 한 푼도 받지를 못할 것이니 차라리 당신의 이름으로 청부 명의를 하는 것이 옳다.”

하므로 산본이가 출자하기를 그치어 중정의 돈 길이 끊어졌었다. 죄 없는 노동자들은 값은 받지 못하고 전표만 매일 받아가며 고픈 배를 움켜쥐고 뼈가 닳아지도록 외상 일을 하되 걸핏하면 십장과 감독에게 두드려 맞으며 압제만 당할 뿐이니 그들도 종시 피가 있는 젊은 사람들인지라 어찌 영구한 허수아비가 될 뿐이라. 석 달째 되면서부터는 태업하기

를 시작하여 기분이 불온하다가 녀 달 되는 삼월 하순에는 삼조의 동맹 파업 기분이 농후하여졌다. 부청에서 이 소식을 듣고 현장 시찰을 하기 위하여 복천 토목과 주임이 출장하여보니 오월 말에 준공한다는 공사가 아직 호리가다도 끝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좋지 못한 말까지 있으며 중정의 청부 계약을 해약시켜 버렸다. 이러한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된 노동자들은 이 뜻밖에 해약된 소문을 듣자 일제히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중정조 사무실에 몰려가 중정대리를 붙잡고 이때까지의 임금을 지불하라고 격렬히 육박하다가 결국 경찰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서장에게 그간의 내용을 말하는 중정대리는 비밀한 사기행동의 말은 물론 하지 않고 다만 산본의 말과 청부 계약의 해약당한 말만 대강 이야기하여 동맹파업의 동기를 말하였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느라고 애를 쓰던 동권이는 더 참을 수 없이 감정이 폭발되었다.

“거짓말 말아라. 너도 중정이와 한 놈이 아니냐. 왜 더 비밀한 말까지 할 수 없느냐. 너도 양심은 있어 옳고 그른 것은 아는 모양이지. 그러면 서도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그러한 사기수단을 쓰지 않았느냐?”

주먹을 쥐어 중정대리를 겨누며 유창한 일본말로 직접 대어들었다. 통역자가 깜짝 놀란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동권이를 훑어본다.

“하여간 그만큼 들으셨으니 부운을 불러다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서장께 면회한 목적도 부운과 직접 담판하여 그 책임을 물으려고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선말로 동무들 알아듣게 해놓고 다시 일본말로 서장에게 청하였다. 덕삼이와 재표, 병수도 말끝을 달아 부운 불러주기를 청하였다. 서장은 통역자를 쳐다보며,

“좌우간 한 번 쌍방의 말을 잘 들어보아야 알겠으니 부청에 전화를 걸어 토목과 주임을 오도록 하여 주게.”

하니까 그는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허리를 굽실거리며

“복천주임이 곧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여쭙었다.

십 분쯤 지난 후 밖에서 갑자기 떠드는 소리가 나며 중정대리와 거진 비슷한 키와 몸 부피를 가진 복천주임이 서장실에 나타나 서장과 상대하여 앉았다. 서장은 노동자 측의 요구와 중정대리의 변명의 내용을 말한 후

“중정과 정식 해약이 되었습니까?”

하니까 복천이는 큰 눈을 황당하게 더 크게 뜨며

“아닙니다. 아직 정식 해약의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

“그렇다면 해약 송달을 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먼저 지불하여야 되지 않겠소?”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이때까지 한 번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지독하지 않소? 중정의 보증금에서라도 임금 지불을 하도록 하시구려.”

“그러나 해약하게 된다면 중정의 보증금은 몰수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도 없게 되지요.”

동권이 외의 세 사람도 말을 약간 알아듣기는 하는지라 복천이와 서장의 말하는 입만 바라보고 있던 네 사람이 중주임의 성의 없는 말을 듣자 “그것은 안 될 말이요.”

하고 소리쳤다. 동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여보 주임, 참 당신은 너무 책임 없는 말을 하오 그려. 그래 그것이 실업 구제라는 이름 좋은 하수도공사의 내막입니까? 중정이는 칠만 팔천원의 사 할을 혼자 떼어먹고 나머지로 역사하느라고 칠십 전 이상의 임금을 삼사십 전으로까지 감하여 놓았나요. 그나마 매일 지불도 하지 않고 전표만 줄 뿐이었고 받은 것은 돈으로 한 번, 쌀로 한 번 두 번뿐이었소. 그 뿐인가, 삼십이 전짜리 전표를 가지고 쓸을 받을 때는 한 되 십이 전짜리 싸라기를 십오 전에 주면서도 두 되에 삼십 전이면 이전이 남는데 그 이전까지 집어먹어 버리는구려. 전표가 많거나 적거나 다 그렇게

당하였소. 그래, 하루 종일 굶어가며 죽도록 당신네 일만 하는 것이 노동자의 실업 구제 목적인 하수도공사이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된 나머지 떨리기까지 하였다. 서장이 무슨 말을 하려 할 때 동권이는 얼른 다시 말을 계속한다.

“그래 그놈의 돈도 못 받는 전표는 무엇에 쓰란 말이오? 정 근색할 때는 삼십오 전이면 삼십 전에 잡혀먹고 사십칠 전이면 사십 전에 팔아도 먹어 보았소. 그래서 한 사람 앞에 수십 장씩 다 가지고 있는 전표를 감쪽같이 사루어 버려 주었으면 아주 고맙겠지요? 당신네가 중정이를 해약시킬 터이면 우리의 임금 지불을 끝내놓고 하여야 정당한 처리가 아니오? 당신네 손해 보지 않을 일만 생각하고 수백 명의 굶는 일은 생각지 못하오? 보증금에서 주라니까 무어, 그것은 압수니까 안 되어? 그래 당신네 먹을 것은 칠천 팔백 원 딱 떼어놓고 삼백명의 임금은 모른 척 하려고 드니 정말 책임자인 부청 당국자는 중정이와 합동하여 삼백 명의 목을 졸라매어도 관계없습니까? 서장! 이런 불법자들도 가만 두어야 옳습니까?”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입으로 불을 뿜는 듯이 북천이와 서장에게 질문하였다. 북천이가 오자 밖에 있는 노동자 측의 태도가 불온한 것을 보고 서장실에는 보안계 외의 각계 주임과 형사들이 들어왔다가 동권이가 책상을 치며 힘 있는 말소리를 계속할 때 방안은 잠잠하였고 밖에 있는 군중은 유리창으로 몰려가 들여다보다가, 동권이가 말을 마치자

“웁다! 그렇고 말고, 어서 샅을 내놓아라. 안 준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버려지 같이 보이는 우리라도 너희가 와락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하며 떠들어대는 것을 형사들이 밖으로 나가 제재하였다. 북천이는 동권이를 건방지다는 듯이 노려보더니

“나 역시 나 한사람의 결정으로 못하는 것이니까 딱합니다마는 임금은 전부 얼마나 된다 합니까?”

정작 상대자는 그만두고 서장에게 향하여 묻는다. 네 사람은 삼백 명의 전표 계산서를 내어놓았다. 북천이는 앞으로 다가보며

“일천 사백원....”

하고 잠잠하게 앉았다.

북천이는 사장 이하 모든 사람 앞에서

“닷새 이내로 증정어로 하여금 임금을 전부 지불하게 하되 만일 증정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청에서라도 책임지고 지불하겠다.”

는 선언을 하였다. 삼백 명은 북천의 그 선언을 듣고서야 경찰서에서 물러갔다.

삼부 노동조합 사무소를 나온 동권이는 심한 피로를 느끼었다. 계모의 야단치는 서술에 아침밥도 받았다가 그냥 내놓고, 점심도 굶은데다가 저녁때도 지난 황혼이 되고 보니 시장기가 몹시 들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너무 흥분하였던 탓인지 열까지 오르는 듯하여 오늘밤은 집에 가는 길이 더 험하고 돌맹이도 많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사립문을 힘없이 젖히고 들어서서 동권이를 보자

“오늘은 돈푼이나 생겼는가부다. 인자사 어슬렁 어슬렁 들어오게.....”

하며 계모는 밥상을 마루 밑 부엌에 서 있는 딸에게 내어 주더니

“그래, 오늘은 돈을 꼭 탄다고 하더니 얼마나 가지고 왔냐?”

하고 마루에 걸어앉은 동권이를 희 돌아본다.

“흥, 돈?”

하는 소리가 동권의 입에서 새어 나왔다.

“무어? 어째? 흥 돈? 아따 이놈 봐라. 이놈이 인자 조소까지 하는구나. 그래, 돈 돈 하니께 돈에 미쳤다고 조소하는 셈이냐?”

계모는 넓적한 입을 악물고 요망스럽게 생긴 눈을 똑바로 떠 동권이를 보며 체머리를 살살 흔든다.

“누가 조소했소? 돈도 못 탔는데 돈 하니께 얼척 없어 그랬지.”

“웁다, 말대답 잘한다. 돈을 타서 까 먹어버리고 조소를 하는지 참말로 못 탔는지 뉘 아들놈이 네 말을 곧이들어.”

동권이는 말할 기운도 없거니와 조석으로 얼굴만 대하면 언제나 당하

는 노릇이라 시들하다 싶은 듯이 잠자코 앉았다.

“돈도 모 타고 일도 안하면서 진즉 와서 밥이나 퍼먹을 것이지. 어디가 자빠져 놀다가 인자사 깔대와. 딴 상차리기 좋은 사람은 어디가 있나. 종년이나 하나 데려다 놓았는가 보구만. 응 아니 쫘게....”

하면서 방정맞게 작은 제 키만 한 담백대에 불을 붙이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을 다하시오. 그만해 두시오. 오빠는 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밥 먹으.”

계모가 데리고 온 딸인지라 어머니 하는 말이 온당치 못하게 생각된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 은근히 소리하며 밥상을 들고 섬돌로 올라온다.

“무엇이 어째? 주제넘은 년. 너는 가만히 자빠졌어, 편 들어주면 고마운 줄 알깨비?”

하고 담배를 뽕뽕 빨아 붙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동권을 흘겨보며 “이 때까지 키워놓은 공 값음하느라고 흥 돈? 하면서 코웃음 치는 것 봐. 이놈아, 뭐 공으로 큰 줄 알고 인자는 조소까지 해. 되지 못한 건방진 놈의 자식.”

하면서 담백대를 들고 일어선다.

“그만 저만 해두소. 종일 굶은 놈 저녁이나 먹으라고....”

방에 들어앉았던 동권의 아버지가 듣다 못하여 말하였다.

“무어? 종일 굶은 놈? 누구는 배 터지는 사람 보는가? 이 녀석 아들이라고 편 짜 놓는구만. 그만 저만 해두제. 누가 제 아들 뜯어먹는다고.”

“어머니 그만두시란 말이오. 큰방 아주머니 보기 부끄럽소. 오빠는 들어가 밥 먹으라니께야.”

“이 가스냥년이 왜 이렇게 볼게진다냐. 늙은 것 젊은 것, 나 하나 가지고 지랄들을 하네. 예 내가 죽어서 요런 놈의 꼴을 안 보지.”

하면서 방으로 들어간다. 아버지는 동창으로 고개를 내어 밀고

“이놈아 들어와서 밥 먹으라는 말이다. 배가 안 고프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녀 빠치고 앉았게...”

한다. 고개를 수그리고 앉았던 동권이는 그제야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와 밥상을 받아 막 한 손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려니까

“어뎜 보고 비웃던 아가리라 밥은 잘 들어가는구나.”

하는 소리가 나자 아버지에게서 재떨이가 날아와 종알거리는 계모의 어깨를 툭 치고 떨어진다.

“빌어먹을 년 그만두라고 해도 너무 지랄한다. 요망스럽게 계집년이 왜 그리 지랄이냐?”

계모는 악이 나서 파랗게 질린 입술을 악물고 재떨이를 집어 영감에게 도루 던진다는 것이 동권의 밥상에 떨어져 김치그릇이 왁자지끈하고 깨어지며 김치 국물이 쏟아진다. 동권이는 별떡 일어나며

“에이 참 해도 너무한다. 원 사람을 볶아도 분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니까 계모는 앉은걸음으로 문턱까지 쫓아나오면서 “무어 너무 해? 사람을 볶아? 저 사람 잡아먹을 놈이 제 에미 잡아먹고도 못마땅해서 생사람 잡아먹으려고 볶는다는 것 봐, 에이 못된 놈 이놈! 이놈!”

하고 깨어진 쇠그릇 소리 같은 목소리를 힘대로 놓아서 악을 쓰며 마룻바닥을 친다.

“이년 요망스럽게.....”

동권이의 아버지가 별떡 일어서 발길로 차니까 딸이 뛰어오고 큰 방 사람이 몰려온다. 계모는 영감에게 덤비어 물어뜯으며 주거나 받거나 잡 시간 격투가 계속 되었다. 동권이는 말없이 운동 구두를 신고 계모의 포악스러운 울음소리를 뒤로 사립문 밖에 나와서 불만 반짝이는 기왓가마 동리를 내려다보고 한숨을 휘 내어 쉬노라니까 계모의 데리고 온 딸 희순이가 따라나와 소매를 잡아당기며

“오빠!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좀 섰다가 밥이나 먹고 나가요. 종일 굶고 저녁까지 안 먹어서는 안 돼요.”

하면서 고개를 수그리고 손으로 눈물을 씻는다. 약혼한 처녀인지라 치렁치렁한 검은머리와 발육 좋은 등허리 어깨는 처녀의 황금시대의 아름다움이 서리어 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도모지 대꾸를 말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짓으로만 알으란 말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나가요.”

그는 오늘 저녁에 분투하고 온 오빠를 먹이려고 바느질품을 팔아 모아 놓은 귀한 돈에서 그의 좋아하는 저육을 사서 찌개를 해놓았던 것이다. 모처럼 들여놓은 정성이 깨어지게 될 때 처녀의 마음에는 애달프게 생각되었다. 동권이 역시 밥상에서 잠깐 본 저육 생각을 하든지 몸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시장함이라든지 사실 그렇게 할까도 생각하여 망설이는 차에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가 똑 그치더니

“희순아! 이년 어데 갔냐.”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희순이는 놀라

“꼭 그래요 응? 조금만 이으면 조용해질 것이니까 큰방으로 들어와서 밥 먹고 나가요.”

하고 가만히 소리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무엇 하려 깔대 다녀? 서방 찾아 다니냐?”

하는 계모의 소리를 듣고

동권이는

“에익 더러운 여편네.”

하며 기침을 한 번 각 하여 더럽다는 듯이 침을 탁 뱉고 발걸음을 옮기었다. 윗길로 사무소예를 갈까 용희의 집 앞으로나 지나보게 아랫길로 갈까 망설이다가 아랫길로 발길을 돌리어서 두어 걸음 내려오는데 용희의 집 대문 처마 밑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오더니 마주한다.

동권이는 그냥 지나치려고 지나오는데

“동권오빠 아니야?”

하는 소리는 용희의 소리다.

“응? 이게 누구여 용희?”

극한 반감에 동권이는 하마터면 용희를 안을 뺐하였다. 그는 스스로 놀라 조금 물러서며

“그래 어디 가는 길이야?”

하고 처녀의 등그스름하고 하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니 하도 희순이 집에서 야단이 나갈래 여기까지 와 보았어. 그런데 밥도 안먹고 어디 가는 길이야?”

하고 쳐다보는 그의 눈은 캄캄한 속에서도 반짝인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찌알아?”

두사람의 발길은 용희의 대문 앞으로 향한다.

“내가 그 집 문앞까지 가서 다 들어보았지 어찌.”

그는 한손을 입으로 올리며 웃는 모양이다. 대문앞까지 와서 용희는
씩 돌아서 대문을 달각 밀더니

“자 우리집에 좀 들어가.”

한다.

“무어? 집에 들어가? 다들 어디 가셨길래.”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오늘이 큰댁 제사라고 아침부터 계순이 데리고
가시고 종일 나 혼자 있었는데..... 어머니는 새로 한 시에나 오시고 할
머니는 내일 오시니까 오늘밤에는 용기하고 나밖에 없어. 들어가 어서.”

응석하듯이 재촉한다. 동권이는 오히려 들어가기를 주저한다.

“용기도 아까 큰댁에 보내면서 놀다가 오라고했으니까 어머니하고 같
이 오거나 할꺼, 어서 들어와. 남들 지나다가 보겠구만 그래.”

이제는 대문 안에 들어가서 손을 잡아끌 듯이 재촉한다. 동권이는 마
지못하여 들어가면서도 어쩐지 서먹서먹하여진다. 용희는 팔짱을 끼고
앞서서 대청마루를 지나 자기 방인 뜰아랫방으로 들어간다. 걸음 걸을
때마다 용희의 머리채가 발뒤꿈치에 치렁거리는 것이 안방에서 새어나
오는 불빛에 보인다.

전등불이 환한 방안에 들어선 동권이는 먼저 이상한 향기에 취하는 듯
하였다. 용희는 아랫목을 가리키며

“저기앉어요.”

하고 부끄러운 듯이 손으로 입을 가린다.

“앉어요.”

란 말이 서투른 까닭이다. 그가 동권이에게 경어를 마음놓고 한 번 씩 쓰게되면 쓴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부끄러운 태도를 가지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이 그의 버릇이다. 동권이 용희의 앉으라는 자리로 앉으니까

“잠깐만 혼자 앉았어. 나 얼른 밖에 갔다올게.”

하고 옥색 저고리 소매를 걷으며 분홍 치맛자락을 걷어지르면서 문을 닫고 나가더니 발자취 소리가 저편 모퉁이로 사라진다. 동권이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 오기는 여러 번이었으나 이 방은 처음이다.

처녀의 방인 만큼 방에 놓인 것이 모두가 고운 것이었으나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불란서 자수 바탕으로 만든 책상보와 그 위에 모양있게 꽂아 놓은 많은 책이었다. 어떻게 언제 저렇게 많은 책을 구하였는가, 동권이는 속으로 놀래었다. 벽에는 사진들이 하나 걸리었고 이쪽 저쪽으로는 남치마 노란 저고리 등이 걸리었다. 나무 꺾는 소리가 들리면서 어느 틈으로인지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

책상 위에 놓인 시계는 여덟시다. 동권이는 일어나 책을 검사하여 보니 한편으로 독본과 일본말 부인잡지가 몇 권 있는 외에 모두가 고등정도의 문학 서류였다. 아무래도 전문 정도의 누가 배경에 있구나 생각을 할 때 어쩐지 마음이 좋지 못하였다. 좀 더 뒤적이려니까 문이 열리며 용희가 들어왔다.

그는 밥상을 무거운 듯이 들어다가 아랫목에 놓으며

“자 밥먹어. 아까 희순이가 그러는데 아침도 안 먹었다니 얼마나 배가 고픈까?”

하면서 밥그릇 뚜껑을 벗겨 놓는다.

“무어? 밥? 아니 잠깐 놀다가 갈 터인데 밥이 무어야 그러다가 누구나 오면..”

하면서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과 국이며 상으로 가득찬 반찬을 볼 때 발걸음은 저절로 아랫목에 와 밥상 앞에 앉아졌다.

그만큼 동권이는 극도로 배가 고팠던 것이다.

“오기는 누가와.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밥이나 잘 먹어. 또 오면 어째? 밥 먹는 것이 무슨 죄인가. 안 그럴 것 같아도 겁이 펴 많네.”

하며 흘기듯이 동권이를 보더니

“어서 자 숟가락들어. 식는구만 그래.”

하고 숟가락을 들어준다. 동권이는 받아서 먹기 시작하였다.

“반찬이 펴 걸다. 용희는 항상 이렇게 먹는가?”

용희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우선 곱게 썰어놓은 저육을 집어다가 몇 있는 듯이 먹는다.

“다른 반찬은 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먼저 보낸 것이고 그것 말야.”

하고 숟가락으로 집어 가는 저육을 가리키며

“그것은 아까 희순이가 오빠 제일 좋아하니까 준다고 사기에 나도 장사 데리고 와서 샀지.”

하면서 싱긋 웃는다.

“내가 좋아한다니까 나 주려고 샀어?”

“그럼. 아까부터 희순이 어머니가 막 육을 하고 오면 죽이니 어찌니 하도 버르기에 또 야단이 나서 저녁도 못 먹을 줄 알고 내가 차려두었다가 주려고 마음먹고 샀는데”

“저런. 참 용하네 어찌 그리 잘 알까?”

농담과 같이 말은 던졌으나 아닌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밥상이라는 것을 영리하고 예민한 동권이가 모를 리가 없었다.

“하여간 고맙네. 용희가 아니면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동권이는 의미 있게 용희를 바라본다. 용희도 마주 바라보다가 부끄러운 듯이 눈을 물 주전자 위에 떨어뜨리며 손으로 주전자 몸뚱이를 만져본다.

밝은 불 밑에 가까이 앉혀놓고 보니 열일곱 살 된 처녀로는 한 살 위인 희순이보다도 더 처녀답게 예쁘고 의젓하였다. 작년 추석 때 일본서 막 나와서 어마 안 되어 동권이의 아버지는 섬으로 일하러 가고 계모는 동

권의 누님의 아기 받으러 가고 희순이와 둘만 있을 때 보름동안을 날마다 두 처녀에게 가르치노라고 한방에 안자 놀아보았고 그 후로도 가끔 만나기는 하였으나 말조차 변변히 건너보지 못하다가 일 시작한 이후로는 새벽에 나가고 밤에여 들어오게 되므로 마음으로만 간절히 사모하였을 뿐이요, 마주 바라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던 두 사람이 오늘날 빈 집안, 밝기 낮과 같은 방안에 단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며 농담까지 하게 되니 동권이와 용희는 꿈과도 같이 생각하였다.

용희는 동권의 밥 먹는 모양을 옆으로 바라보면서 가슴이 쓰리었다. 작년 이래 과연 그는 얼굴이 몹시 파리하여지었다. 나가서는 힘에 겨운 일이요, 들어오면 계모의 달달볶는 솜씨, 놀때는 논다고 잔소리요, 일하니 돈 타오지 않는다고 성화이다. 그에게 오직 위안을 주는 희순이가 없었던들 그는 가정의 매일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용희가 없었던들 그의 생활은 너무도 황량하였을 것이다. 이 두 처녀의 숨은 위안과 동정으로 그는 윤택있는 정신의 생활을 하였을망정 심한 고역에 그의 얼굴과 손은 터지고 거치어져 어려서의 귀엽던 모습과 상업학교 시절의 활발하던 기상이며 일본서 막 나왔을 때와 같은 한창의 청년미는 사라지고 빛나는 눈만은 그대로 있으나 이제는 검은 얼굴에 광대뼈까지 보이게 되는 한 건장한 노동자에 지나지 못한 것을 볼 때 처녀의 가슴은 터지는 듯이 아프며 눈물까지 핑 돌았다.

맛있게 한 그릇 밥을 다먹고 난 동권이 물을 달라려고 그릇을 들고 용희를 건너다보니 그의 예쁘고 맑은 눈에 눈물이 고여있지 안은가? 동권이는 그릇을 든 채 놀란 표정으로 용희를 바라보다가 그 표정은 차차 긴장하여지며 용희를 주목한다.

“용희?”

“....”

“웬일이여 응?”

용희는 종시 말을 아니하고 주전자를 들어 물을 따르며

“아이 물이 다 식었네.”

하고 주전자를 놓으면서 저고리 고름을 가져다가 가만히 눈물을 씻는다.

동권이는 이때까지 경험하여 보지 못한 야릇한 감정의 충동을 받았다.

그의 가슴에는 무엇이 쓰리게 내려가는 듯하며 목구멍이 갑자기 아픈 듯하여 물을 마실 때 기침을 두 번이나 하였으며 가슴은 더욱 쓰리며 두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숨을 깊이 내어쉬며 상을 힘 있게 밀쳤다. 그러나 전에 없는 부끄럽고 침울한 태도로 다소곳하게 고개를 수그리고 치맛자락을 만지작 거리고 앉아있는 용희를 볼 때 가슴의 고통은 더욱 높아지며 그의 숨결까지 가빠지는 듯하였다.

“용희!”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었다. 그러나 용희는 대답이 없다.

웬일인지 “응?”하고 대답할 수도 없고 “네?”하고 대답하기도 부끄러웠다.

“왜 그래요.”

눈살을 잠깐 찡기는 듯하며 그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눈물지어? 무슨 속상하는 일이 생기었어?”

한 손을 그의 어깨에 올려 용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가만가만 흔들었다.

“말을 해. 왜 그렇게 가만히만 있어?”

“아니 무슨 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저...무어 응?”

“어릴 때 지내던 일과 지금의 일을 생각하니까 공연히 눈물이 나요.”

그는 다시 손을 올려 입을 가리고 웃으나 눈에는 새로운 눈물이 고여 있다.

용희의 비단결 같이 고운 심정을 살핀 동권이는 더욱 견딜수 없이 가슴이 뜨거웠다.

“용희! 그 심정을 내가 잘 알고 있소. 좌우간 나는 용희를..”

그 다음말의 대신으로 억센 그의 손은 부드러운 처녀의 손을 잡았다.
“몇번이나 그러지말자 하면서도 점점 더 용희가 그리워만 지니 이것이
못 쓸 생각이 아니고 무어요?”

그는 더욱 힘 있게 팍 쥐고 용희를 들여다보며

“그렇지? 못 쓸 생각이지?”

하는 남자의 손을 살짝 뿌리치며 용희는 일어났다.

“쓸지, 못 쓸지, 왜 나보고 물어. 생각해 보면 다 알 터인데...”

성낸 듯한 표정을 보이며 그는 상을 들고 나간다.

그의 뒷모양을 보며 동권이는 한숨을 깊이 내쉬고 시계를 보니 아홉
시나 되었다. 몹시 시장한데다가 배불리 밥을 먹고 격렬히 흥분한 나머지
더운 방에 앉았으니 몸이 피곤하게 땅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며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몽롱하여진다. 그는 펄쩍 주저앉아서 몸을 벽에 기대
고 갈래 갈래의 생각을 환상의 날개에 맡기고 눈을 잡았다.

동권이와 용희는 죽동서 위아래 집에서 살며 어려서부터 친한 동무
였다.

여덟살 때에 동권의 어머니가 죽고 그 이듬해 희순의 어머니가 여덟살
된 딸을 데리고 계모로 들어왔다. 그때는 가세도 넉넉하였다.

희순이와 용희는 한 해에 함께 보통학교에 입학하여서 동권이와 셋이
학교에 같이 다니고 모르는 것도 배워가며 항상 정답게 놀았다. 동권의
누님이 시집가던 해 동권이는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업학교에 입학하
였으나 동권의 집안 형편은 차차 말 못하게 되어 오직 목수인 그의 아버
지의 날품팔이만으로 네 식구 호구를 계속하게 되었다. 동권이가 삼학
년 되는 열일곱 살 되는 해 용희와 희순이는 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열
굴도 쌍둥이 같이 아름답거니와 재주까지 비슷하여 석차를 서로 다투었
다. 그들은 가장 친한 동무였다. 용희는 경성으로 가기를 부모에게 청하
였으나 그들은 귀한 딸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조건 하에서 정명학교에
입학을 시키어 동권이와 용희는 아침이면 같은 방향으로 학교에 가게 되
고 올 때도 흔히는 나란히 오게 되었다.

집에 들어 앉게 된 희순이는 오빠와 용희의 학교가는 뒷모양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부러워하였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는 정 반대의 너그럽고 유순한 성질으로 가져 동권을 극히 동정하고 이해하여 주매 동권이 연시 친누이같이 사랑하여 계모만 같고 보면 한시도 집에 있지 못할 것으로도 희순이라는 영리하고 의젓한 위안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평화한 심정을 가질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학기가 될 때 현재 그의 가정 상태로는 도저히 학교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퇴학하고자 하는 때 학교에는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 존경하는 상급생과 동무들이 모조리 잡히매 열정적인 동권이는 남 몰래 몇 번이나 주먹을 부르뒤다가 친한 상급생의 원조로 그 해 겨울에 말 많은 가정과 고향을 떠나 동경으로 갔다. 그는 신문배달을 하면서 아직 일정한 학교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떠한 기회로 정이라는 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동권이와 동향인이요 상업학교의 선배로서 일찍부터 머리가 명석한 수재라는 말을 동권이가 여러 번 들었던 터이다. 매일 방문하여 여라가지를 배우는 동안 그의 머리와 성격에 깊이 열복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내와 고학을 하면서 사회과학 연구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동권의 유망한 소질을 사랑하여 정성껏 가르치며 지도하였다. 어린 몸으로 신문배달을 하며 어학과 주의서적 연구에 힘쓸 때 고생도 심하였거니와 병도 여러 번 났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어떠한 사정으로 정 의 전 가족이 귀국하게 되매 그도 얼마 안 되어 뒤따라 돌아왔다.

그가 이 년간 동경생활을 하면서 여학생들을 볼 때면 희순이와 용희의 천질을 아까워하여 편지로써 항상 격려하여 주었고 신문과 잡지 같은 것을 보내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렇게 잡지도 잊지 못하던 그들을 이 년만에 다시 만날 때 먼저 놀랜 것은 처녀답게 발달한 그들의 자태이었고 다음에 그들의 말 없는 진보였다. 키가 크다는 죄로 학교까지 중지당하고 들어앉아 있는 용희를 대할 때는 희순에게 대할 때와 별다른 감정이 움직이었다.

용희 아버지는 여전히 죽동에서 포목장사를 하면서 그들의 가족은 죽

교리에 새 집을 지어 이 곳으로 왔으며 동권의 부모는 용희 어머니의 소개로 이웃집 방 한칸을 얻어 이사 온 것이었다. 동권이 귀국하여 보니 정든 자기 집은 없어지고 한 칸 방에서 부모와 자기 남매가 거처하게 되고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한편 아버지의 일자리까지 드물게 되어 집안 형편이 더욱 말이 못 되었다. 이렇게 되니 그의 계모는 밤낮으로 동권을 달달 볶기 시작하여 어느 날이나 풍파가 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동권이는 견디다 못하여 정의 양해를 얻어 십이월 하순부터 하수도 공사의 노동자의 한 사람이 된 것이다.

희미한 추억의 갈래길에서 헤메던 동권이는 갑자기 찬 것이 손에 닿을 때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에 용희가 조심스럽게 앉아 그의 손을 자기 손 위에 얹은 것이었다. 동권이는 몸을 일으키어 바로 앉으며 “추운데 무얼하고 들어왔어 응?”

하고 용희의 찬 손을 꼭 쥐어 주었다. 그는 동권을 쳐다보며

“글세 아까 무어라고 했어?”

하고 손을 잡힌 채로 동권의 무릎을 지긋이 누른다.

“또 듣고 싶어?”

동권이는 빙긋이 웃고 한 손으로 마저 용희의 남은 손을 잡으며

“최용희씨를 생각지 말자 하면 그럴수록 더 그립고 보고 싶어 견디기 어려우니 나 같은 노동자가 부잣집 영양에게 짝사랑하는 것이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니냐고 여쭙었습니다.”

하니까 용희는 동권을 물끄러니 바라보며

“그것이 농담이요? 참말이요?”

한다.

“내가 물은 말을 먼저 해야지 글썸 당하냐 못 당하냐 그러는 말이여.”

“글세 그것이 농담이냐 진담이냐 그러는 말이야.”

“나는 진담이지 왜 내가 용희에게 농담을 해.”

“그렇다면 나는 말하지 않을 터이니 알아서 하지 무었하러 내게 물어.”

하고 손을 빼고 물러 앉으려고 하는 것을 동권이는 더욱 힘 있게 잡

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해보란 말이여.”

하고 용희의 몸을 가만히 흔들었다. 용희는 고개를 수그리며

“글세 나보고 물을 것 없이 알아서 하리는데 왜 그래요.”

하는 그의 말소리는 약간 떨리는 듯하였다. 머리에 불티가 앉은 것이
별다르게 아름다웠다. 동권의 감정은 다시 용솨음치기 시작한다.

“용희! 나는 용희를 정말로 사랑하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사랑이 현재
우리 정세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억제하는 때가 많소.
그러나 용희는 어쩐지 누가 아오?”

“어쩌면 사람이 그래요. 번연히 알면서도 공연히...”

용희는 고개를 들어 원망스러운 듯이 동권을 흘겨본다.

“그러면 용희도 나를 사랑한단 말이오?”

동권의 말소리는 떨리면서 모르는 사이에 그의 팔은 여자의 어깨를
안고 있다.

“나는 당신이 없이는 참말 살 수 없어요.”

대담하게 말하는 그는 머리를 동권의 가슴에 묻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
리운다. 용희를 안고 있는 동권의 팔이 흔들리도록 처녀의 심장의 고동
을 잤다.

한참이나 지난 후에 용희는

“그런데 말이오. 어째 우리의 사랑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하고 남자의 가슴에서 풀려나와 바로 앉으며 물었다.

“그것쯤이야 용희가 생각해 보면 알겠지. 지금 우리의 사랑이.”

말을 마치지 않고 동권이는 귀를 기울이며

“누가 대문을 지긋거리지 않나?”

하니까 용희도 고개를 갸웃하자

“누님!누님!”

하는 소리가 난다.

용희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용기가 왔어, 어쩔까?”

하며 동권을이를 본다.

“어찌기는 어째. 어서 가서 열어주지.”

하고 그는 일어서서 시계를 본다. 용희도 따라서 보니 벌써 열 시다.

“그러면 그 말은 숙제로 두어요. 내가 지금 묻던 말은...”

그는 방문을 열고 나가며 말한다. 동권이도 따라나왔다.

삼월 이십오일-이날은 북천주임이 삼백 명 노동자의 전부 임금을 책
임지고 지불하겠다, 하던 닷새 되는 날이다. 오전에 과연 영정조 사무실
에 북천주임에게서

“정거장앞 ×상점으로 가서 받으라.”

는 엽서 한 장이 왔다. 그들은 일제히 ×상점으로 달려가 엽서의 내용
을 말하였다. 의외로 많은 방문객을 맞은 상점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를 몰라 황망하다가 그 내용을 듣고는 눈이 둥그레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들은 삼백명은 극도로 흥분하여 중정대리를 끌고 부청
으로 몰려갔다.

“거짓말쟁이 북천이를 내놓아라.”

“민중을 속이는 관청을 없이 하여라.”

“부운을 끌어내어라.”

과히 넓지도 않은 부청 마당에 물샷틈없이 박혀 서서 각각 한마디씩
소리를 치며 와 하고 사무실 문으로 들어갔다. 사무원들은 깜짝 놀라 자
리에서 일어나고 이층에서들도 우당 통탕 하고 내려왔다.

부청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읽던 사람들도 뛰어나왔다. 부운은 이
층에 숨은 듯이 앉았고 다른 계원들은 경찰서에 전화를 거느니 노동자들
의 침입을 막느니 하고 요란스러웠다. 정복 사복의 순사와 형사가 오륙
명이나 달려와서 군중을 위협하였다.

“잔소리 말아라.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임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대중을 속이는 것이 불법이지. 왜 우리가 불법이냐. 오늘은 세상없어도 우리의 피땀의 값을 찾고야 말리라.”

“어서 복천이를 내놓아라, 부운을 끌어내어라.”

위협도 권유도 그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 고등계 형사의 한사람이 현관 마루에 올라서서 두 손을 입에 대고 큰소리로

“대표가 나오너라. 저번 날 서장에게 면회한 대표 네사람이 나와라.”

하니까, 잠깐 조용하여지며 네 사람의 대표가 나섰다. 형사는 네 사람을 보고

“자,자네들 네 사람이 들어가서 복천주임과 직접 면대하여 처리할 것이지 이렇게 몰려 들어가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법에도 걸리게 되는 것이니 모쪼록 조용조용히 하게.”

한다. 경어를 쓰지 않는 것에 언제나 비위가 틀리는 동권이는

“건방진 놈.”

하고 속으로 비웃었다. 네 사람은 토목과에 갔다. 복천주임은 속으로는 놀렸을망정 겉으로는 혼연한 태도로

“중정이가 돈을 가지고 그 상점으로 한 시까지 오마고 하였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볼 것이지 왜 이다지 야료하느냐.”

고 도리어 책망하듯이 말을 던져버리고는 다른 일만 하고 있다.

네 사람은 하는 수 없이 한 시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나왔다. 이날은 아침부터 날이 흐리고 출기까지 하여서 밖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리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부청 바로 위에 오포산에서는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포는 전 시가에 울리며 각 공장의 기적도 따라 울리었다. 음식점 아이들이 각각 주문 들어온 음식을 들고 자전거로 왔다갔다하며 사무원들이 식당에 들락날락하는 동안에 점심시간도 끝난 모양이었다. 한 시가 되자 균중은 다시 끓기 시작하였다. 복천 주임이 나타나 그 큰 눈을 일부러 가늘게 떠서 좌우를 살피며 아침하는 듯한 어조로

“지금 광주에서 전화가 오기를 세 시차에 꼭 도착하마고 하였으니 미안하지마는 잠깐 더 기다려 주시오.”

하였다.

“거짓말 말아라. 오늘도 또 속일 것이냐.”

“오냐. 또 거짓말만 하여 보아라.”

무더기로 외치는 큰소리를 뒤에 두고 복천이는 다시 들어갔다.

밖에서 기다리는 그들은 출기도 하려니와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다.

“밥을 내어라. 너희만 배부르게 먹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생배를 조리고 있는 것이냐.”

군중은 와글와글 떠들다가 형사들의 제어로 겨우 그쳤다. 형사와 순사는 그 동안 두 번이나 번갈아 들었다. 도서관에서 글 읽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 번이나 나와 군중에게서 내막의 이야기를 듣고 놀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동권이는 정이 그의 친구인 김이라는 사람과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는 반기면서

“그래 차분히들 기다리고 있네 그려. 펍 얌전들 하이.”

하고 그는 의미 있게 웃는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안 돼요 안 돼. 다 내어야 되요.”

병수는 주먹을 흔들며 반대하였다.

“아니 세 시까지 온다던 증정이는 어찌 되었기에 또 딴 말이요?”

동권이는 다시 질문하였다. 주임은 한 계원을 시켜 다시 전화를 걸게 하였다. 증정의 대답은

“지금 대리가 돈을 가지고 자동차로 떠났다.”

는 말이다. 대표들은 나와서 동무들에게 그 뜻을 전하였다.

위 아래층 사무원들도 각각

“좀 틈이 있기에 와보았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려고들 있을 것인가?”

“글쎄요. 세 시 기차로 온다니까 할 수 없이 그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 올시다.”

동권이는 추운 듯이 손을 짹짹 비비며 말하였다.

“이렇게 추운날 밥들을 굶고 밖에서.... ऐ익 참.”

정은 입맛을 짹짹 다시며 시계를 꺼내어 보더니

“벌써 세 시 십 분 전이 아닌가? 또 언제와 같이 슬그머니 늘어져서는 안 되어 모조록 끝까지....”

하고 다음 말을 계속하려 할 때 고등계 형사가 가까이 오매 그는 슬쩍 말을 돌리어

“우편국에 왔다가 여기 누구 만나러 좀 왔었네. 자 먼저 가니 천천히 오게.”

하고 그는 김과 천천히 오포산으로 올라가는 뒷문으로 향하면서 군중을 슬슬 돌려보고 간다. 네 시가 거의 되어갈 때 군중은 다시 움직이였다. 대표들은 주임에게 갔다.

“주임의 책임 여하요? 우리는 이 이상 더 기다릴 수가 없소. 둘로 만든 사람이 아닌지라 춤기도 하려니와 배도 고플뿐더러 교활한 그대들의 수단을 생각하니 더 참을 수 없이 감정이 폭발되오. 이제도 우리에게 변명할 말이 있소?”

동권이는 힘 있게 들이대었다. 북천이는 머리를 득득 긁으며

“오늘에는 내라도 꼭 주선해서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현재 수중에 사백 원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며 네 사람을 본다.

“안돼요 안돼. 다 내어야 하오.”

병수는 주먹을 흔들며 반대하였다.

“아니 세 시까지 온다던 중정이는 어찌 되었기에 또 탄말이요?”

동권이는 다시 질문하였다. 주임은 한 계원을 시켜 다시 전화를 걸게 하였다.

중정의 대답은

“지금 대리가 돈을 가지고 자동차로 떠났다.”

는 말이다. 대표들은 나와서 동무들에게 그 뜻을 전하였다.

위 아래층 사무원들도 각각 돌아가고 어느덧 전등도 켜지었으나 북천

이는 군중의 기본을 아시고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종일을 굶으며 찬 곳에서 기다리는 그들은 이제는 순사나 형사의 만류도 듣지않고 떠들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소리가 뛰하고 나며 정문으로부터 악마의 두 눈같은 전등불을 가진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다가 소리치며 마주 달려가는 군중을 보자 딱 멈추며 키가 자그마하고 뚱뚱한 사람이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북천이와 중정대리는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오늘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현금 육백 원만 가지고 왔으니 먼저 받으라.”

하였다. 군중은 다시 동요하였다. 북천이는 기침을 한번 크게 하며 소리를 높여

“떠들어서는 안 된다. 하여간 오늘 안으로 얼마든지 지불하게 되는데 왜 떠드느냐?”

하며 힐책하는 듯한 어조다.

“아니다. 네가 말하기를 오늘 안으로는 책임지고 전부 지불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전부 지불을 승인한 것이었고 일부의 지불을 서약한 것은 아니었다.안된다. 대중을 속이려고만 하는 너의 수단을 모르는 바는 아니로되 이렇게까지 속인다는 것은 너무나 지독하지 않으나,전부 지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야경할지언정 부청과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렁찬 목소리로 연설하는 듯이 힘있게 부르짖는 소리가 동권의 소리임을 알자 그들은 일제히

“웁다. 안된다 안되어. 전부 지불이다. 사람을 밤중까지 기다리게 하고 이것이 무슨 개소리냐. 차라리 내놓고 도적놈처럼 떼어먹어라.”

하고 소리소리친다. 중정대리는 의외의 강경한 노동자 측의 태도를 보고 북천이와 먼저 대리와 무어라고 한참 하더니 키 큰 먼저 대리가 군중의 앞에 와 허리를 굽실굽실하며

“여러분 참 면목이 없소이다. 오늘 전부를 지불한다는 것이 피해지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먼저 전표를 많이 가진 사람부터 받으며 삼 일 이내로 꼭 전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쫓다.

“안된다. 너희가 어떠한 말로 달랠지라도 곧이들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너 달 동안 굶어가며 외상 일을 하여왔고 서약 이후 닷새동안 또한 오늘 종일을 이와 같이 추운 밖에서 이 시간까지 몇 번이나 양보해가며 기다린 것이 아니냐. 아무리 철면피의 너희이기로 너무도 지독한 사기수단이다.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전부를 지불하여라.”

동권의 소리는 다시 외쳤다. 균중도 따라 소리쳤다. 한동안 강경히 반항다가 너무도 돈에 주리고 시달린 그들은 전표 적은 사람부터 받겠다는 조건하에서 두 사람의 중정대리를 데리고 그들의 삼조 노동조합 사무실로 향하였다.

동권이는 양보하게 된 것을 홀로 눈물이 나오도록 분해하였다.

이를 갈고 주먹을 쥐며 그는 마음에게 맹세하였다.

그날 밤 육백원의 지불을 받기 위한 삼백명의 노동자들은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대리며 감독과 십장들이 아무리 권력을 쓰려 하였으며 그들은 선후를 다투느라고 몇 사람의 머리가 깨어지고 옷이 찢어지며 서기가 얻어맞고 바뀌는 등 돈 때문에 일어나는 한 비절 참절한 광경이 연출될 때 동권이는 뒤에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며 현 사회제도를 저주하였다.

삼 일 이내에 전부 지불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무기로 가지는 대중기만의 한 때 수단이었고 근 보름 동안이나 걸리어 나머지 팔백 원의 임금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중정이와의 청부계약은 표면 해약이 되고 이견이가 그 뒤를 이었다. 이견이는 더욱 수단이 교묘하여 밀가루 몇 부대만 대어주면 말없이 일 잘하는 청국 노동자를 칠십명이나 사용하였다.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다. 남포와 곡괭이질로 파내는 흙과 돌로 정거장 앞 바다를 매축하느라고 삼부의 철로는 바다로 향하여 놓이었다. 동권이는 보통학교 후면 공사지에서부터 학교 앞을 지나 고무공장, 시장 등지를 뚫고

지나는 구루마에 철로 타는 일을 하는 동안 꽃 지는 봄과 잎 피는 첫 여름도 지나 칠월이 되었다.

그 동안에 남포에 해 받은 사람과 집이며 구루마에 친 사람의 수효가 많이 있었다. 그 중에는 과부 떡 장사가 떡을 해서 이고 팔기 위하여 막 나가려는 판에 지붕위로 넘어오는 돌에 치어 넘어지며 떡은 개천에 빠지고 그는 발이 종신 병신이 된 일이 있었고 여덟 살 된 독자 아이가 구루마에 치어 두골이 기이 상한 일까지 있었다. 그들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동권이 감독에게 격렬히 반대한 일이 있는 후로부터 감독은 동권을 미워하였다.

폭양이 미런스럽게 내리쬐이는 한낮에 하루에 몇 번씩 왕래하는 구루마 일을 하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흙과 돌을 가득히 싣고 손잡이를 톱 잡은후 쪽 내려다가 커브를 슬쩍 돌아 내려갈 때에는 더욱 때인 만큼 시원하고 유쾌한 맛이 그럴 듯하나 빈구루마를 돌이서 밀고 팔정이나 되는 쇠길을 걸어 돌아올 때는 내려 갈 때 시원한 맛 몇배의 심한 고역이 되는 것이었다.

동권이는 구루마 위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쾌활하게 웃고 목례하며 지나갔다. 정의 아내를 세 번 보았고 용희도 두 번이나 보았다. 흙땀에 착 달라붙은 잠뱅이를 입고 밀대 모자를 쓴 흙빛 같이 검은 동권이 청국 노동자와 함께 구루마를 밀고 오는 것을 보고 용희는 그날 밤에 잠을 못자고 울었다는 말을 희순에게서 들었다. 희순이도 일부러 그 계모의 눈을 속여 흙 싣고 내려가는 자기 오빠를 보러 갔다 와서는 오빠가 올 때까지 울고 있는 것을 본 동권이는 두 처녀를 데려다 놓고 준열히 가르친 일까지 있었다.

며칠동안 장맛비가 계속되어 동권이는 일터에 나갈 수가 없게 되매 이러한 날을 이용하여 읽고 싶은 책을 읽으려 하였으나 비 오는 날은 아버지조차 놀게되니 계모의 잔소리가 더 심할 뿐 아니라 무덤기는 한데 좁은 방안에 네 식구나 들어앉아 있을 수도 없어 그는 책을 들고 병수의 한바로 갔다.

한바에는 고역에 지친 그들이 낮잠을 자느라고 좁은 방 속에서 발을 맞춰 누어 코를 골고 있으며 다른방에는 잡담하는 자도 있고 벼동벼둥 누어 육자배기 가락을 길게 빼어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동권을 보고 반가이 웃으며

“우리 선생님 오시는가. 어서 들어오게.”

하며 다투어 자리를 내어준다. 동맹파업 이래로 그들은 동권을 유일히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어 작은 일이라도 동권의 의견을 물으며 그의 말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청종할 만큼 신임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자네는 비 오는 날이면 꼭 책을 가지고 다니니 제갈량의 호풍환우 하는 비결 책이나 되는가?”

서당 선생 노릇을 한 일이 있었다는 나이 지긋한 나주 사람이 농담 비웃어 말한다.

“참 나는 자네가 책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제일 부럽네. 저렇게 책이라도 마음대로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보통학교 삼학년에서 퇴학하였다는 병수는 부러운 듯이 말하며 동권의 책을 잡아당기어 박혀진 사람을 손가락의 짚으며

“이 사람이 누군가? 이마가 벗어진 듯하니 참 잘났네.”

하고 동권을 쳐다본다.

“그 사람의 이름이 부하린이라고 하는데 저 아라사 사람이지요. 우리 같은 노동자의 제일 친한 동무가 선생인줄만 아시오.”

“부하린? 부하린? 이름도 별스런 이름이 다 있다. 거 유물사관이라고 썼네 그려.”

하며 나주 사람이 몸을 좌우로 가만가만히 흔들고 앉았다. 동권이는 비 오는 날이면 이렇게 여러 한바를 방문하여 알아듣기 쉬운 말로써 잉여가치의 이야기로 하여 계급적 초등지식을 넣어 주기에 남모르는 힘을 써왔다.

오늘도 무슨 이야기나 좀 하여 볼까 하는 차에 점심이 되었다고 한다. 세상모르고 자던 사람들도 어느틈에 일어났는지 검고 누르스름한 밥 한

사발과 소금에만 절인 무 몇 쪽을 담은 접시 하나씩 들고 들어온다. 병수도 자기 밥을 가져오며

“동권이 좀 떠먹어 보려는가?”

한다.

“아니 별 소리를 다 하오. 나는 지금 막 먹고 왔으니 어서들 잡수시오.” 동권이는 좌우를 돌아보며 권하였다.

“그것도 일할 때는 모르겠더니 자고난 입에라 그런지 밥이나 반찬이나 너무 하잔하네.”

한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며 불평을 말한다.

“그거도 십 전씩이니 놀면서도 삼십 전씩 까먹는 생각해서 참아두게. 김치나 좀 담가주면 좋겠네. 항상 이것만 먹으니 진저리가 나네.”

하고 한 사람이 무쪽을 집어먹는다.

“참 말이 났으니 말이지 너무 비싸다니께.... 종일 벌어도 잘난 이 밥 값밖에 못하고 게다가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외상까지 지게 되니 참 소위 생불여사로군.”

하고 나주 사람이 한탄한다. 이 사람은 옥편이라는 별명을 듣는 만큼 문자를 잘 쓰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렇게 한탄들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생각이 있어야 한단 말이오.”

한마디를 남기고 동권이는 일어서 한바를 떠났다. 아까보다는 비가 더 쏟아지며 공사하다가 둔 하수도에 누른 물이 폭포 같이 기운 좋게 내려간다. 동권이는 정의 집에 또 물이 났겠구나 생각하며 발길을 정의 집으로 돌리었다. 파란 칠한 유리창을 열어 제치려니까 문이 안으로 걸리어 있었다. 그는 다시 문을 똑똑 두드렸다. 그제야 안에서 미닫이 소리가 나더니

“누구?”

하는 소리가 나며 잠깐 지체하다가 문을 연다.

“아아 동권인가? 이 빗속에 웬 일인가?”

“오늘은 안 가지었습니까?”

동권이는 우산을 세우며 말하였다.

“응 몸이 좀 불편해서.....”

하며 정은 깔아놓은 요 위에 앉으라고 권하였다. 미닫이를 모조리 닫고 다다미방 한편 구석에 책상을 놓았으며 그 밑으로 요를 깔아놓았다. 아마 무엇을 썼나보다 생각하며 동권이는

“정해는 할머니에게서 아니 왔습니까?”

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온돌방과의 사이 문이 가만히 열리며 정해의 작은 고개가 내다본다.

“아빠가 이놈 해. 가면 못 써 아빠가 매 때려.”

하며 셋별 같이 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납작스름한 작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누구에게 향하는지도 모르게 말한다. 정해의 머리 위로 정희의 아내의 탐스러운 얼굴이 나타나며

“서군 오셨소? 이리 들어오지요.”

하고 자기 남편의 눈치를 살핀다. 남편은 동권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왔다. 어린 아기가 곤하게 잠들어 있다. 정해는 동권이가 다다미방에 두 고온 책을 가져와서

“아찌 이거 부하린 부하린이어.”

하며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아하 참 용하다. 어째 그걸 다 알까?”

하는 칭찬을 듣고 정해는 손가락을 들어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저거 레닌, 레닌이어.”

레자를 길게 빼어 고개를 앞으로 내미며 말하는 정해를 동권이는 귀여워 못 이기는 듯이 안으며

“아이참 어찌면 그렇게 잘 알까?”

하고 정해를 들여다보더니 자기 책 속에 끼어 놓았던 책표를 빼어 그 위에 박히어진 사람을 가리키며

“이것은 누군고?”

“이것은 막츠.”

하고 얼른 대답한다.

“세 살 먹은 게 어찌면 이렇게 영리할까요?”

하고 미소를 띠고 있는 정의 부부를 돌아보다가 다시 정해에게

“누가 가르쳐 주든?”

하니까

“엄마가.....”

하고 동권에게서 일어나서 엄마에게 가서 안기며

“내가 아찌 보고 막츠 기어.”

한다.

“어디 에이 삐 나 해보아라.”

아빠가 말하니까 정해는 에이 삐 하며 끝까지 하나 틀리지 않게 발음한 후에 하나 둘도 일어와 영어로 열까지 다 해아렸다. 그리고 나서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 나 비스킷 줘.”

하고 두 손을 겹쳐 놓는다. 엄마는 일어나 비스킷을 내어놓고 동권에게도 권하였다. 밖에서 푹푹 소리가 나자 정은 나갔다.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며 가만가만히 말하는 소리도 나다가 손은 가고 정은 다시 들어왔다.

“비가 하도 오기에 혹 또 물이나 안 드는가 하고 와보았습니다.”

“글세 펍 걱정이 되는구먼, 인제 있다가 저녁때쯤 또 들겠지. 저 보아 곧 넘치겠는데.”

정의 아내는 뒤 미닫이를 열고 개골창을 가리킨다. 동권이와 정도 일어서 본다.

“물이 들면 무슨 걱정이요. 내가 다 피내어 주는데. 자기는 까딱 앓고 화풀이나 하고 있으면서....”

정은 아내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말한다.

“말은 좋지. 누가 할 말이요? 내가 죽는다고 혼자 하면 마지못해 하는

척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애교 있는 웃음을 보이며 눈을 흘긴다.

“엄마, 아빠 밍다 응.”

엄마의 눈치를 췌 정해는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의 편을 든다. 어린 아기가 깨었다. 가난한 살림에서도 항상 화기가 뚝뚝 듣는 이 가정을 동권이는 오기만 하면 떠날 마음이 없되 어째 오늘은 자기가 있는 것이 무슨 방해나 되는 듯하여 만류도 듣지 않고 정의 집을 나왔다. 문을 나올 때 정은

“일간 한번 오게.”

하고 뒤에서 소리쳤다.

각색 과실과 참외, 수박이 밤과 낮으로 길거리에서 썩어나는듯 싶게 한창 흔하였으나 제법 수박 한 통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 노동자들의 여름은 지나가고 추석도 멀지 않은 구월 십팔일이 되었다. 동권이가 아침 여섯 시에 시작하는 일터에서 흙과 돌을 가득 싣고 첫 구루마를 타고 내려갈 때 보통학교 앞길에서 구루마 통행을 기다리고 서 있는 정을 보았다. 언제나 학생 시절의 교복만을 걸치고 새벽이면 항상 산에서 돌아오는 정을 여러 번 보았으나 온 여름을 줄곧 겨울 양복과 겨울 모자로 지내온 정이 오늘도 그 양복 그 모자에 벵타이까지 매고 나선 것을 보면 어디 급한 출입이나 하지 않는가 하여 다시 돌아보다가 깜짝 놀란 동권이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였다.

그것은 고등계 형사 한 사람이 정의 뒤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경찰서에서 데려가는 것이나 아닌가 하여 동권의 가슴은 공연히 두근거리기 시작하였다. 구루마가 고무공장의 모퉁이를 돌아올 때 저편 길로 고등계 형사 네 사람이 정의 집으로 향한 길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다리의 힘이 없어지며 떨리기까지 하였다. 심술궂은 일본 형사 둘과 조선 형사 둘이 좋은 수나 난 듯이 달려가는 것을 본 동권이는 정의 아내가 어린것들과 얼마나 놀랄까를 생각하고 구루마에서 뛰어나

려 곧 달려가고 싶었으나 그러한 용기도 나지 않았다.

두 번째 구루마가 내려갈 때 정의 아내가 옥색 양산을 높이 들고 책을 잔뜩 묶어 들고 서있는 형사 두 사람과 구루마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권을 보자 반가운 듯이 쳐다보며 눈짓하는 것을 보고 동권이는 더욱 놀라 가슴을 태우며 안타까워하다가 겨우 점심시간을 타서 정의 집으로 달려갔다. 정의 장모는 아기를 업고 있다가 동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조차 잡혀 간 지가 이태나 되었는데, 아침에 일본 것 하나 하고 조선 것 하나 하고 둘이 와서 막 집안을 뒤지더니 딸을 데려갈 터이니 가서 아이들을 보라고 하기에 그만 다리가 덜덜 떨려 겨우 와서 보니 온 집안이 이 모양이로구나.”

하고 그는 난리 난 뒤끝 같이 함부로 뒤적이고 흘트려놓은 고리짝들이며 문까지 떼어놓은 일본식 벽장과 두 방을 가리키며 눈물을 썼다.

“그래 아이 어머니 그제야 세수하고 머리 빗고 아이 젖 줌 주고 저 놈들하고 갔는데 이때까지 아니 오니 애기는 보채며 울고 어멈도 밥도 안 먹고 갔으니 아이구 저놈들이 어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서 내가 죽어야 이런 꼴을 안 볼 것인데...”

하고 소리를 내어 느끼니까 정해도 따라 온다.

동권이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다. 아들과 딸과 사위를 경찰서에 들여보낸,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 노인이 젖 달라고 울며 보채는 어린 손자를, 허리를 구부정하고 어르며 정해를 달래다가 자기도 다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동권이는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생각하고 주먹을 부르쥐며 별떡 일어났다.

“너무 근심 마십시오. 정선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선생은 곧 오실 것입니다.”

하고 뛰어나오려다가 다시 안으로 향하여

“이따가 밤에 또 오겠습니다. 일 하다가 와서.”

하는 소리를 남기고 일터로 뛰어갔다. 오전 동안에는 힘이 없이 가슴

을 태우는 동권이 오후에는 씩씩한 전대로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였다. 지루하게 기다리던 오후 일곱 시가 되자 그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옷을 바꾸어 입은 후 저녁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정의 집으로 걸음을 바삐 하였다. 유리문을 드르륵 열자

“누구?”

하며 바삐 나오는 사람은 행여나 자기 남편이나 아닌가 하고 바라는 정의 아내다.

“아이고 김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러.”

동권이는 이때 같이 김이 반가운 때가 없었다.

“인제 곧 나왔지. 어서 올라오시오.”

하고 그는 아기를 안은 채 앞서서 안으로 들어가며

“싱거운 자식들 공연히 종일 앉혀놓고 말 몇 마디를 물으면서 공연히 내 아들 배만 굶렸지.”

하고 어린애 뺨에다 자기의 뺨을 댄다.

“참 아기 젖은 어쩐어요? 인제야 먹었나요?”

“글쎄 열두 시가 되기에 몇 번이나 청해도 네 시까지 아기를 안 데려다 주는구려. 젖 먹은 지가 여섯 시간이 넘었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애를 태우시며 아이가 보채는가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있어야지. 막 들이대었더니 고등계 주임이 그제야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정해 데리고 있는데 일곱 시가 되니까 내일 오라고 슬그머니 내보내는구려.”

그는 분이 나는 듯이 소리가 높아진다.

“정선생은 못 보셨지요?”

“글쎄 분해 죽겠소. 고등계실에서 애기를 업고 뚜걱뚜걱 내려오는데 보안계실 한가운데 의자에 와이셔츠만 입고 얼굴이 빨게서 가만히 앉았는데 머리까지 형클형클 함데다. 그런데 밥집 아이가 담뱃재떨이 같은데다가 밥하고 무쪽하고 담고 똑사발에 멀건 물 좀 떠서 그 앞에다 놓아주겠지. 그는 나를 보자 깜짝 놀래서 서로 쳐다보고 망설이다가 그냥 나오는데 내가 돌아다보니 자기도 가만히 돌아다 봅데다. 말이나 몇 자리

하고 나올 텐데 그냥 나와서 생각할수록 분해 못 견디겠소.”

그는 자기 남편의 그때 태도를 그리는 듯이 천정을 떨거니 바라본다. 동권이기도 그때 가보았던 경찰서 보안계실과 고등계 주임의 인상이며 아침에 정이 말없이 자기를 눈주어 보던 그 침착한 태도를 연상하면서 잠자코 앉아 있었다.

목포에는 그간 세 번째나 격문사건이 있었다. 메이데이와 반전데이와 국제 무산청년데이 이 세 날을 기념코자 시내 각 학교 공장과 각 요처에 과격한 선동 격문이 산포되었다. 그 내용의 심각한 것이라든지 산포 방법의 극히 교묘한 것이라든지, 재래 목포 운동자의 소위가 아니고 타처에서 들어왔던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고등계에서는 혈안이 되어 표면 운동자는 모조리 잡아다가 이십여 일 혹은 십여 일씩을 검속 취조하였으나 결국 헛일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세 번째 일이 났을 때에는 운동자 외에 외국에만 갔다 온 자이면 누구든지 잡아가는 통에 정의 친구인 김까지 검거되었던 말을 정에게 들었다. 그러자 구월 십팔일에 정마저 잡힌 것이다. 정의 검거된 몇 날 후에 검속된 자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여 정의 처형까지 마지막 석방이 되고 그 동안 목포신문에는 몇 번이나 격문사건의 기사가 나는 동시에 정의 가정을 비웃는 말까지 있었다.

시월 구일-이 날은 정을 주범으로 한 격문사건의 혐의자 육 명이 자동차 두 대에 나누어 송치되는 날이다. 오랫동안 갇히어 창백해진 자기 아들이 쇠사슬에 묶이어 가는 것을 본 그의 부모들은 재판소 마당에서 울며 몸부림하였다. 정의 아내는 정해를 데리고 아기는 업어, 지독한 고문에 변형까지 된 자기 남편의 말없는 주목을 받으며 자기 역시 마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날 신문에는 격문사건의 발단이 한 장의 연애편지라는 제목 하에서 김이라는 자의 실책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동권이는 정을 잃어버린 후로는 자기의 온 몸을 지지하고 있던 골격이 부서진 듯이 마음을 지탱할 수가 없었다. 자기의 매일의 노동은 한 무의미한 호구의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밤이면 가끔 정의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나 돌연한 정 의 입감으로 그의 아내가 어린것들과 생활난에서 허덕이는 것을 볼 때에는 항상 자기의 무능력한 것을 한탄치 않을 수 없으리만큼 언제나 무거운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것이다.

연발되는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글의 내용을 보고 목포에서는 정 이되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것처럼까지 구체화할 줄은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언젠가 비 오는 날 그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의 정 의 태도라든지 새벽에 산에서 돌아올 때는 그 먼저 몇 사람의 청년이 하나씩 내려오던 것이라든지 밤 아홉 시 경에 보통학교 마당에서 세 번이나 만났을 때마다 항상 김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이라던 지를 이제 생각하여 보면 의미 있게 생각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니나 그때는 어떻게까지 할 줄은 짐작 못하였던 것이다. 정 이 반드시 동권이에게 시키었을 만한 일이어늘 감쪽같이 빼어놓은 것은 자기의 무자격한 탓이라 생각하매 몹시도 섭섭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동권이는 이곳을 떠나서 자기 역시 당당한 일꾼이 되어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십일월 하순 만 일 년만에 하수도공사는 완전히 끝을 마치었다. 뒷개에서부터 보통학교 뒤로 김장자의 대궐 같은 뒷담을 감돌아 유달산 록의 허리띠와 같이 목포의 하수도는 굉장하였다. 최후까지 일을 계속한 이백 명의 노동자들이 흩어질 때는 그림던 처자를 만난다는 기쁨보다도 눈 날리고 꽃 피며 푸른 그늘 가을달이 번갈아 가고 오는 일 년 동안 공동의 이해에서 같이 일하고 함께 싸우며 동고동락하던 동무들의 우정을 떼기를 더 어려워하였다. 혹독한 추위와 폭염에 배를 주리고 뼈가 닳아지고 살이 깎이도록 일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어던가? 그들의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처자들에게 가지고 갈 것은 빈주먹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동권에게서 받은 선물이 있었다. 떠나는 그들 중에는 동권이와 장래의 투쟁을 언약하는 뜻있는 굳은 악수를 교환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희순이의 결혼 날이 십이월 오일 이라고 희순이 모녀는 빨래와 다듬이질로 한동안 일삼다가 이제는 밤낮으로 바느질하기에 눈 뜰 사이도 없이

바빴다. 희순의 남편 될 사람의 선물인 장롱과 경대가 윗목으로 자리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띄면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공사가 끝난 후부터는 편들편들 놀며 공밥을 먹는다고 계모의 잔소리는 몇 배가 늘었다. 동권이는 한시도 집에 있을 수가 없이 하루 바빠 떠나고 싶으나 그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밤에는 남의 집에 가서 자고 조석이면 밥을 얻어먹으려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추근추근한 것이냐? 현재 그에게는 정의 아내 이외에 절친한 사이도 없었고 밤이면 잠을 붙여 자는 그 동무도 마음에 싫은 자였다. 더구나 며칠만이면 희순이가 집에서 없어진다는 것-이것은 그의 유일한 위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이 가장 괴로웠다. 그의 마음을 머무르게 할 만한 것은 이곳에 용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용희 역시 어려운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권이는 계모에게서

“용희를 욕심내던 당시 권력가의 대학생아들이 있어 용희 부모에게 청혼하니 부모는 허락하고자 하나 용희가 저사하고 듣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가 딴 곳에 마음이 있어 그러지나 않는가 한다.”

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언젠가 용기가 보니까 용기 집에서 저 자식하고 용희하고 둘이만 놀더라 하더라고 용기 어머니가 저놈을 의심한단 말이여. 창자 빠진 놈 그래도 사내자식이라고 계집애는 욕심내던가 부구만, 정신 차려 남 못할 짓 하지 말고... 네까짓 것이 가당이나 하나?”

하고 소리 지르니까 희순이가 방 속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핀잔주다가 계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얻어맞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동권이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희순의 혼인날 그 집에 사람 없는 틈을 타서 겨우 용희에게 만나자는 뜻만을 통하니까 용희는 닳새 후면 자기 집에 아무도 없을 터이니 그날로 정하자고 대답하였다.

닷새 후에 그는 용희의 방에서 용희와 마주 앉게 되었다. 삼월에 이 방에서 만날 때는 까닭 모르게 기쁘기만 하더니 웬 일인지 오늘밤은 그날

과는 별다른 감정과 기분이 두 사람을 지배하였다. 동권이는 계모에게서 들은 말을 다하고 그것이 사실이나 물었다. 용희는 말없이 고개만을 까딱이여 보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용희는 반대하오? 당자기 그만하니 용희에게는 그만한 행복이 없을 터인데....”

“나는 그렇게 사랑 없는 결혼은 할 수 없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한다.

“교제하여 가노라면 사랑은 생기지. 처음부터 어떻게 사랑이 생기오?”

“누가 교제 아니 해보았나? 알고 나머지지. 저 책은 다 누가 사 보낸 것인데 그 녀석이 저 혼자 미쳐서 사 보낸 것들이지.”

동권이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무엇? 교제해 보았어? 이것 보아라. 책까지 사 보내 주었다? 옳지, 옳지 그래 내 짐작이 옳구나.”

하고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어느 틈에 교제까지 해보았소. 참 용희도 무던하신데. 대학생과 교제까지 해보고... 그래 편지 내왕도 물론 있었겠구만.”

하는 그의 말은 비꼬는 어조이었다. 용희는 고개를 들어 한참이나 동권이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그렇게 비웃을 것까지 무엇 있소? 우리 먼 촌 고모 되는 사람의 시아제인데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지 편지 내왕은 다 무어야, 저 혼자 용기 이름으로 책만 보냈지.”

하더니 다시

“그만 두어요. 그 입에서 그러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소. 누구 입으로 사랑하네 마네 해놓고 또 누구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며 그는 동권이를 똑바로 쳐다보다가

“아마 이제는 사랑이 식었는 게지. 그만두어요.”

하고 흘겨보는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 동권이의 가슴은 울렁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용희의 손을 잡아끌며

“용희! 이만큼 와요. 그러면 어찌겠단 말ियो?”

하고 용희를 들여다본다.

“글세 왜 물어요?”

하고 잠깐 가만히 섰다가

“나는 서동권이라는 사람에게 내 사랑의 전부를 바쳤을 뿐이요. 그 사람외에는 나의 남...”

그 뒷말이 나오려다가 깜짝 놀래며 고개를 수그린다. 동권이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쉬며 잠잠하다.

“용희! 전에도 한 말이지마는 우리의 사랑은 현재의 우리 정세에 합할 수 없지 않소.”

“왜요? 참 그것은 숙제로 두었지. 왜 불합당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며 펄박하는 듯이 물었다. 동권이는 용희의 그 태도를 귀여운 듯이 내려다보며 천천히 그리고 힘 있게 말하였다.

“글세 생각해 보면 알지 않소?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랑이 어찌 합당한 사랑이겠소. 내가 내 몸 하나로 변변히 처리 못하는 못난인데 어떻게 용희까지.... 무어 나는 아무리 생각했자 열에 하나도 좋은 조건이 없으니 영원한 사랑을 계속 할 수 없다는 말ियो.”

“결혼만 하면 좋은가? 사랑만 하면 그만이지.”

“그런 막연한 말이 어디 있소? 항상 하는 말이지마는 인제 그런 생각 방법은 하지 말아요. 결혼은 아니 해도 사랑만 하면 그만이라니 그런....”

“아니 나도 알아요. 그것은 공연한 말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머니는 이번 동기 방학에 그자가 나오면 혼인해 버리겠다고 지금 야단들인데....”

“무어 문제가 그렇게 급하게 되었는가? 단단히 욕심이 나시는 모양이로군.그러니까 어머니 말대로 하구려.”

“또 그런 말을 해. 참 기막혀 죽겠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존경할 수 없는 자와 결혼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용희!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못되오.”

“응?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동권을 쳐다본다.

“글세 어디로 가든지.”

“그러면 나도 가지.”

하는 용희의 눈은 반짝인다.

“될 말인가. 나는 내 일이 따로 있어 가는 게야.”

“나도 같이 일하러 따라가지. 희순이가 시집으로 갈 때 우리는 결혼한 후에도 언제든지 오빠와 같이 일하자고 내 손을 잡고 그러던데...”

“그렇게 문제는 쉽게 되지 못하는 것이오. 내게는 지금 한가한 결혼 문제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를 따라가겠다는 여인을 앞에 앉혀놓고 이러한 말을 하는 동권이는 십구 세의 청년으로는 지나칠 만큼 그의 머리와 의식이 단련되었고 동권의 이러한 이지적 태도와 성격에 용희는 더욱 열복하는 것이다.

“나는 용희를 애인보다도 한 동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희 같은 유망한 여자와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더구나 없소. 그러나 정세가 허락하지 않는 데야 어찌하겠소. 만일 용희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면 용희 스스로 용희 자체를 개척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그렇지 않소 응? 용희!”

그는 용희의 어깨를 안으며 말하였다. 용희는 그의 가슴에 엮터지며 눈물지었다.

“내 일평생 사랑하는 용희”

그는 속으로

“이것이 이별의 포옹이다. 언제 다시 만날 줄 알라.”

하매 더욱 뜨겁게 힘껏 안으며

“어서 하로 바삐 떠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

고 생각하였다.

내일 떠나기로 결심한 동권이는 금년의 처음 추위인 쇄골 바람에도 겁 내지않고 일 년 동안 자기보다도 삼백 명 동무들의 노력으로 된 하수도

를 굽어보며 그 언덕을 걸었다. 초승달이 유달산봉에 걸리어 고향의 마지막 밤을 지내는 그의 가슴을 홀로 알아주는 듯이 내려다본다. 그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뒷개로 향하여 걸어온다. 이 굉장한 하수도를 보는 자, 돈과 문명의 힘을 탄복하는 외에 누가 삼백 명 노동자의 숨은 피땀의 값을 생각할 것이며 죽교의 높은 이 다리를 건너는 자 부청의 선정을 감사하는 외에 누구라 이면의 숨은 흑막의 내용을 짐작이나 하랴. 동권이는 이러한 생각으로 흥분하여서 못(원래대로)한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추운지도 모르고 발을 돌려 정희의 아내가 살고 있는 셋방 동창 앞에까지 왔다. 방안에는 정희의 창가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항상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며 가르치던 메이데이의 노래다. 정희도 이것만을 부르려면 작은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그의 아내는 정희에게 항상 이 노래를 불린다.

기계 방고꾸노 로-도-샤도도로끼 와다루 메-데-노
 시야샤니 오꼬루 아시도리또 미라이오 쯤구루 도끼노 고테
 (들어라, 만국의 노동자. 올려퍼지는 May-day의
 힘차게 움직이는 발걸음과 미래를 만들 때의 소리 - 편자 주)

정희의 어린 목소리가 힘껏 소리쳐 부르는 소리를 모진 바람이 휩싸 지나간다.

그 집 대문 앞을 지나 높은 잔등에 올라 멀리 바라보았다. 검은 별판은 가없이 열렸는데 정미장에 조는 듯이 서있는 전등불 조차 바람통에 깜박이는 듯 멀리 감옥 편을 바라보니 크고 큰 함굴이 있는 곳이나 같이 킁킁하고 음침한 기분이 떠돌았다.

“저 속에는 나의 오직 신임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그의 모든 자유를 잃고 갇혀 있어구나. 그는 아내와 면회할 때 내 말을 뜻있게 묻더라하니 오! 정희여 나는 그 뜻을 아나이다. 그대가 감옥에서 나올 때 나는 그대가 믿을 수 있는 한 동지가 되어 기쁘게 맞으리다.”

그는 킁킁한 곳에서 주먹을 들고 맹세하였다. 눈발이 펄펄 날리기 시작한다.

그 이튿날 첫 눈은 목포 시가와 산, 들에 고르게 쌓이며 내리는데 용희는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모든 객관적 정세가 나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곳을 떠나고야 만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나도 종시 사람인지라 어찌 한 줄기의 별루가 없으라마는 나는 보다 더 뜻있는 상봉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군이 만일 나의 뜻을 알고 나를 사랑할진대 그대 스스로 모든 환경을 돌파하고 자체를 편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군세인 벗이 되어지라. 오직 바라는 바이니 원컨대 오직 끝까지 건강하라.

1931.12.13. 떠나는 동권

애인의 주고 간 글을 읽고 또 읽던 그는 동창 미담이를 열었다. 나비같은 눈송이가 펄펄 춤을 추며 날린다. 그는 빛나는 눈으로 내리는 눈발을 쳐다보며 애인의 유혼을 생각하고 생각한다. 눈은 말없이 쌓이고 쌓인다.

■ 혈어진 청년회관

★ 이 작품은 청년문학1934, 창간호에 실릴 예정이었으나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한것을 김기진이 원고를 간직했다가 해방 후 박화성에게 전해주었다. 청년문학 창간호에는 다른 시인의 시 <혈어진 청년회관>이 대신 실려 있다.

뜰 아랫목 구석에 웅승크리고 누워자던 효주는 꿈에서 후다닥 놀라 깨었다.

양철 지붕이 바람에 날려갈 듯이 덜커덩 덜커덩 하고 들뜨는 소리가 들렸다.

효주는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성냥을 더듬어 찾아서 불을 그었다.

책상위에 있는 사발시계의 작고 큰 두 바늘은 함께 두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느라고 놓아둔 큰 양철통이 윗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쓸쓸하게 보였다.

“두시 십분”

효주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저녁때부터 일어난 바람이 밤들며 점점 더 세차가더니 지금은 두려운 폭풍이 되어 집 온통을 휩쓸어 갈듯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지나가면서 굵은 빗방울로 지붕을 때려 치는 소리와 이웃집 양철 차양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한데 섞여서 고작 가까운 꿈에서 깨어난 효주의 머리 속을 시끌 댕댕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폭풍우의 소란에서 피하르느 듯이 눈을 감고 정신을 모아 애달프게 깨어진 그 꿈을 되풀이하여 그려 보았다. 그는 오랜만에 그의 오빠의 꿈을 꾸는 것이었다.

그의 오빠는 ML당의 당원으로서 북쪽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도 맹렬한 활동을 하다가 극도의 피로와 영양 부족으로 폐병이 더하여져 병석에 누워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망명한 혁명객의 신세로 어찌 하루의 섭양인들 마음먹고 할 수가 있었으랴. 원대한 희망을 가진 그의 짧은 일생은 이십구 세를 한 세상으로 이국 찬 땅에서 원통하게 마쳐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형제라고는 단 남매뿐이었던 그의 오빠, 오직 하나의 선배이며 동지이던 그의 오빠를 잃어버린 지도 육년이나 되었건만 날이 갈수록 더욱 주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누이의 꿈에나마 그의 오빠는 자주 보여주지 않았었다.

그러하던 오빠를 효주는 꿈에서 만난 것이었다. 꿈에도 그의 오빠는 생시와 같은 위엄있는 얼굴빛과 우렁찬 목소리로 연단위에서 주의를 선전하는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장소는 청년회관이었고 장내는 만원이었는데 검은 정복의 경관들이 좌우로 버티고 앉아있다가 가끔 연사에게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다. 효주는 그 오빠의 시선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것과 무주치기를 바랐으나 오빠의 누이를 바라보는 눈초리는 냉정하였다. 효주의 안타까워하는 눈은 행여나 한 번쯤이라도 다정한 시선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오빠의 빛난 눈이 가는 곳을 따라다니고 있을 때 그의 오빠가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을 구르며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길은 위르이 약소민족과 우리 무산자가 서로 한 뭉치로 굳게 단결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가 계급에서 맹렬히 반항하여 싸워 승리를 얻는 그 길 밖에는 없을 것을 단언합니다.”

하는 순간 경관들이 그를 연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청중 가운데서
“때려 치워라”

하는 소리가 물끓는 듯이 나더니 청중이 우하고 일어나서 우당탕 연단편으로 몰려갈 때 효주는 악을 쓰며 앞장 서 가려다가 뒤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엎드러지며 그만 아깝게도 꿈은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야속한 꿈길을 안타깝게 더듬고 있는 효주의 가슴은 울렁거리면서도 쓸쓸하였다.

늠름한 그 오빠의 기상이 눈에 선하고 그의 열정에 타는 듯한 말소리, 더구나 최후의 붉은 뿔을 뿜는 듯이 부르짖던 그 소리가 귀 안에서 빙빙 돌았다.

그는 갑갑하고 빠근한 가슴을 어루만지며 꿈에서 깨어난 것이 너무도 아까워서 애달픈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는 조금 전의 꿈이 외치던 말소리를 입 속에 뇌이면서 주먹을 부르 쥐고 흥분하다가도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을 생각하고 한 가닥의 비애와 고적을 느꼈다. 윗목 양철통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처량한 감정을 한층 더 북돋워 주었다.

왁자지끈 우르르 팡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깬 효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문을 급히 열어젖히고 뒷마루에 나섰다.

역지 잠이 들었었던지 더구나 여름의 아침이라 밖은 벌써 흰하게 밝았다.

안방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건넌방에서 형님이 뛰어 나왔다.

그들은 효주의 서 있는 뜰아랫방 쪽으로 몰려왔다.

“아이머니 효주! 이것 좀 보시오. 방 한편이 헐어졌구려. 하마터면 큰 일 날 뻔했네. 아이고 원 저런 어찌면 좋아.”

하고 형님인 원주가 눈을 둥그래 가지고 놀랜 소리를 쳤다.

“너는 네 방 한쪽이 무너져도 그것도 모르고 잠만 잤더냐? 참 운수가 좋았다.

하마터면 어쩔 뻔했던고? 아이고 아슬아슬 해라. 원 세상에...”

하고 어머니는 몸서리를 치며 혀를 찼다.

“거 원참 큰일 날 뻔했다.”

그의 아버지도 입맛을 짹짹 다시면서 머리를 긁었다.

과연 뜰아랫방에 붙은 담이 무너지면서 효주의 자고 있던 그 방 윗목 쪽이 헐어져버려서 효주가 다시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을 때는 헐어진 곳으로 하늘이 다 내다 보였다.

효주는 밖에 나와서 무너진 담과 헐어진 지붕을 둘러보면서 놀람보다도 들쳐 업어가도 모를 뻔하고 자고만 있던 자기를 생각하며 쓰디쓴 웃음을 웃었다.

“고모 자는 방이 헐어졌다, 야!”

하고 오빠의 오직 하나인 아들 종현이가 언제 나왔던지 그의 어머니 앞에서 효주를 빤히 쳐다보며 해죽해죽 웃고 있다.

바람의 형세는 조금도 줄어가지 않고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들이부셔가면서 여전히 사나운 꼬리를 휘휘 갈기고 있다.

비와 바람을 잔뜩 실은 검회색 구름장이 뽀얀 바람꽃을 보이며 움직이고 꽃나무들은 서리 맞은 것처럼 잎사귀가 거의 떨어진채로 바람에 꺾이고 버리고 배나무에서는 남아있던 배가 마저 떨어져서 마당에 뒹굴고 있다.

“장마에 험뻍 젖어서 후물후물 해진데다가 이렇게 지독한 폭풍이 때려치니께 거 안 헐어지고 배길 것이냐? 이래저래 그저 없는 놈만 죽일라고 든단 말이여.”

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어 중얼거리며 안 마당으로 걸어갔다.

그들도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홍수에 피해 당한 이재민들은 모두 노천생활을 한데도 또 이렇게 폭풍우가 쳐 놓으니 대체 어떻게들 살아갈 것인가? 참 기막히는 일도 있잖소?”

하고 원주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효주를 돌아보았다.

“그렇기에 말이지요. 그 참혹한 말이야 어찌 다 하겠소? 참 형님 오늘은 꼭 부원들을 모이게 합시다. 저번에도 못 모이고 말았으니...”

“정말 그렇시다. 오늘은 나도 돌아다니면서 부원들을 몇 명 데리고 오겠소.”

원주는 힘있게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는 혁명가의 아내로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일에 대한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있었다.

효주는 부지런히 조반을 짓고 있는 원주를 바라보며 간밤 꿈에 보인 그의 오빠를 생각하면서 종현의 아침 복습을 돌봐 주었다.

부원 열다섯 사람의 다섯 사람은 원주가, 열사람은 효주 자신이 소집

의 책임을 지고 이 집 저 집으로 소집의 전달을 하면서 돌아다니던 효주의 발길은 청년회관 앞에서 딱 멈춰졌다.

헐어진 청년회관! 그는 전부터 날과 달이 지날수록 헐어져만 가는 이 집 앞을 지나다닐때마다 항상 “헐어진 청년회관”이라고 막연하게 속으로는 부르면서도 심상히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의 이 집의 모양은 과연 어떠하나? 이번 폭풍에 지붕은 아주 훌쩍 벗겨져 버리고 말았고 헐어져 가던 네 귀퉁이의 벽은 마저 헐어져 흙과 돌이 진흙탕이 된 땅 위에 가득히 쌓여있다. 효주는 멀거니 서서 그 외관을 바라보다가 발을 옮겨 빗장이 질러진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끼어있지 않는) 정문으로 집 속을 들여다보았다.

사방의 벽은 옛날 모양의 손바닥만한 자취도 찾을 길 없이 진흙덩이가 아직도 툭툭 떨어지고만 있고 높다란 유리창에는 그 어느 창문이나 작은 유리 한 장이 끼어 있기는 커녕 문틀까지 부수어져 버렸다.

이것을 바라보는 효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졌다. 그 중에서도 견딜 수 없이 쓰라린 일은 밖에는 이미 비가 개어 바람만 불건만 집안에는 아직도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의 높은 거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완연한 소낙비 쏟아지는 소리를 내며, 썩어서 꺼멥게 된 마룻바닥 위에 흥건하게 고여있는 물에는 떨어지는 물로 물방구까지 섰다가 사라지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목도하지 않고 상상만으로는 도무지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효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흘렀다.

지난 밤 꿈에 그의 오빠가 올라서서 사자후를 내 뿜던 연단은 전에 놓여졌던 그 자리를 떠나서 바로 정문 앞에 놓여진 채 흙비를 맞고 있다. 그리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썩어진 재목이 무덕무덕 쌓여 그나마도 헐어져서 마룻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다. 효주는 터져 나오려는 가슴의 표현으로 기침만 연해 하면서 감상적으로 부르짖었다.

“아! 가엾은 불행한 집아! 목포에서는 처음으로 된 모던적 건물이라고 옛날의 네 모양은 얼마나 산뜻하고 점잖았던가? 너는 항상 네 집 속에 변

화한 회의를 가졌었더니라. 너는 주야로 네 큰 정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여 맞아 들였었던만 오늘의 썩어지고 헐어진 이 모양의 참혹함이 웬 일이란 말이나?”

그의 가슴은 몽클하고 답답하였다. 그는 주먹으로 정문을 한번 탁 치면서 다시 소리쳤다.

“옳다! 너는 주인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주인을 잃은 너의 운명이매 멀지않아서 집터만 남기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은 정한 일이 아니냐.”

그는 이 청년회관의 주인들이 누구이던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일개인이 아니었다. 목포 청년들의 지덕함양을 목표로 한 청년회가 세운 집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이 집 속에서는 날로 때로 열리는 각종 합법 단체의 삶을 요구하고 해방을 부르짖는 외침이 얼마나 힘있게 울려나왔던가? 청년들의 공동의 집이오 그들을 가장 옹호한 길로 인도하며 가르치던 위대한 사명을 가졌던 이 집의 오늘의 헐어진 이 몰골의 비참함이여!”

그는 자기 오빠가 얼마나 이 집에서 많은 일을 하였던가를 추억하고 다시 어젯밤 꿈과를 연락시켜서 그의 오빠를 그려보며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흑흑 느껴가며 울었다. 등뒤에서는 지나가는 남녀 행인들이 자기를 보고 그러는지 웃고 지껄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시 집 속을 들여다 보았다.

“모든 단체는 놈들의 압박과 탄압으로 해산 혹은 해소되어 그리고 청년 동맹의 마지막 해체가 있는 후로 벌써 오 년 동안 이 집은 완전히 주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이 집이 썩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단체의 한 사람 한사람이던 청년들의 거위가 지금은 퇴폐하고 타락한 생활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는가? 어찌 목포 한 지방뿐이라? 조선 삼십도 각처에도 헐어져가는 청년회관이, 또한 썩어가는 일터와 일꾼이 얼마나 많으랴? 아! 적당하게 쓸 곳을 얻지 못하여 헐리우고 썩어가는 아까운 집들이여!”

효주의 숨결은 썩근썩근하였다. 그 순간 지난 밤 꿈의 오빠와 부르짖던 그 말소리가 귀에 울렸다. 그 뒤를 이어

“효주! 무엇을 그렇게 정신없이 보고 있소? 응?”

하는 소리가 들렸다. 효주가 돌아볼 때 그의 형님인 원주는 벌써 그의 곁에 와 있었다.

“형님 이 속을 좀 들여다 보시오.”

효주는 원주를 앞으로 내 세웠다.

“아이구 어찌면! 저렇게 까지 되어버렸을까?”

원주는 혀를 연거푸 차면서 탄식을 하였다. 아침보다도 훨씬 세가 줄어들었던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천장에서 굵은 흙덩이가 물에 섞여서 떨어졌다.

효주는 비로소 어젯밤 꿈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그가 이 집을 보고 느낀 감상을 자상스럽게 말하였다. 길가는 사람들이 두 여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지나가고 지나갔다.

효주의 감상을 듣고 있는 원주의 얼굴 표정도 긴장하고 썩썩하여졌다. 그의 눈에는 비분의 빛과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 형님! 나 자신도 험어져 가는 이 집과 다른 것이 무엇이요? 오빠의 가신 후 이년 동안은 남편의 지도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그 마저 입옥한지 사 년이 된 이날까지 내 생활은 어떠하였어요. 나는 모든 것에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었어요. 나는 봉건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통하여 받은 여성의 유약과 수동성을 실천 과정에서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움직여 주던 오빠와 남편이 없어진 오늘에 나는 힘을 잃고 방향을 잃은 평범하고 무의미한 생활에서 허덕이고 있는게 아닙니까?”

효주의 말소리는 뉘우침에 떨렸다.

“뭘 그렇게까지 무의미한 생활이라고 단정할 수야 없지 않소? 목표조차도 선명하지 못한 여성구락부라는 작은 단체의 한 부원이 되어서 가끔 일어나는 천재에 피해 당한 이재민이나 구해준다는 임시임시의 목적

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사로잡히고 친정 부모에게 조석밥의 신세 나 끼치면서 남편이 출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 자신의 가엾고 값 없는 생활을 돌아볼 때 험어진 청년 회관의 참혹한 이 광경과 얼마나 다를 것이 있습니까?”

효주의 어조는 연설식으로 되어버렸다.

“효주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지.”

원주는 힘없는 말소리를 가로 끼웠다.

“그렇지만 형님에게는 종현이를 사람답게 오빠의 아들답게 키운다는 큰 책임이나 있잖아요? 대체 나는 이대로 있다가 어떻게 내년에 출옥하는 그를 맞을 수가 있겠어요? 작년에 면회할 때도 그는 내게 뜻 깊은 시선으로 암시적 지시를 하였건만 무능한 나는 무심히 지나치고만 말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젯밤 꿈에 오빠의 나를 보던 시선이 그다지 씨늘하던 것도 아무리 우연한 꿈에서라 하지마는 나는 큰 충동과 힘을 얻게 되었어요. 형님!! 어서 잡시다.

나는 오늘 그를 면회하러 떠나겠습니다. 그를 만나서 나의 이후의 행동과 결심을 선언하겠습니다.”

효주는 원주의 등을 밀면서 청년회관을 떠났다.

“그리고 그럼 오늘밤 일곱 시에 모이기로 한 일은 어찌구요?”

원주는 근심스러운 눈으로 효주를 돌아보았다.

“그건 형님이 혼자 말아서 그들과 의논해서 하세요. 복안은 벌써 작성한 것이니까. 나는 여섯 시 차로 떠날 테니요.”

“경부선은 개통되기는 했지만... 아니 그럼 노비는 어찌겠소. 대구까지 적어도 왕복 노자와 여비에 삼 사십 원은 있어야지요?”

원주는 이런 중에서도 형님다운 잔걱정을 하였다.

“노비쯤은 내가 준비해 두었어요. 적당한 기회에 한번 가보려니 하고.”

“그럼 가보시오. 새로운 출발의 첫 걸음으로... 그리고 나 같은 약한 여성도 능동적인 강한 사람이 되게 이끌어주세요.”

원주는 그들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효주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말하였다.

원주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이른 저녁을 얻어먹고 효주는 오후 여섯 시 사십삼 분 급행 열차로 폭풍을 안고 목포역을 떠났다.

원주는 효주를 전송하고 일곱 시까지 집에 도착하도록 급한 발걸음을 떼어놓으면서 청년회관 앞을 지나갔다.

“헐어진 청년회관이 효주에게 준 장하고 새로운 과제”

원주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그 집을 돌아볼 때 정문 앞에는 뒷모양이 눈에 익은 듯한 청년이 집 속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저이도 효주와 같이 되어주었으면”

원주는 이러한 진실한 기대를 가지고 그의 뒷모양을 다시 한번 돌아 보았다.

3. 차범석

■ 산불 (1963)

(세사람은 신바람이 나서 나간다. 이때 점례가 부엌에서 초라한 밥상을 들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자 김노인의 호통치는 소리가 난다. 이때 바른편헛간 뒤에서 규복이가 조심스럽게 등장한다. 면도질을 해선지 전보다 혈색이 좋고 다리 상처도 나아가는지 전보다는 자유스럽다. 멀리서 비행기 폭음소리, 방에서 나오던 점례가 보자 낮은 소리로 부른다)

규복 : 이봐요! 점례! 점례!

점례 : (소스라치게 놀라신을 끌고 오며) 안돼요! 여기까지 나오시면---
앗! 저리 가요! 하며 헛간으로 떼밀고 들어간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서로 안은채 짚더미 위로 쓰러진다)

점례 : 앗!

규복 : (힘껏 안으며) 점례!

점례 : 지금은 안돼 할아버지가 아직 계세요! 할아버지가 마실에 나가시면 갈테니까 어서 대밭에 가서 기다려요!

규복 : 대밭 속에 앉아있으면 산속에서 지내던 일이 자꾸만 생각나서 못 견디겠어!(괴로움을 씹으며) 점례, 난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며 점례의 손목을 잡으려 한다. 점례는 주위를 살피며 뿌리친다)

점례 : 이러시면 안돼요! 어서 돌아가 계세요! 곧 갈테니까요!

규복 : (절실하게)같이 있어 줘!점례! 나하고 같이 있어줘! (하며손목을 잡아 끈다)

점례 : (이끌려가며) 예--- 가겠어요 가겠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해요!
자--- 손을 놓고 가 계세요! 곧 갈테니까---

김노인 : (방안에서) 에미야 승능을 가져와!

점례 : 부르고 있어요 난 가 봐야돼요!

규복 : 할 얘기가 있으니깐 와야돼!

점례 : 예--- 어서 가 봐요!

(규복이가 미련이 서린 표정으로 다시 대밭쪽으로 사라지자 점례는 안도의 숨을 몰아쉰다 이때 무대가 서서히 회전되면서 어두워진다)

제3막 2장

[무대배경] 무대 (대밭 속에 사람하나 들어앉을 움을 파고 짚과 가마니로 간신히 지붕으로 가렸다. 낙엽이 수북히 쌓여서 얼핏 보기엔 알아볼 수가 없다. 굵은 대가 뻗뻗하게 들어서 있어서 바깥 세상은 안 보인다. 움 앞에 큼직한 바위가 놓여 있다. 대나무 앞에 가리어서 한낮에도 음침하고 햇볕도 안든다. 무대가 밝아지며 움 속에 두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다. 말은 없지만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기색이 농후하다. 이따금 바람이 대밭을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가 으시시 한 기운을 돋운다. 규복은 점례의 허리에 손을 감고 열띤 시선으로 돌아본다)

규복 : (더 힘껏 안으며) 점례! 나를 버리지 말아 줘!

점례 : 꼭 어린애 같은 소리!

규복 : 나는 이제 비로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것 같아! 점례가 나를 대밭 속에 숨겨주던 그날부터 나도 줄곧 그것만을 생각했으니까!

점례 : 저는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규복 : 몰라도 좋아! 이렇게 둘이서 가까이만 있다면--- (하면서 더 굳세게 허리를 쫓는다)

점례 : (끓어오르는 욕정을 이겨 내려고 눈을 감으며) 아---이러지 말아요--- 이러시면--- 저는---(그러면서도 규복이가 하는대로 몸을 맡긴다)

규복 : 그래, 점례 말대로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점례를 좋아하고 있다는건 속일 수 없어! 내 생명을 구해주고 내게 잃었던 사랑을 되찾아주고 그리고---(스스로의 욕정을 지탱 못하는 괴로움이 짙다)

점례 : 그만! 그만 해 뒤요!(하며 규복의 목을 꼭 껴안는다 멀리서 까치가 운다)

점례 : 선생님---

규복 : 응? (꿈 꾸듯)

점례 : 역시 내려가셔야 돼요---

규복 : (제 정신으로 돌아오며) 내려가다니--- 나보고 자수하란 말이야?

점례 : 언제까지나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지 않아요? 다른생각일랑
마시고 자수하세요

규복 : (고민이 짙어 가며) 그렇지만 나는---

점례 : (자신을 가지며) 어때요? 선생님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끌려 다녔을 뿐인데--- 그만큼 벌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규복 : 그만큼만? 안돼 나는 살고 싶어! 나는 내려갈 순 없어!

점례 : 그렇다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규복 : 자수하면 나는 총살 당할거야! 부모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내
가 가르쳤던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보고.. 그러니! 나는 울수도 갈
수도 없는 몸이야! 점례!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대밭이고 돼지우리
고 상관없어!

점례 : 그럼 산으로 도로 올라가세요!

규복 : 뿔이! (분노가 끓어오르며) 그걸 말이라고 해? 응? 그 산이 싫어서
도망쳐 나온 나더러 다시 돌아가라니! 그놈들은 내게 죽음으로 맞
아 줄 거야! 점례! 그러니!

점례 : (자신의 고민을 억제하려고 애쓰며) 그러니 저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게 돈이 있수 권력이 있수, 학식이 있수, (울먹거리
며) 내 몸 하나도 갈피를 못 잡고 송장처럼 사는 년더러 어떻게
하라고... 난.. 아무것도 없는 몸이야요! 있는 거라곤 상처투성인
데--- (하며 느껴 운다)

규복 : (잠시 점례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알았어! 점례는 역시 내가 옆
에 있는게 겁이 나는거야--- 귀찮을테지! 싫을거야! (하며 낙엽
을 움켜쥔다)

점례 :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들어 보이며) 예? 그런 말씀 마세요!

(울먹거리며) 싫어하는 남자한테 제 몸을 내맡기는 여자도 있나
요? 예? 남편도 아닌 남자한테---

규복 : (감격하며 손목을 쥐며) 그럼 나를 살려 줘! 아니 점례만 좋다면
우리 둘이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 가! 이제부터라도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

점례 : (눈물이 글썽거리며 바라볼뿐 말이 없다)

규복 : 굶어도 좋다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지만 사는 날까지 살고
싶어! 점례! 언제 나와 같이 가겠어?

점례 : 어디루?

규복 : 아무데나---

점례 : 그렇지만 도민증이 없는걸 어떻게 가요?

규복 : 도민증이라니?

점례 : 요즘은 5리밖엘 나가더라도 도민증이 없으면 차표도 안 준대요!

규복 : 그래?---(실망의 빛이 짙다) 여기서 2백리만 벗어나가면 친구네
집이 있는데---

점례 : 그 친구가 반겨 줄것 같아요?

규복 : 사범학교 동기생이야! 아주 친한---

점례 : 그건 지난날의 얘기가 아니예요?

규복 : 뭐라구?

점례 : 선생님이 산에 들어가지만 안했던들 그 친구분도 반가이 맞아 줄
테죠! 그렇지만 지금은---

규복 : 안될까? 내가 빨갱이라고 싫어할까?

점례 : (똑바로 쳐다보며) 선생님! 제 말대로 자수를 하세요 몸소 가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규복 : 경찰서에다가?

점례 : 예--- 그리고 20일 동안 선생을 감추어 준 죄는 저도 함께 벌을
받겠어요

규복 : 점례!

점례 :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난 우리들 이 세상의 아무도 우리 두 사람을 욕하지도 건드리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규복 : 그렇지만 경찰에서 나를 살려 주지 않을거야!

점례 : 그럴리가 없어요 자수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많았대요

규복 : 그렇지만---

점례 : 그렇게 되면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수는 없으니까요

규복 : 점례! 고마워! 그럼 나도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응!

점례 : 예---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아요 비는 사람의 목은 못 벤다고 무턱대고 죽이는게 법은 아닐테니까요

규복 : 그래! 점례말대로!(희망과 고민이 교차되며) 언제나 밝은 태양아래서 고향을 지르며 살까? 이렇게 그늘에서 숨을 죽이며 살기는 지긋지긋해! 마음껏 소리 좀 질러 봤으면---

점례 : 싹! 소리가 너무 커요!

규복 : (긴장했다가) 차차--- 내 소리는 점례 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괜찮아! (하며 포옹한다) 점례! (이때 돌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바시락 거리는 소리가 나자 규복이가 소스라치게 깨어나 두리번거린다)

점례 : 무슨 소리예요? (하며 일어나서 소리나는 쪽을 본다)

규복 : 아니 왜 그래?

점례 : 분명히 사람 발자국 소리 같았어요!

규복 : 사람이? 아니 그럼 누가---

점례 : 글썽요--- 이 대밭에 들어올 사람은 없는데--- 죽순이 나오기 전엔---

규복 : 다람쥐 아니면 들쥐겠지---

점례 : (불안한 한숨을 돌리며) 이만 가 봐야겠어요

규복 : 좀더 말 동무가 되어 줘!

점례 : 집을 너무 비워 뒀어요 자리가 습하면 가마니를 한장 더 가져올까요?

규복 : 괜찮아! 아무리 불편해도 산에서 지내던 때 보다는 천국이니까! (미소를 지으며) 지금의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점례는 이해 못할거야!

점례 : 그럼 이만 가 봐야겠어요

규복 : 밤에 와 주겠소? (손목을 쥐었다가 놓는다)

점례 : 예--- 그렇지만 기다리지 마세요 야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며 걸어나가자 규복은 안타깝게 바라본다 바람이 대밭을 불어 간다)

■ 옥단어 (2003)

제 7 장

무대 앞 막에 8.15해방과 관련된 명상이 투영되어 애국가가 흘러나온다. 이윽고 만세소리가 한동안 드높게 퍼지다가 사라지며 무대가 밝아진다. 이참봉의 집, 전장부터 약 일 년 후. 초가을
까치가 운다. 집안은 이사 나간 집처럼 쓸렁하다. 대청 한구석에 초라한 상청이 차려있다.

태길이가 양지바른 곳에서 새끼를 꼬고 있다. 그옆에 타래가 동지를 틀듯 놓여 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늙고 기력도 없어 보인다. 돋보기 안경을 썼다. 서행하는 자동차 스피커에서 집화를 알리는 가두방송 소리가 흘러나온다.

소리 :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몽매에도 못 잊은 조국광복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녁 일곱시 역전 광장에서 애국 시민단체와 민주 시민들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집집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일곱시 역전 광장에서...(소리가 멀어진다)

태길 : (길게 한숨을 뱉으며) 제발...조용히 좀...살자!

인자 시끄러운 소리는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전쟁도 끝났다는디..왜..또 이렇게들....(한숨) ..지랄같은 시상 신물난다.

죽지 못해 사는 시상...(한숨을 몰아쉬며 안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낸다.

안에서 편지와 사진을 뽑아든다.)이 자식아, 어디 있는디 엽서 한 장 못 쓴다냐?

소식 끊긴지 한 해가 지났다. 남들은 모두 돌아오는데 어째서 너는...

허기사 몸만 성하다면야 기다리기는 약과지. 그런데 우체국 송금도 끊겼다니

걱정이다...

이때 완장을 찬 치안대가 A,B가 불쑥 들어선다. 손에 장부가 들렸다.

치안대원A : 실례합니다요.(인사도 건성이다.)

태길 : (멍청하게 쳐다본다.)

치안대원B : 주인장은 어디갔소?

태길 : 주인? 글썄라우...(봉투를 주머니에 넣고는 새끼를 다시 꼬기 시작한다.)

치안대원A : 어디갔소?

태길 : 피난 갔지라우.

치안대원B : 해방된 지가 언제인디 아직도 피난이여..

태길 : 참봉어른은 (상청을 가리키며) 영 가시고....

마나님은 해남 친정에 가 계시니코..빈 집이나 다름없제.

치안대원A : (뜨락을 한 바퀴 돌며) 집을 비어줘사 쓰것는디..

(하며 사랑채 쪽을 기웃거린다.)

태길 : 집을 비워?

치안대원B : (장부를 들추며) 상부지시인가? 며칠새 비워줘사 쓰것소!

태길 : 상부라니?

치안대원B : 이 집은 치안대 본부 사무실로 쓰기로 결정이 났다니 그 리 알고...

태길 : (명청하니 쳐다만 본다.) 치안대?

치안대원A : 알고보니께 민족반역자구먼 집이구먼. 도회의원 지낸...

치안대원B : 그 뿐인가 아들,사위를 둘씩이나 학병으로 내보냈으니께 친일파지 뭐여!

태길 : 그, 그건...그 무엇이냐....

치안대원A : 그 속이사 누가 알겠소? 우린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온 것 뿐잉께...

그렇게 알고 나 있웃쇼!

태길 : 그, 그런법이 어디 ...있다고요?

치안대원A : 법? 법 좋아하시는 게 반동분자 같은디? 헛헤..

치안대원B : 처녀가 애기 배도 핑계는 있겠제...잉? (A에게) 그만 가드라고!

두 사람이 건성으로 경례를 하고 사라진다. 태길도 불안감에 몸을 떤다.

태길 : 이것이 뭇 벼락이라냐? 집안에 사람이라곤 나뿐인디...

(문득 상청쪽을 바라본다. 까치가 푸드득 날아가며 운다.)

다리를 절며 천천히 마루쪽으로 가 상청 앞에 선다.

향을 피우고 영정을 덮은 천을 제치자 이참봉 영전이 나타났다. 태길이 무릎을 꿇는다.

태길 : 참봉어른(울먹이며) 이런 괴변이 어디 있겠소? 어디다 의지해야 할지...

영찬서방님도 안 계시고...옥단이도 감악소에 끌려간 후 감감소

식이고 옥...

봉춘이 놈도 소식 끊긴지가 어언 ... 흑...참봉어른!(마룻장을 치며 통곡을 한다.)

이때 한 중노인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난다. 옥단이다. 허리도 약간 굽었고 머리는 반백에다 한 다리도 약간 전다. 허름한 옷차림에 작은 옷보따리를 등에 지고 있다. 뜰 안에 들어서자 굽혔던 허리를 펴고 길게 숨을 몰아쉰다. 감개가 무량한 듯 코를 탕푼다.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이 변했다.

옥단 : 계신게라우?

태길 : (쌀쌀맞게) 아무도 없어.

옥단 : 아무도 없는데 말소리는 들린다냐?

태길 : (불쾌해서) 없다면 없는 줄 알지 웬 긴소리 짧은 소리가...

(하며 마루끝에서 내려다본다. 옥단이가 얼굴을 들고 쳐다본다.)

옥단 : 헛헤..

태길 : 아니...이것이 누구여?

옥단 : 누군 누구... 나 옥단이제? 헛헤..

태길 : 오,옥단아? (그는 맨발로 내려와 옥단이를 새삼 훑어본다.)

옥단 : 봉춘 아버지도...많이 늙었소잉?

태길 : 사돈네 남의 말허네! 헛허..옥단아!

옥단 : 훗호...

두 사람은 비로소 일싸안고 웃다가는 마침내 울음으로 변한다.

그 서슬에 옷 보따리가 땅 위에 뒹군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는다.

태길 : 살아있었구먼! 잘 왔다! 잘 왔어!

옥단 : 내가 살아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라우?

(다시 슬퍼지며) 질기기도 질긴 목숨...그때 꼭 꼬꾸라져서...죽어

야 했었는디...

흑..이렇게 또 살아왔구먼유! 흑...흑...

태길 : 그런디, 어쩐 일로 이렇게...

옥단 : (눈물을 닦으며) 형무소에서 나가라고 합디다. 내사 해방이 무엇인지,

자유만세가 무엇인지나 알겠소? 그저 남들이 두팔 들고 “만세” 하면,

나도 따라서 만세했지라우...헛헤... (어느새 그 얼굴엔 행복한 빛이 보인다.)

생각하면 꿈만 같소!

태길 : 꿈이고 말고...(한숨)꿈이 따로 없지....이것이 바로 일장춘몽이제...헛허..

옥단 : 봉춘 아버지도 문자께나 쓰시오잉? 그것도 해방덕인감? 헛흐...

태길 : 해방이 좋기는 좋은게비여. 여기서나 저기서나 숨어있던 것들이 죄다 되살아나니...

옥단 : 참, 봉춘이 소식은... 들었소?

태길 : 봉춘이? (마루쪽으로 가며 가볍게)갔졌제.

옥단 : (따라가며) 오지 않고 가라우?

태길 : 간 사람이 어디 봉춘이뿐인가? 다 갔당께! (상청을 돌아보며) 참 봉 영감도...

영찬 서방님은 자살하고...오서방은 전사하고...(마룻장을 치며) 죄다 갔어!

쓸만한 것들은 죄다가고... 우리 같은 병신들만 남았으니... 이것이 뭐여? 응?

(울음이 터지자 마룻장을 치며 통곡한다. 이 사이에 옥단은 천천히 상청 쪽으로 간다. 옥단은 말라버린 사람같다.)

옥단 : (사진을 보며) 잘 가셨지라우. 이런 지랄 같은 시상 살면 또 뭇하것소? 안 그렇소?

참봉어른! (긴 한숨을 몰아쉬고는 태길을 돌아본다. 그 눈 빛이 정상이다.)

태길 : (눈물을 닦다가 말고) 뭘 보는겨?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옥단 : (어떤 환각 속에서 혼잣소리로) 많이 빈 분 같은디...

혹시 형무소 가운데 마당에서 풀 뽑기 할 때 만난... 그 양반 아
니여?

태길 : (불안한 예감에서) 지금 뭘 소릴 하는겨여? 응? 나를 몰라봐?

옥단 : (갑자기 환각 증상이 일어나며) 밖에 나가서 만나게 되면 모르는
척 말라던 그 양반인가? (사이) 이..영찬? 오매! (옥단은 젊은 날
의 언행으로 바뀐다.)

태길 :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제 정신이 아니여!

옥단 : (수줍게) 우리집 양반 이름하고 닮았네요.

영찬이...흠...쪽도리 쓰고 식은 안 올렸지만... 좋아하는 사이였
지라우..

흠..그런디 집안 어른들이 어찌나 반대하는지... 그만...

(사이) 헤어진 것도 아니고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
게 마음속에다가 묻어놓고..호호.. 그런디 글메 어느날 온다간다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버렸지라우. 내가 돈 벌어오란 것도 아
니고, 옷 사달라고 칭얼댄 적도 없는디 글메..

(한숨)애시당초 넘어다 봐서도 안 되고, 넘어다 볼 수도 없는 일잉계.
하늘과 땅이지라우! 게다가 내 얼굴 좀 붓쇼잉? 삶은 메주콩 찌
어 다독거리다가 땅에 떨어진 것 맨큼으로 비틀어졌으니...헛헤..
남자들 마음은 매한가지라우.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그저
이쁜 여자만 보면.. 헛헤..

그런디 이상합니다. 어느날 갑작스럽게 나를 받아주는 날이 오겠
지 하는 생각이 나면서부터는 바람이 불면 그런 대로... 꽃잎이 피
면 그런 대로... 자면 또 그런대로... 언젠가는 나를 데리러 오것제
하고 믿으면서 살아나왔지라우!

(울먹거리며)멍청하고 무식해서지라우. 흑...흑... 지금까지 허깨비만 믿고 살았나 싫어지자 내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럴 때면 벽에다 머리통이 깨지라고 부딪쳤지라우! 보십시오. 여기... 그 상처 있지라우? (하며 머리를 수그러 보인다.)

생각하면 원통하네요. 진작 쥐약이나 먹고 죽을 것을... 뭘 바랄 것이 있다고 기다리다 기다리다...(울음보가 터진다.) 흑..흑...난...난...(태길의 품에 얼굴을 묻는다.)

태길 : (옥단을 안으며) 그러! 실컷 울어라. 우는게 약이나라! (사이) 옥단아 참 너한테 보여줄 물건있다. (하며 품안에서 봉투에 싼 예금통장을 내보인다.)봉춘이가 노무자로 가면서 준 예금통장이여! 흠...

옥단이가 헤진 예금 통장을 받아서 본다. 다음 순간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와 옛 생각이 되살아 난 듯 눈빛이 반짝거린다.

옥단 : 이게 왜 여기...

태길 : 왜는 왜... 내게 맡겼잖나!

옥단 : 봉춘이 예금통장인디..

태길 : (놀라며) 인자 알겠어?

옥단 : 알고말고라우! 대판으로 떠나면서 맡긴 예금통장!(피보며)시상에...

(하며 예금통장을 볼에다 댄다.)

태길 : 아...삼 년하고도 7개월이다. 그 놈이 돌아오면 찾아 쓰려고 기다렸는디...

옥단, 통장 안을 펴보다 말고 갑작스리 킬킬댄다.

태길 : 뭐가 우습냐? 응?

옥단 : (아슬한 기억을 더듬으며) 저 뜰 아랫방에서...셋이서 자던 날 밤....흠...

태길 : (놀란 듯) 뭣이 어찌?

옥단 : 나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봉춘이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란히서.. 히히..

태길 : 별 것 다 기억한다.(멋적어서 돌아선다.)

옥단 : 사실은 그날 밤 뜬눈으로 새웠지라우...

누가 먼저 내 손가락을 잡아댕길 것인가 하고..흠...

태길 : 망측스럽다!

옥단 : 그런데..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디...훗호

태길 : 히히...

옥단 : (문득) 나보고 별종이라고 헤드랑께! 히히..

태길 : 별종? 누가?

옥단 : 그 고등계 형사

태길 : 형사?

옥단 : 영찬이 학상하고 나는 한 지붕 밑에서 살았지만도 손목 한번 잡아본 적 없다니께. 글메 변태라고 하면서...마구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고...

태길 : 그 놈이 누군지 모르지?

옥단 : 예?

태길 : 그 놈 조선 놈이었단다.

옥단 : 참말인가요?

태길 : 오까모또라고 창씨개명까지 하고 완전히 일본놈 행세하며 술한 조선 사람을 괴롭혔다더라...

옥단 : 그래 어디 산다요?

태길 : 죽었지. 열 번 죽어도 싸지!

옥단 : 예?

태길 : 해방이 되자, 주민들에게 몰매 맞아 죽었단다. 주민들이 목포 시내 구석구석 끌고다니나다 께보선창에서 때려 죽였단다.

옥단은 공포와 불안이 다시 엄습해 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낀다. 태길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태길 : (길게 한숨을 내쉬며) 사람이 산다는 것이 ...

시상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죽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
연기 같고 바람 같은 것이제... 그런데 왜들 원수 되고 또 원수 갚고하는지..

난 모르겠다. 옥단아. 안 그렇냐?

옥단 : (서서히 고개를 들며) 나도 모르겠소. 대소쿠리로 바람 잡듯이 살아온 년..

뭘 알겠소...

태길 : 그래도 옥단이 너는 한 가지는 잘 알고 있었제?

옥단 : 한가지라고요?

태길 : (미소지으며 두 손을 입에 대고 하모니카 부는 시늉을 한다.)

옥단 : (미처 못 알아듣고) 그것이 뭣이대요?

태길 : 하모니카

옥단 : (생각이 되살아나며) 하모니카라우? 오메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오?

태길 : 기억하다 마다...이따금 옥단이 하모니카 보는 그 곡조(曲調)생각났지?

옥단 : 참말이지라우?

태길 : 암, 그 멧이냐. 봉춘이란 놈 대판으로 떠나던 날 목포역 울타리에 기대고 붙었던 그 하모니카 소리...

옥단 : 듣고 싶소?

태길 : 듣고 싶기야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아... 그런 날도 있었다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맛 나! 훗흐...
이런게 다 나이 먹으면 하는 죽은 자식 새끼 부랄 만지기랑께...
헛허..

옥단이가 가지고온 보따리를 풀면서 물건을 찾는다.

태길 : 뭣하냐?

옥단 : 쪼께 기다리셨쇼.(이윽고 하모니카를 꺼내 보인다. 장난끼가 가득 찬 천진한 소녀의 표정같다.)

태길 : 여태 그걸 가지고 있었냐?

옥단 : 이 하모니카가 어떤 물건인디...(어루만지다가 불에 대기도하며) 지금까지 내품에서 떠나본 적이라곤 없었지라우! 형무소에서 풀려나올 때도 소지품 보따리를 내주기에 나는 하모니카부터 찾았더니 간수가 웃습니다! 헛헤...

태길 : 허기사 영찬 서방님이 주셨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제...

옥단 : 고마운 분이였지라우. 부잣집 대련님이지만 인정 많고, 신명 많고... 사람차별 안 하고...(울먹이며) 그러디...왜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하고...

나같은 등신은.. 살아남아서...

태길 : 니 말이 맞다. 쓸만한 젊은이는 쓸어가고, 무지렁이들만 살아 남았으니...호호..

옥단 : 하모니카를 내게 주셨을 때 영찬 학상은 길 가는 동냥치에게 엽전한 잎 던져주는 셈쳤겠지만... 난... 그게 아니었지라우... 바람이 부나 눈보라 치나.. 나는 생각나면 이걸 낙으로 삼고...

태길 : 어디 한번 불어봐.

옥단 : 참말로라우?

태길 : 궁둥이 춤이야 인자 늙어서 어렵겠지만...헛허.. 오랜만에 옥단이 하모니카 소리 좀 듣자.

옥단 : 그럼시다.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디 그 소원까진 못 들어 주셨죠? 호호...

옥단이가 두어번 음 조율을 하더니 불기 시작한다. <타향살이>곡이다.

유별나게 쓸씨넨스럽다. 태길도 눈을 지그시 감는다. 옥단이 문득 생각이 난 듯 하모니카를 멈추고 보따리를 다시 싸기 시작한다.

태길 : 왜... 어디 갈라고?

옥단 : 야.

태길 : 어디 옥단이 움막집은 벌써 헐렸제.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옥단 : 알고 있어라우.

태길 : 그럼 당장에 어딜 가... 당분간 여기 있거라. 아까 치안대에서 이
집 비워줘사 쓰겠다지만 행랑방이야 쓰게 하겠지. 그렇니 판 생
각 말고...

옥단 :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렇지만 나대로 사는 날까지 살 것이구먼요...
그럼 봉춘아부지..잘계시쇼. 잉?(절을 꾸벅한다.)

태길 : 옥단이 그냥 나하고... 있어 응?

옥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태길 : 이것 보드라고 ... 옥단이! 어디 가?

4. 김 현

■한국문학의 위상 (1977) 중에서

- 어쩌다가 유년 시절을 회고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국민학교 일학년 때의 내 짝이었던 고깃집 아이의 혈색 좋은 두툼한 얼굴이고, 그 얼굴에 겹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과 싸우다가 내가 머리를 거꾸로 쳐박혔던, 내 집 앞의 개울이다. 그 개울이 끝이 남직한 저 먼 곳에서 춘원의 『무정』을 읽다가 어머니에게 들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얘기책만 읽고 있다는 꾸지람을 듣고 훌쩍거리는, 어깨가 좁고 얼굴이 창백한 소년이 떠오른다. 국민학교 오학년 때의 일이다. 그때의 내 고향에는, 유식한 피난민들이, 할 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벌여놓은 헌 책방들이 술하게 많이 있었고, 나는 깎듯한 서울말을 쓰며,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이름도 계집애처럼 부용이라고 불리는 한 아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 헌 책방의 소설책들을 거의 다 읽어냈다. 읽었다고는 하지만, 지루하고 무슨 소린지 잘 알 수가 없는 지문은 성큼성큼 뛰어넘고, 멋진 대화 같이 느껴진 것만을 읽어가는 괴상한 독법으로 읽은 것이었다. 겨울 밤에, 가슴에 베개를 괴고, 해남 물고구마를 늘어붙도록 찌가지고 먹어대며, 이형식에서 오유경에게로, 허승에서 임꺽정에게로, 그리고 오피리아에서 파우스트로 정신없이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켜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다.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설책을 읽어서는 무엇 하려는 것이냐는 꾸밈이 어머니의 주된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판사나 검사가 되지 않고 문학 나부랭이를 했다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꾸짖었다. 그 문학을 아직까지도 나는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하는 것을 무엇 하려고 하느냐? 그 질문은 아직까지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한다! 중세기처럼 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권력에 가까이 가는 길도 아니며, 몇몇의 날렵하고 재치있는 수필가·작가 들이 비록 그들

의 저술로 치부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을 해가지고 아무나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식민지 치하의 몇몇 작가들처럼 모두들 지사로서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문학을 한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할 만한 가치를 그 자체 내에 갖고 있는가? 문학이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비난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제시한다.

범박하게 말하면, 문학은 문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종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나의 어머니의 비난 속에도 숨어 있는 것이지만, 그 주장은 문학이 권력이나 치부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연유한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표현할 줄은 알고 있지만, 그곳에 상당한 보수는 지불할 수 없다. 아니, 그런 보수를 지불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문학을 해서는 무엇하는가.(pp.39~40)

.....(중략)

문학을 함으로써 검사나 판사 혹은 장관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왜 문학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학이 되풀이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학을 쉽게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p.46)

.....(중략)

남은 일생 내내 나에게 써먹지 못하는 문학은 해서 무엇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신 어머니, 이제 나는 당신께 내 나름의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확실히 문학은 이제 권력예의 지름길이 아니며,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써먹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그 써먹지 못한다는 것을 써먹고 있다. 문학을 함으로써 우리는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억압된 욕망은 그것이 강력하게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더욱 강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지한다. 그 부정적 힘의 인식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그것에서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낀다. 문학은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감각적 쾌락을 동반한다. 그 쾌락은 반성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파악에 이른다. 이 대목을 쓰려니까 갑자기 내 의식은 어렸을 때의 어머니의 음성으로 향한다. 겨울밤엔 고구마나 감, 그것이 아니면 하다못해 동치미라도 먹을거리로 내놓으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아벨과 카인의 얘기를,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수절과부의 얘기를, 도적질하다가 벌을 받은 그녀의 친지 중의 한 사람 얘기를 어머니는 내가 잠들 때까지 계속하신다. 그때에 내가 느낀 공포와 아픔, 고통을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나 그 아픔이나 고통 밑에 있는, 어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주는 쾌감을 내가 얼마나 즐겨했는가! 무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 즐거움 이쪽에서, 오랜 후에 혹은 즉시로 우리는 해야 될 것에 대한 의무감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 것처럼 문학은 억압 없

는 쾌락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것을 읽는 자에게 반성을 강요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것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안 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한다. 인간은 이래야 행복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pp.49~51)

.....(중략)

문학은 동시에 불가능성에 대한 싸움이다.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겨들 수가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인간의 실현될 수 없는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낸다. 그 거리가말로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불가능한 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삶은 비천하고 추하다. 그것을 깨닫는 불행한 의식이야말로 18세기 이후의 문학을 특징짓는 큰 요소이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꿈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성할 수 있다. 꿈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 거리를 가질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갇혀버려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사춘기 때에, 나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할 수 있는 여자란 여자는 모조리 마음속으로 간음하였다. 그녀들은 그때의 나에게 단순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이해하게 되자마자, 여자들은 먹히기를 기다리는 고깃덩어리이기를 그치고, 장미꽃 핀 화원을 드나드는 천사들이 되었다. 문학은 그 고깃덩어리와 천사 사이를 왔다갔다 하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 기만을 날카롭게 고발한다.(pp.52~53)

.....(중략)

작년 11월경에 연구실로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불문과 졸업반 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한 뒤에 대학원 불문과에 진학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의대를 다시 다녀볼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다. 의대에 다녀볼까 하는 그의 고민은 후진국의 대학생으로서 말장난과 같은 문학 따위는 공부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것에서 생겨난 모양이었다. 이제 다시 입시 준비를 하여 의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학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차라리 의대를 나와 무의촌에서 한 사람의 의사로서 성실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 생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나로서는 소위 일류 대학이라고 알려진 학교를 나와서, 일류 회사에 취직한 후, 부잣집 처녀에게 장가를 가서 편안히 삶을 유지하고 싶다는 유혹에 그가 빠지지 않고서, 다시 말해 편안한 익명의 기능인이 되는 대신에, 자기에게 교육을 시켜준 사회에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 같아, 그의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사실 얼마나 필요한 고민인가를 새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그러나 문학을 포기하는 것과 문학을 전공으로 삼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며, 어느 분야에서 공부를 하든 문학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되풀이 표명된 것이지만, 문학은 씹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으며, 그 씹먹을 수 없다는 문학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힘에 대한 감시체의 역할을 문학으로 하여금 맡게 하는 것이다. 그

문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봉사한다는 이름 밑에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세력에 봉사하게 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인간에게 봉사한다는 관념 자체는 그 봉사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의 지적 우월감을 나타내기 쉬우며, 그 우월감은 봉사의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 자기가 봉사한 인간들에 대한 경멸로 나타나기가 쉽다. 이 광수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문학을 전공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문학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문학을 전공으로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학의 기본 정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의 행위는 몸으로 쓴 문학이 될 것이며, 그가 만일 쓴다면 그가 쓴 일기는 펜으로 쓴 문학이 될 것이다. 문학을 완전히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억압하는 힘에 대한 반성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내가 그에게 한 말은 대체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번 방학 내내 그가 나에게 준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가 없었다. 후진국에서 문학 활동을 한다는 것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인간은 완전히 억압 없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가, 그때에도 문학은 문학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따위가 가령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따위로 더욱 복잡해진 머리를 아프게 짓누르는 것이었다.(pp.184~185)

-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뱃속까지 뜨거워지도록 가차 없이 내려 퍼붓는 여름날의 땀별과 저녁 어스름이 내릴 무렵, 평상을 내놓거나 명석을 펴놓고, 모기를 쫓기 위해서 쭉불을 피우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된장 종지며 반찬 그릇을 어림잡아 찾아다니며 저녁을 먹은 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얘기의 재미를 거의 모를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옛날 얘기의 대부분은 성경 얘기였다.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얘기에서부터, 구약성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나는 처음에 얘기로서 받아들였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그것들은 세계의 원초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로 생각되었다.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저술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도, 그것은 글
 로 씌어진 것 이상의 의미를 내 속에서 갖고 있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것
 이었고, 다시 말해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다. 유년 주
 일 학교에서 공포와 경외감을 가지고 성서를 마치 교과서를 배우듯 배
 우면서,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나는 소위 세속적인 얘기를 적은 책들을 읽
 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 질투심 많고 잔인한 신의 이야기와는
 다른 여러 얘기들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것들을 나는 경외감이나 공포
 심을 갖고 읽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을 호기심과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
 키기 위해 읽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 나는 사람들이 내가
 읽은 것을 시니, 소설이니, 수필이니 하는 따위의 문학적 장르로 구분하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문학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 속에는 성경이
 나, 고등학교 시절에 그토록 탐독한 『뜻으로 본 한국 역사』나 김교신의
 수필집 같은 것은 끼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반비례해서
 국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들이 나에게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는 읽
 을거리가 아니라, 이차 방정식이나 삼차 방정식과 같이 내가 풀어서 그
 정확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할 문제처럼 이해되는 일들이 생겨났다. 나
 의 정신 구조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성경은 제쳐놓는다 하더
 라도, 내가 『파우스트』나 『죄와 벌』과 마찬가지로의 감동을 가지고 읽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나 부버의 『나와 너』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는 것
 이었고, 국정 국어 교과서에 실린 글들을 내가 읽은 대로 나의 느낌을 말
 하면, 그것은 자네의 생각이니, 글쓴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바로 거기에서, 문학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그것의 내포를 한정시키고,
 시·소설·수필·평론 등의 장르적 특성을 유별나게 강조하는 글들에 대한
 나의 혐오감이 생겨난 것이겠지만, 동시에 바로 거기에서, 문학이란 무
 엇인가, 문학과 문학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이란 무엇인가라는 해묵은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이
 해할 것인가』, 『전집 1, 한국문학의 위상』, pp.78~79)

5. 김지하

■ 황톳길 (시집 황토, 1995년)

황톳길에 선연한
핏자욱 핏자욱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두 손엔 철삿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모밀밭을 태우는
총부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은 곳
부춧머리 깃가에 송어가 필 때
가마니 속에서 네가 죽은 곳

밤마다 오포산에 불이 오를 때
울타리 탕자도 서슬푸른 속니파리
뺨시디 뺨친 성장 처럼 역세인
황토에 대낮 빛나던 그날
그날의 만세라도 부르랴
노래라도 부르랴

대밭에 대가 성긴 동그만 화당골
우물마다 십년마다 피가 솟아도
아아 척박한 식민지에 태어나
총칼 아래 쓰러져간 나의 애비야

어이 죽순에 꺾는 물방울
수정처럼 맑은 오월을 모르리 모르리마는

작은 꼬막마저 아사하는
길고 잔인한 여름
하늘도 없는 폭정의 뜨거운 여름이었다
끝끝내
조국의 모든 세월은 황톳길은
우리들의 희망은

낡은 짝배들 햇볕에 바스라진
별길을 지나면 다시 모밀밭
희디흰 고랑너머
청천 드높은 하늘에 갈리든
아아 그날의 만세는 십년을 지나
철삿줄 파고드는 살결에 숨결 속에
너의 목소리를 느끼며 흐느끼며
나는 간다 애비야
네가 죽은 곳
부춧머리 깃가에 송어가 뿔 때
가마니 속에서 네가 죽은 곳.

■ 비녀산 (시집 황토, 1995년)

무성하든 삼밭도 이제
기름진 벌판도 없네 비녀산 밤봉우리
웨쳐부르든 노래는 통곡이었네 떠나갔네

시퍼런 하늘을 찢고
치솟아 오르는 맨드라미
터질듯 터질 듯
거역의 몸짓으로 떨리는 땅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옛 이야기속에서는 뜨겁고 힘차고
가득하던 꿈을 그리다
죽도록 황토에만 그리다
삶은
일하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는 것.

삶은 탁한 강물속에 빛나는
푸른 하늘처럼 괴롭고 견디기 어려운 것
송진타는 여름 머나 먼 철길을 따라
그리고 삶은 떠나가는 것.
아아 누군가 그 밤에 호롱불을 밝히고
참혹한 옛 싸움에 몸바친 아버지
빛바랜 사진앞에 숨죽여 울다
박차고 일어섰다
입을 다물고
마지막 우월은 비녀산 밤봉우리
부르는 노래는 통곡이었네 떠나갔네

무거운 연자매 돌아 해가고
기인 그림자들 밤으로 밤으로 무덤을 파는 곳
피비린내 목줄기마다 되살아오고
터질듯한 노여움이 되살아오고
낡은 삽날에 찢긴 밤바람

웨쳐대는 곳

여기
삶은 그러나
낮선 사람들의 것.

■ 용당리에서 (시집 황토, 1995년)

용당리에서의 나의 죽음은
출렁이는 가래에 묻어올까, 묻어오는
소금끼 바람속을
돌속에서 흐느적거리고 부두에서
노동자가 한 사람 죽어있다
그러나 나의 죽음
죽음은 어디에.

무슨 일일까

신문지속을 바람이 기어가고
포래포래마다 반짝이는 내 죽음의
흥흥한 남쪽의 손금들 수군거리고
해가 침몰하는 가래의 바다 저 끝에서
단 한번
짙막한 기침소리 단한번.

그러나 용당리에서의 나의 죽음은
침묵의 손수건에 묻어올까
난파와 기나긴 노동의 부두에서 가마니속에

노동자가 한사람 죽어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작은 손이 들리고
물위에서 작고 흰 손이 자꾸만
나를 부르고.

■ 산정리 일기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 1982년)

나를
여기에 묶는 것은 무엇이나
뜨거운 햇발 아래 하얗게 빛날 뿐
고여 흐르지 않는 뚝봉 속에 깊이 숨어
끝끝내 나를 여기에 묶는 것은 무엇이나

눈부신 붉은 산비탈
간간이 흔들리는 흰 들꽃들조차
가까이 터지는 남포 소리조차 아득히 멀고
흙에 갇힌 고된 노동도 죽음마저도
나를 일깨우지 않는다

흐린 불빛이
가슴을 누르는 소주에 취한 밤
목쉬인 노래와 칼부림으로 지새우는 모든 밤
뜬눈으로 지새우는 알 수 없는 몸부림에
기어이 나를 묶는 것은
아아 무엇이나

개어 있지도 잠들지도 않는
끝없는 소리 없는 이 어설피름은 무엇이나

밤마다 취해서 울던
붉은 눈의 해주 영감은 죽어버렸다
열여섯 살짜리 깨곰보도
취한 채 잠을 이루지 못한다

어디에 와 있는 것이냐
나는 살아 있는 것이냐
무딘 느낌과 예리한 어둠이 맞서
섞이지 않는다 부딪히지도 않는다
또다시 시퍼런 새벽이 온다

남포가 터진다
흙차가 돌아간다
나는 흙 속에 천천히 깊숙이
대낮 속에 새하얀 잠의 늪 속에 빠져 들어간다
이것이 대체 무엇이나.

■ 성자동 언덕의 눈 (시집 황토, 1995년)

지금도 너는 반짝이느냐
성자동 언덕의 눈
아득한 뱃길 푸른 물구비 구비위에
하얗게 날카롭게
너는 타느냐

산채로

산채로 묻힌 붉은 흙을 헤치고
등에 칼을 꽂은 채 바다로 열린 푸른눈
썩은 보리와 갈라진 논바닥이 거기서 웨치고
거기서 나의 비탄은 새파란
불꽃으로 변한다 너는 타느냐

마주한 저 월출산아래 내리는
저 용당리 들녘에 내리는 은빛
비행기의 은빛 비늘의 눈부심, 독한 눈부심위에 아아 푸른 눈
침묵한 아우성의 번뜩임이 거기서 타느냐
지금도 너는 반짝이느냐
성자동 언덕의 눈
하얗게 날카롭게 너는 타느냐.

6. 최하림

■ 숲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1992년)

- 시간의 풍경들, 그리고 말들 (1992년)

이 글은 한 편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셈이 되겠다. 해방직후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는 너나없이 뒤통거리는 책상과 의자, 말뚝종이 교과서로 공부하였고, 너나없이 해진 옷과 헌 고무신을 신고 십리도 더 되는 황토길을 달려 다녔다. 신바람이 났다. 해방조국에서 우리 글 우리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면이 복합된 것이겠지만 우리는 먼 학교길을 신바람이 나서 뛰어다녔고, 아카시아꽃 냄새를 맡았고 바람과 눈비 속을 뚫고 다녔다.

어쨌거나 행복한 시절이 2,3년 계속되었다. 뒤를 이어, 역사책에서 좌우투쟁시기라고 기록하는 돌풍시기가 몰아들었다. -중략-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고, 아주 침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학교 갈 때나 올 때, 우리 중의 누군가 걸음을 멈추면 따라 멈추었다. 신바람은 없었다. 일종의 소년적 관성이, 그렇다, 그 관성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여기 적지 않으면 안 된다. 6·25가 일어난 다음다음 해 서해안 일대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내 삶이나 문학이 아무리 그것을 넘어서려 할지라도, 전쟁의 공포와 전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그 가뭄은 들을 태우고 나무들을 태우고 나중에는 마을의 샘물까지도 바닥을 내고 말았다. 병약한 나까지도 어머니를 도와 물지게를 지고 서근리 산언덕을 올라가노라면 매상골 밭의 죽은 메밀과 넘실거리는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시간의 풍경들, 그리고 말들』, 『숲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1992, 123~4쪽.)

그런 굶주림과 아픔의 기억 속에서 내 시는 한 편 한 편 씩어지고, 한 시집이 되고, 또 한 시집이 되어갔다. 시들은 굶주림을 잊지 못하고 굶주림 속으로 들어가려는 성향까지도 보였다. 김현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굶주림과 어머니와 전쟁과 바다가 내 시의 원체험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었다. (『시간의 풍경들, 그리고 말들』, 『숲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1992, 124쪽.)

■ 죽은 자들이여,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도시의 보이지 않는
눈이 나를 보고 있다
이 도시의 집들이
나무들이
창들이
굴뚝들이
새벽마다
쓸려가는
이 도시의
쓰레기와 병들과
계급과 꽃
데모와
바람과
바람의 외침들이
보이지 않는 내 손짓
보이지 않는 내 눈짓
보이지 않는 내 소리짓
을 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내 맘속의 맘까지도

저 배반과 음모까지도 보고 있다
이 도시의 눈들이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오오 나를 감시하는 눈들이 보는 저 꽃!
하늘의 상석에 올려진, 아직도
피비린내 나는,
눈부시고 눈부신 꽃
살가죽이 터지고
창자가 기어 나오고
신음 소리도 죽은,
자정과도 같은,
침묵의 검은 줄기가
가슴을 휩쓸면서
밭끝에서 심장으로
정수리로
오오 정수리로.....

■ 호탄리 詩篇

어둔 길로 한 남자가 경운기를 몰고,
그 뒤로 여자가 계집아이를 업은 채 타고 있다
그들은 반달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
개 한 마리도 허리를 구부리고서
꼬리를 흔들며 뒤따르더니
어떤 영상이 보이는지
방향을 바꿔 추수가 끝난 논으로
뛰어가고 있다 까마귀들이 후두둑
후두둑 날고 있다 낮게 또 낮게

까마귀들은 어떤 눈에는 내리고
어떤 눈에는 내리지 않는다
까마귀들의 뒤로 저녁 공기가 빠르게 이동한다
왼편 골짜기에서 어스름이 달리듯이 내리고
시간들이 부딪치면서 부서지고
어떤 시간들은 문을 닫고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침묵 속으로 강물 소리 들린다
나는 강물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모은다
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귀 기울인다
이제 경운기는 없다 개 한 마리도 없다
어둠이 내린 들녘에는 검은 침묵이 장력을 얻어
물결처럼 넘실대면서 금강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금강이 검게 빛난다

어디서 달이 뜨는지
마른 풀잎들이 서걱이는 모습이 보이고
밤새들이 날아오르고 소 팔러 갔던
사내들이 술에 취해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리고 있다

7. 김진섭

■ 隨筆의 文學的 領域, (1929년)

수필이라는 것이 원래 극히 막연하고 광범한 문학형식인 만큼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규정하기는 물론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하면 시, 소설, 희곡 등속의 문학이 일견 명료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수필은 문학으로서의 일정한 형식을 갖지 못하고 수필은 그것이 차라리 작품으로서의 형식을 갖지 않는데 특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우에 의해서는 제약도 없으며 질서도 없으며 계통도 없이 자유롭게 산만하게 쓰인 모든 문장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까닭으로 수필은 흔히 비문학적인 인상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사실문학은 자기의 협애한 영역 안에 수필이라 하는 이 자유분방하고 경묘탈주하고 변화무쌍한 양자를 포용하기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중략) 수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것은 숨김없이 자기를 말한다 것과 인생사상에 대한 방관적 태도, 이 두 가지에 있을 따름이요 이것만을 기초로 삼고 붓을 고요히 들때 題目 여하는 무를 필요가 없다.

◆ 백설부 (1939년)

말하기조차 어리석은 일이나, 도회인으로서 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눈(雪)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눈을 즐겨하는 것은 비단 개와 어린이들뿐만이 아닐 것이요, 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세상이 일제히 고요한 환호성을 소리 높여 지르는 듯한 느낌이 난다.

눈 오는 날에 나는 일찍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통행인을 거리에서 보지 못하였으니, 부드러운 설편(雪片)이, 생활에 지친 우리의 굳은 얼굴을 어루만지고 간질일 때, 우리는 어찌된 연유인지 부지중(不知中) 온화하게 된 마음과 인간다운 색채를 띤 눈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경쾌한 목례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겨울의 모진 바람 속에 태고(太古)의 음향을 찾아 듣기를 나는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어라 해도 겨울이 겨울다운 서정시는 백설, 이것이 정숙히 읊조리는 것이니, 겨울이 익어가면 최초의 강설(强雪)에 의해서 멀고 먼 동경의 나라는 비로소 도회에 까지 고요히 고요히 들어오는 것인데, 눈이 와서 도회가 잠시 문명의 구각(舊殼)을 탈(脫)하고 현란한 백의(白衣)를 갈아입을 때, 눈과 같이 온, 이 넓고 힘세고 성스러운 나라 때문에 도회는 문득 얼마나 조용해지고 자그마해지고 정숙해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때 집이란 집은 모두가 먼 꿈속에 포근히 안기고 사람들 역시 회귀한 자연의 아들이 되어 모든 것은 일시에 원시 시대의 풍속을 탈환(奪還)한 상태를 정(正)한다.

온 천하가 얼어붙어서 찬 돌과 같이 딱딱한 겨울날의 한가운데, 대체 어디서부터 이 한없이 부드럽고 깨끗한 영혼은 아무 소리도 없이 한들한들 춤추며 내려오는 것인지, 비가 겨울이 되면 얼어서 눈으로 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만일에 이 삭연(索然)한 삼동(三冬)이 불행히도 백설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적은 위안이 더욱이 그 양을 줄이고야 말 것이니, 가령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추위를 참고, 열고 싶지 않은 창을 가만히 밀고 밖을 한번 내다보면, 이것이 무어라! 백설 애애(皚皚)한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말할 수 없는 환희 속에 우리가 느끼는 감상은 물론, 우리가 간밤에 고운 눈이 이같이 내려서 쌓이는 것도 모르고, 이 아름다운 밤을 헛되이 자 버렸다는 것에 대한 후회의 정이요, 그래서 설사 우리가 어젯밤에 잘 적었던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최후의 단안(斷案)을 내린 바 있었다 하더라도 적설(積雪)을 조망(眺望)하는 이 순간에만은 생의 고요한 유열(愉悅)과 가슴의 가벼운 경악을 아울러 맞볼지니 소리없이 온 눈이 소리 없이 곧 가 버리지 않고, 마치 그것은 하늘이 내리어 주신 선물인 거나 같이 순결하고 반가운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순화시켜 주기 위해서 아직도 얼마 사이까지는 남아 있어 준다는 것은, 흡사 우리의 애인이

우리를 가만히 몰래 습격함으로 의해서 우리의 경탄과 우리의 열락을 더 한층 고조하려는 그것과도 같다고나 할는지!

우리의 온밤을 행복스럽게 만들어 주기는 하나,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감미한 꿈과 같이 그렇게 민속(敏速)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한번 내린 눈은, 그러나 그다지 오랫동안은 남아 있어 주지는 않는다.

이 지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슬픈 일이나 얼마나 단명하며, 또 얼마나 없어지기 쉬운가! 그것은 말하자면 기적같이 와서는 행복같이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

변연(便娟) 백설이 경쾌한 윤무(輪舞)를 가지고 공중에서 편편히(가볍고 날래게) 지상에 내려올 때, 이 순치(馴致 길들임) 할 수 없는 고공(高空) 무용(舞踊)이 원거리(遠距離)에 뻗친 과감한 분란(紛亂)은,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처연(淒然)한 심사를 가지게까지 하는데, 대체 이들 흰 생명들은 이렇게 수많은 모여선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이는 자유의 도취 속에 부유(浮游)함을 말함인가, 혹은 그는 우리의 참여하기 어려운 열락에 탐닉하고 있음을 말함인가? 백설이여! 잠시 묻노니, 너는 지상의 누가 유혹했기에 이곳에 내려오는 것이며, 그리고 또 너는 공중에서 무질서의 쾌락을 배운 뒤에, 이곳에 와서 무엇을 시작하려는 것이냐?

천국의 아들이요, 경쾌한 족속이요, 바람의 희생자인 백설이여! 과연 뉘라서 너희의 무정부주의를 통제할 수 있으랴! 너희들은 우리들 사람까지를 너희의 혼란 속에 휩쓸어 넣을 작정인 줄은 알 수 없으되, 그리고 또 사실상 그 속에 혹은 기꺼이, 혹은 할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가는 자도 많이 있으리라마는, 그러나 사람이 과연 그런 혼탁한 와중에서도 능히 견딜 수 있으리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백설의 이같은 난무(亂舞)는 물론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강설의 상태가 정지되면, 눈은 지상에 쌓여 실로 놀랄 만한 통일체를 현출(現出)시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완전한 질서, 이와 같은 화려한 장식을 우리는 백설이 아니면 어디서 또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위에는 또한 하나의 신성한 정밀(靜謐)이 진좌(鎮坐)하여, 그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엿듣도록 명령하는 것이니, 이때 모든 사람은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백설의 계시(啓示)에 깊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라! 우리가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동경하던 계시는 참으로 여기 우리 앞에 와서 있지는 않은가? 어제까지도 침울한 암흑 속에 잠겨 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백설의 은총에 의하여 문득 빛나고 번쩍이고 약동하고 웃음 치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라불은 풀포기, 앙상한 나뭇가지들조차 풍미한 백화를 달고 있음은 물론이요 괴벗은 전야(田野)는 성자(聖子)의 영지(領地)가 되고 공허한 정원은 아름다운 선물로 가득하다. 모든 것은 성화(聖化) 되어 새롭고 정결하고 젊고 정숙한 가운데 소생되는데, 그 질서, 그 정밀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며, 영원의 해조(諧調)에 대하여 말한다.

이때 우리의 회의는 사라지고, 우리의 두 눈은 빛나며, 우리의 가슴은 말할 수 없는 무엇을 느끼면서, 위에서 온 축복을 향해서 오직 감사와 찬탄을 노래할 뿐이다.

눈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 줌으로 의해서, 하나같이 희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특히 그중에도 눈에 높이 덮인 공원, 눈에 안긴 성사(城舍), 눈 밑에 누운 무너진 고적(古蹟), 눈 속에 높이 선 동상 등을 붉은 일단으로 더 흥취의 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모두가 우울한 옛 시를 읽는 것과도 같이, 그 배후에는 알 수 없는 신비가 숨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눈이 내리는 공원에는 아마도 늪을 줄을 모르는 흰 사슴들이 때를 지어 뛰어다닐지도 모르는 것이고, 저 성사(城舍) 안 심원(深淵)에는 이상한 향기를 가진 엘러베스터의 꽃이 한 송이 눈 속에 외로이 피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며, 저 동상은 아마도 이 모든 비밀을 저 혼자 알게 되는 것을 안타까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어라 해도 참된 눈은 도회에 속할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산중 깊이 천인만장(千仞萬丈)의 계곡에서 맹수를 잡는 자의 체험할 물건이 아니면 아니 된다.

생각하여 보라! 이 세상에 있는 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 가령 열대의 뜨거운 태양에 쏘임을 받는 저 킬리만자로 산의 눈, 멀고 먼 옛날부터 아직껏 녹지 않고 안타르크티스에 잔존해 있다는 눈, 우랄과 알래스카 주의 고원에 보이는 적설, 또는 오자마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상부(上部) 이탈리아의 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눈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히 우리의 눈에 대한 체험은 그저 단순히 눈 오는 밤에 서 울 거리를 술집이나 몇 집 들어가며 배회하는 정도에 국학되는 것이니, 생각하면 사실 나의 백설부(白雪賦)란 것도 근거 없고, 싱겁기가 짝이 없다 할밖에 없다.

■ 생활인의 철학(1948년)

철학을 철학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니, 왜냐하면 그만큼 철학은 오늘날 그 본래의 사명-사람에게 인생의 의의와 인생의 지식을 교시(敎示)하려 하는 의도를 거의 방기(放棄)하여 버렸고, 철학자는 속세와 절연(絶緣)하고, 관외(管外)에 은둔하여 고일(高逸)한 고독경에서 오로지 자기의 담론(談論)에만 경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철학과 철학자가 생활의 지각을 온전히 상실하여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부단히 인생의 예지를 추구하는 현대 중국의 ‘양식(良識)의 철학자’ 임어당(林語堂)이 일찍이, “내가 임마누엘 칸트를 읽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석 장 이상 더 읽을 수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논리적 사고가 과도(過度)의 발달을 성수(成遂)하고 전문적 어법이 극도로 분화한 필연의 결과로서, 철학이 정치·경제보다도 훨씬 후면에 퇴거(退去)되어, 평상인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철학의 측면을 통과하고 있는 현대 문명의 기묘한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서, 사실상 오늘에 있어서는 교육이 있는 사람

들도 대개는 철학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없는 대표적 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물론 여기서 소위 사변적(思辨的), 논리적, 학문적 철학자의 철학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오직 이러한 체계적인 철학에 대하여 인생의 지식이 되는 철학을 유지하여 주는 현철(賢哲)한 일군의 철학자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철학자만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로 인간적 통찰력과 사물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모든 생활인은 그 특유의 인생관, 세계관, 즉 통속적 의미에서의 철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음에 말하고자 함에 불과하다.

철학자에게 철학이 필요한 것과 같이 속인(俗人)에게도 철학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물건을 사는 데에 그 사람의 취미가 나타나는 것 같이,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세계관, 즉 철학은 개재(介在)되어야 할 것이요, 자기의 직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근본적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인생관이 아니어서는 아니 되겠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때, 한 남자로서 혹은 한 여자로서 상대자를 물색함에 제(際)하여 실로 철학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을 것이요, 우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을 설계하느냐 하는 것도,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이 부지중(不知中)에 채택한 철학에 의거하여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활권 내에서 취하게 되는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일반적으로 미학적 내지 윤리적 가치의식이 횡재(橫在)하여 있는 것이니, 생활인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어느 종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소위 이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상이 각인의 행동과 운명의 척도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상이란 요컨대 그 사람의 철학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일반적 세계관과 인생관에서 온 규범의 한 파생체(派生體)를 말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선택의 주인공이 된 이래 그것이 그대를 천 사람 속에서 추려내었다.”라고 햄릿은 그의 우인(友人) 호레이쇼에게 말하였다. 확실히 우인의 선택은 임의로운 의지적 행동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그것은 인생철학에 기초를 두는 한, 이상(理想)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햄릿은 그에 대하여 가치가 있는 인격체이며, ‘천지之間 萬物’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인생 생활을 저 천재적이나 극히 불운한 정말(丁抹)의 공자(公子)보다도 그 근본에 있어서 보다 잘 통어(統御)할 줄 아는 까닭으로, 호레이쇼를 우인으로서 택한 것이다. 비단 이뿐이 아니요, 모든 종류의 심의 활동(心意活動)은 가치관의 지도를 받아 가며 부단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운명을 형성하여 가는 것이니, 적어도 동물적 생활의 우매성을 초극(超克)한 모든 사람은 좋든 못든 하나의 철학을 가지는 것이다. 사람은 대개 이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를 알며, 그의 염원이 어느 정도로 당위(當爲)와 일치하며, 혹은 배치(背馳)될지를 아는 것이니, 이것은 실로 사람이 인간 생활의 의의에 대하여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오직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말할 것 없이 생활 철학은 우주 철학의 일부분으로서, 통상적인 생활인과 전문적인 철학자와의 세계관 사이에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와 트라지엔의 목양자(牧羊者)의 사이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현저한 구별과 거리가 있을 것은 물론이나, 많은 문제에 대하여 그 특유의 견해를 가지는 점에서는 동일한 철학자인 것이다.

나는 흔히 철학자에게서 생활에 대한 예지의 부족을 인식하고 크게 놀라는 반면에는 농산어촌(農山漁村)의 백성 또는 일개의 부녀자에게 철학적인 달관을 발견하여 깊이 머리를 숙이는 일이 불소(不少)함을 알고 있다. 생활인으로서의 나에게는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생활 체험에서 우려난 소박, 진실한 안식(眼識)이 고명한 철학자의 난해한 칠봉인(七封人)의 서(書)보다는 훨씬 맛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현실적 정세를 파악하고 투시하는 예민한 감각과 명확한 사고력은, 혹종(或

種)의 여자에 있어서 보다 더 발견되고 있으므로, 나는 흔히 현실을 말하고 생활을 하소연하는 부녀자의 아름다운 음성(음성)에 경청하여, 그 가운데서 또한 많은 가지가지의 생활 철학을 발견하는 열락(悅樂)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하나의 좋은 경구는 한 권의 담론서(談論書)보다 나은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인생의 지식인 철학의 진의(眞意)를 전승하는 현철(賢哲)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명의 현철은 사실상 많은 생활인의 머릿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생활의 예지-이것이 곧 생활인의 귀중한 철학이다. -끝-

목포문학관

목포시 갯바위 문화타운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로 1층 박화성관, 차범석관, 2층 김우진관, 김현관으로 꾸며졌다. 각 전시관은 작가가 평생 동안 사용했던 유품들과 창작활동을 한 유품원과 그리고 작품집들이 전시되어 있다.





곡선의 생활

金祐鎮

"창공은 내 위에, 살려는 힘은 내 안에."

창공은 직선이고 힘은 곡선이다.

이것은 나의 금명이다.

곡선 없는 곳에 무슨 힘이 있으랴.

힘 없는 생이 어디 있으랴.

곡선 있는 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되풀이의 싸움

이다.

아이 무엇을 얻어야 하나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헤어보면 어린 14년

옛집 처마 밑—

아버지의 뜻은 무엇?

훌륭한 사람은 무엇?

불초한 자식은 여전히 알 길 없고

유학(遊學)의 몸이 된 때가 있어

꿈은 고향으로 달려가건만,

꿈의 원천인 어머니를 위해선

어떤 꽃을 가지게 할까.

늙으신 아버지는 어디에

안식의 지붕을 세워야 하나.

아이 무엇을 얻어야 하나.

全集集

(1925년)



박화성의 저서들
박화성(1903-1988, 본명 박경순) 한국 최초의 여류 소설가 전남 목포 출생 / 대표작품 : 백화, 고향없는 사람들, 흥수전후등





...아만 했다
 ...맘으로
 ...안
 ...별은 언제나
 ...운하의 나날을
 ...까지 나의 뱃길을
 ...운하는 길고 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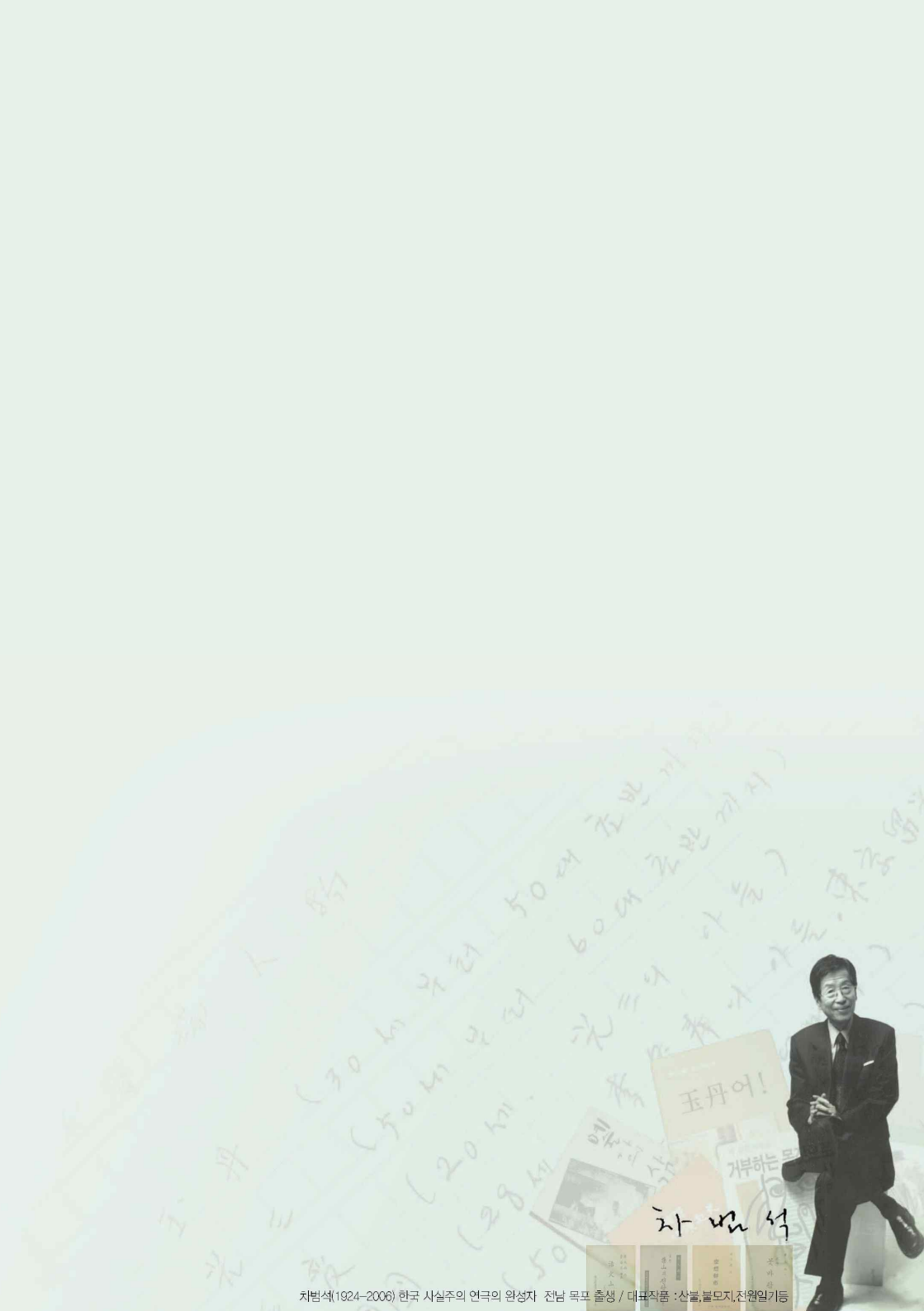
눈보라의 運河

아무런 약속도 없이 나는 떠나야 했다
 내 작고 초라한 배로
 나는 예마른 땅을 파고 물을 해야만 했다
 내 긴 뱃길을 위하여
 그것은 물이 아니라 피와 맘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맑은 날씨와 따스한 햇볕은 언제나
 내게 인색하였다

비바람이 아니면 눈보라의 나날을
 그래도 나는 오늘까지 나의 뱃길을 쉬지 않았다
 2만용 나의 運河는 길고 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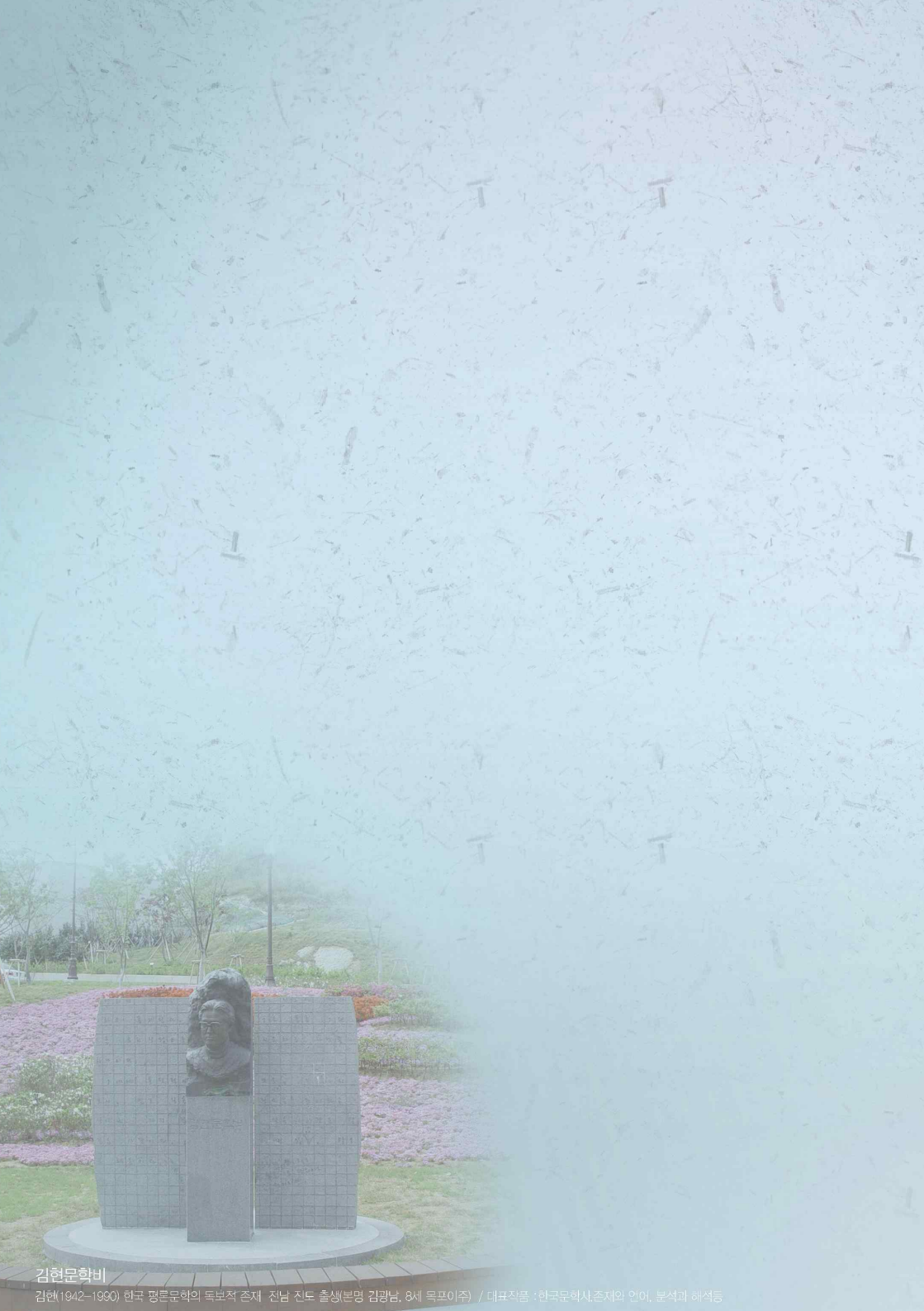
孔花城





차범석(1924-2006)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완성자 전남 목포 출생 / 대표작품 : 산불, 불모지, 전원일기등





김현문학비

김현(1942-1990) 한국 평문문학의 독보적 존재 전남 진도 출생(본명 김광남, 8세 목포이주) / 대표작품 : 한국문학사, 존재와 언어, 분석과 해석등



김현의 첫 저서존재와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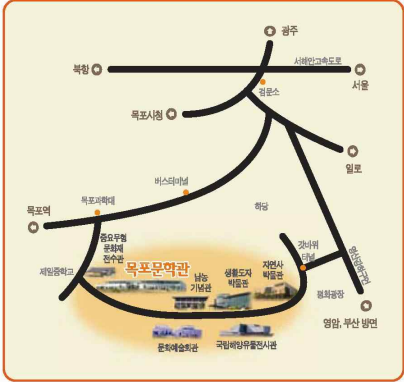


김현이 주도적으로 발간한사계,산문시대,6.8문학



| 목포문학관 오시는 길

문학관 주변



만남의 광장1



만남의 광장2



주차장



비단분수

갯바위 해양관광단지 안내



문화예술회관



해양유물 전시관



자연사 박물관

지구 46주년 기념비의 제형



남농기념관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
Mokpo Centric Livingware Museum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학답사 1번지 목포”

목포를 걷다

목포문학관

전남 목포시 남농로 95

전화_ 061-270-8400

팩스_ 061-270-8413

홈페이지_ <http://munhak.mokpo.go.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됨.

